



주제 세계 속의 한국 문화, 그 맥락과 의미

일시 2023년 5월 13일 토요일 12:30~17:30

장소 감리교신학대학교 웨슬리채플관 웨슬리 제1세미나실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학술 대회 일정

12:30~13:00 등록 및 윤리교육

13:00~13:10 개회사: 정 갑영(한국인문사회과학회 회장)

제1부 외솔 기림 강연 (13:10~13:50)

사회: 임 상현(경희대학교)

발표자	발표 제목
박 영신 (경희학원)	최 현배의 '비판 학문'을 새김

13:50~14:00 휴식

제2부 신진학자 강연 (14:00~14:30)

사회: 임 상현(경희대학교)

발표자	발표 제목
이 성미 (연세대학교)	수많은 세계, 수많은 재앙: 캐서린 유소프의 「10억개 혹은 0개의 흑인 인류세」에 나타난 인류세 탈식민화와 유토피아적 상상력

14:30~14:40 휴식

제3부 주제 발표(1) (14:40~15:30)

사회: 윤 석민(연세대학교)

발표자	발표 제목
이 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류, 세계인의 문화가 되다: 영상산업 변화를 통해 본 한류의 진화
김 규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 없는 한류 : 한류 개념의 포용적 진화 가능성 탐구

15:30~15:40 휴식

제4부 주제 발표(2) (15:40~16:30)

사회: 윤 석민(연세대학교)

발표자	발표 제목
정 종은 (상지대학교)	한류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 신개발주의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류의 역사와 미래 전망 -
김 성우(서울대학교) 정 기인(서울과학기술대학교)	K-pop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멀티리터러시 교육

16:30~17:20 종합토론

사회: 임 상현(경희대학교)

17:20~17:30 폐회사: 정 갑영(한국인문사회과학회 회장)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연구 윤리 교육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연구윤리교육은 한국연구재단의 「부실 학술활동 예방하기」로 진행합니다.
연구윤리교육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홈페이지(<http://hi1977.or.kr>)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1	부실 학술활동이란?	03
2	부실 학술단체란?	04
3	부실 학술단체의 발생 배경은?	05
4	부실 학술지/학술대회 점검 방법	06
5	부실 학술지/학술대회에 대한 연구자 설문조사 결과	07
6	맺음말	10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11
붙임1	부실하거나 악랄적인 학술지 및 학술대회의 특징	12
붙임2	부실학술활동 예방 관련 사이트	13
붙임3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예시)	15

목 차

제1부 외솔 기림 강연

최 현배의 '비판 학문'을 새김

1

제2부 신진학자 강연

수많은 세계, 수많은 재앙: 캐서린 유소프의 「10억개 혹은 0개의 흑인 인류세」에 나타난 인류세 탈식민화와 유토피아적 상상력

21

제3부 주제 발표 (1)

한류, 세계인의 문화가 되다: 영상산업 변화를 통해 본 한류의 진화

36

'한' 없는 한류 : 한류 개념의 포용적 진화 가능성 탐구

50

제4부 주제 발표 (2)

한류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62

- 신개발주의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류의 역사와 미래 전망 -

K-pop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멀티리터러시 교육

83

제1부 외솔 기림 강연

- ▷ 최 현배의 ‘비판 학문’을 새김

최 현배의 ‘비판 학문’을 새김

박 영신(경희학원)

“사람은 도덕적 존재이다. 도덕을 가진 것이 사람의 특권이다.”

최 현배, 「조선 민족 갱생의 도」 (서울: 정음사, 1971)[1926], 189쪽.¹⁾

“세상의 좁은 이기심의 노예가 된 자들이여! [...] 먼저 그 편협한, 무도리한 이기심의 명예를 벗어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겨레를 사랑하는 섬김의 생활로 들어가라.”

최 현배, 「나라사랑의 길」 (서울: 정음사, 1958), 475쪽.

1. 열며

‘최 현배’를 아는가? 그는 누구이며,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삶을 산 사람인가? 그의 이름 들 어본 적 있고 그의 삶 알아본 적 있는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말글로 읽고 쓰는 한글 세상에 살면서도 이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몸과 맘 다 바쳐 이바지한 헌신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달리 알지 못하고 알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글 세상을 만들고자 싸워온 긴 역사가 있다. 중국 글자인 한문을 높이고 우리 글을 낮게 본 조선의 중화주의에 맞서, 일본어를 강제하며 ‘조선어’를 못 쓰게 한 왜인의 모국어 말살 정책에 맞서, 해방된 다음에는 국한문 혼용을 고집해온 역센 기득권 지식 세력에 맞서, 겨레의 선각자들이 앞장서 싸웠다. 이 땅에서의 삶 이모저모를 새기고자 하는 사람은 한글 세상이 오기까지 한두 마디로 그릴 수 없는 고난의 역사가 있고, 이 한 가운데 외솔 최 현배가 자리하고 있다는 겨레 이야기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귀히 여긴다. 나의 참모습과 겨레의 참모습은 나라 글의 역사에 잇대지 않고서는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간, 나는 또다시 최 현배를 새기며 그의 학문 세계를 새겨보고자 한다. 앞서 발표한 글들과 겹치게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의 한평생은 특유의 ‘비판 정신’에 터 잡고 있으며, 이 ‘비판’의 공부 길에서 외솔의 ‘한글 사람 됨’과 ‘사상가 됨’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논지를 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 밝혀지겠지만, 그는 ‘비판 학문’의 길을 연 새로운 유형의 학자이었고 이 학문의 본보기였다.

1) 이 글에서는 한자를 한글로 바꿔 적도록 한다.

2. 외솔 생각

이제로부터 67년 전이다. 그해 나는 통례의 입학시험 없이 고등학교 성적과 면접만으로 신입생을 뽑겠다는 이른바 ‘무시험’ 제도를 내세운 이 실험성 넘치는 유별난 대학에 들어갔다. 전공은 한 해 동안 교양 과정을 거친 다음 정하도록 하는 학부제 모집이었다. 이 대학에 ‘채플’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학교 규모가 크지 않았던 만큼 정규 수업 대신에 총장을 비롯한 교수들과 함께 전교생이 1930년대에 그리스의 원형 극장을 본떠 만들었다는 아담한 노천극장에 모여 기독교 의례에 따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한 다음 강연을 듣는 교과과정이었다.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 기독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든 대학을 제치고 찾아 들어간 이 기독교 대학의 채플 전통은, 내게 익숙하다 못해 보람차고 값진 시간이었다. 일제 강탈 밑에서 겨레를 위해 일하겠다는 큰 뜻을 다지며 여러 영역에서 분투해온 지사들, 왜인의 국가숭배 체제에 맞서 양심의 세계를 지키려다 수난을 겪은 목사들, 왜인의 식민 체제 밑에서도 값진 학문의 열매를 거둔 안팎의 교수들, 갖가지 배경을 가진 저명한 외국 인사들이 채플의 강사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학생들의 속 마음을 일깨우며 생각 지평을 넓혀주고자 하였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 매주 월수금 3교시에 모이는 이 채플은 학점으로 인정받지도 환산되지도 않는, 이 대학 특유의 ‘교양 특강’을 내가 8학기 동안이나 들었으니 채플이 없는 다른 대학 졸업생과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를 것이다. 이 채플에서, 나는 단상의 외솔 선생을 마주했고 이따금 강사로 연단에 선 그의 삶과 생각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하늘 밑에서 같은 바람 같은 눈비를 맞고 같은 햇빛을 쬔다. 그가 거닐던 대학 뜰을 거닐었다. 나는 이 4년의 세월을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이자 자랑으로 여긴다.

외솔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열여섯 살 되던 1910년에 우리 말글 운동의 선봉자 주 시경을 만나 그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일제의 ‘조선어’ 탄압 정책에 감연히 맞서 우리의 말글을 갈고 닦으며 이를 지키자는 뜻을 세워 온 맘과 온 힘 다하여 그 일을 해나갔다. 오랜 연구 끝에 역사에 빛나는 「우리말본」 책을 지어내고 뒤이어 「한글갈」을 펴내고,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일에 깊숙이 파고들고, 마침내 일제가 기획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회원들과 함께 붙잡혀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내란죄의 이름 밑에 갇은 고문에 온갖 곤욕을 겪고 4년 형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러다가 해방되어서야 풀려나고,²⁾ 설 저를도 챙기지 않은 채 일제의 야만 정책에 의하여 짓밟혀 온 우리 말글을 되찾아 이를 살려 펼치는 일에 앞장서 초·중등학교 교과서를 만들고 교사를 양성하여 ‘한글만’ 쓰고 ‘가로로’ 쓰는 오늘날의 한글 세상 그 기틀을 놓았다. 외솔은 위대한 ‘한글의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그는 겨레가 들어서야 할 삶의 길을 두고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여 이를 일러 주고자 한 사상가이다. 일제 식민 체제 밑에서 기세가 꺾이어 풀이 죽어 고단한 나날을 보내야 했던 겨레에게 삶의 기운을 되찾을 길을 열어 보이려고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나라로 돌아오기에 앞서 “조선 민족 갱생의 도”라는 글을 지어 1926년 <동아일보>에 66차례에 걸쳐 <동아일보>에 실고 1930년에는 이 모두를 모아 책으로 찍어내고(최 현배, 1971), 일제의 압제에서 풀려나 새 나라를 세워야 할 때 우리의 실상을 파헤치고 앞으로 온 겨레가 나가야 할 길을 두고 골똘히 생각하여 「나라사랑의 길」을 비롯한 여러 글을 써낸 특출한 ‘생각의 사람’이다.

돌아보면 그지없이 부끄럽고 낯 뜨거운 생각이었지만, 초등학교 때 잡지에 실린 스위스의

2)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김 석득(2006), 박 영신(2006), 이 준식(1994) 볼 것.

교육 개혁가 페스탈로치의 삶에 대한 글을 감명 깊게 읽고는 나도 가난하고 따돌림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한 ‘페스탈로치와 같은’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실로 가당찮은 뜻을 품고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문과대학에 들어가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인문학의 바탕을 마련해 두고 싶었다. 내가 택한 전공이 국어학이 아니었던 까닭에 채플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외솔의 모습을 대하지도 못하고 그의 생각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아무튼 나는 강의실이 아닌 노천극장에서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생각을 만났다. 전공을 공부하기 시작한 그 어느 때 상급생으로부터 외솔이 교토대학 철학부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페스탈로치의 교육 사상을 주제로 논문을 썼다는 말을 듣고 몹시 놀랐던 기억이 있다. 내 판에는 제법 일찍 페스탈로치를 생각했다고 여겼는데 웬걸, 외솔 선생이 그의 교육 사상에 눈길을 두고 연구하여 논문까지 썼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나는 외솔과 어떤 일체감을 느끼게도 되었다. 이 때문이었다. 그가 지어낸 「나라사랑의 길」이 책방에 나오자마자 제법 흥분된 마음으로 사서 읽으며 뿌듯해하기도 했다.

세월이 지나 내가 이 대학의 선생이 되었다. 바깥 나라에서 공부할 때 그곳 동양도서관에 들어오는 정기 간행물에서 외솔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과 함께 그의 뜻을 잇고자 하여 외솔회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읽고 마음 다져 먹었던 대로, 돌아온 그해 누구의 소개나 권유 없이 외솔회에 들어갔다. 그리고 강의 시간에 한글의 역사-사회학 이야기를 일러주고, 한글을 갖고 닦으며 이를 지키고자 한 외솔의 노고와 고난의 삶 이야기를 들려주고 겨레와 나라에 대한 그의 간절하고도 웅숭깊은 생각을 알려주며 글을 쓸 때면 한글로만 쓰자고도 했다. 뜻맞는 훌륭한 동료들을 만나 우리나라 최소의 학제간 학술지 「현상과인식」을 함께 펴낼 때, 왜인의 낯은 습관에 젖어 한자로 표제를 달고 나온 고루한 다른 잡지들과 동급 되기를 거부하여 한글 표제를 달아³⁾ 시중의 서점을 통하여 지식 사회 속으로 들어갔다. 이 모든 일이 우리나라의 학문 역사에서 처음이었으니 실로 낯설고 어색하게 받아들여졌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식 사회의 언어 반민증성과 반민주성은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너무도 견고한 것이어서, 일제 강탈 시대에 배워 익힌 왜인의 관행을 그대로 본떠 국한문 혼용을 당연하게 여기며 은밀한 가운데 왜인 추종 세력이 되어 이를 타파-분쇄할 의지는 고사하고 이의 답습과 모방 욕구에 쫓겨 한글을 제호로 달고 나오는 작은 시도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글로만 쓴 글은 ‘학술 논문 같지 않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이 뒤틀린 왜색풍의 특권 의식이 여태 지식 사회를 주도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학술지는 이따위 세평에 흔들리지 않았다. 차라리 이를 가소롭고 천하게 여겼다. 우리는 왜정 시대의 교육이 남긴 찌꺼기를 씻어내지 못한 지식 관행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 전사였다. 국한문 혼용에 외래어 쓰기를 예사롭다 못해 돌보인다고 여기는 이른바 주류 지식계의 식민 근성 그 굴레에서 벗어나 겨레를 향한 학문 활동이라면 모름지기 ‘한글로 적어야 한다’는 우리의 학문 정신을 내세우기 위하여, 우리 학술지에 글을 싣고자 하는 이들은 어떤 압력을 받고 내심 고심하고 긴장하도록 몰아갔다. 그렇게 우리 학술지는 타성에 빠진 지식 사회 그 의식 세계의 틀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저런 이유를 내걸고는 잡지들마다 한글로 제호를 바꾸기 시작했다. 어떤 사회 변동이었다.

한글 쓰기의 정신을 귀히 여기고 외솔의 생각도 귀히 여긴다는 소문이 났던 모양이다.

3) 여기에 이른 이야기는 이것보다 조금은 더 길지만, 나는 용재상을 받을 때도 외솔상을 받을 때도 이 일을 전하고자 했다. 제호와 이어지는 내 쪽의 생각을 적은 글(박 영신, 2003: 158-172, 특히 166-169) 볼 것.

1993년에는 공개 발표의 청을 받아 외솔 최 현배를 한글학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상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논지를 내세웠고, 곧이어 외솔 가신 100돌을 맞아 「현상과인식」의 이름으로 그를 기리는 학술모임을 열고 그때 발표된 글을 모아 1994년 가을호(18권 3호)의 특집으로 엮어 내기도 했다. 이러한 길 걸음으로, 오래전에 「조선 민족 갱생의 도」를 분석하며 논한 홍 이섭(1971)의 글 이후 어쩌면 내가 사상가로서의 외솔의 모습을 누구보다 더 힘주어 끈질기게 그리고자 했을지도 모른다(<외솔 이르는 글>에 들어 있는 나의 글들).⁴⁾

3. 비판 학문의 길: 아래로부터

외솔은 1894년 울산에서 나서 어린 나이에 서당에 들어가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의 선각자들처럼 그도 한문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일찍 깨달았다. 그는 서당에서 나와 고향에 세워진 신식 학교에 들어갔다. 1955년 「사상계」에 발표한 “나의 걸어온 학문의 길”이라는 이름의 글은 짧은 자서전이다. 여기서 그는 한자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선생의 소리를 따라 되풀이하고 되풀이하여 외는 서당의 ‘구식 교육 방법’에는 “창의력, 독립성, 자주성”을 살리지 않았다고 어릴 적의 체험을 자세히 적고 있다(최 현배, 1955/2019: 97-99). 신식 학교에서 세 해 동안 공부한 다음, 그는 온 나라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한성고등학교에 들어갔다. 그의 제자 김 석득(1994/1999: 21)은 서당 교육에 대한 외솔의 생각과 대응을 “비판 의식”이라고 정의한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질러 깨치는 “타고난 본성”이 ‘비판 의식’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 의식에 이끌려 구식 교육을 그만두고 신식 교육을 찾았고 고향을 떠나 한성에 있는 학교로 옮겼다. 역사는 순조롭지 않았다. 이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일본이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빼앗아버린 실로 어이없는 굴욕을 겪게 되었다. 일본과 합방된 이후 모든 것은 뒤죽박죽이었다. 왜인이 교장이 되고 학교 이름까지 바뀌어 학교 공부 자체가 마땅찮고 마음 차지 않았다. 조선어는 더 이상 ‘국어’가 아니었다. 그는 고향 선배인 김 두봉을 따라 일요일마다 조선어 강습원에 가서 주 시경이 가르치는 조선어를 배웠다.

만남은 삶을 일으키는 힘이다. 외솔은 주 시경을 만나 ‘자기 삶’의 참모습을 찾아 이를 빚어낼 수 있었다. 그가 만난 주 시경은 좁은 뜻에서 조선어 선생이 아니었다. ‘가·가·가·겨’만을 가르치지 않고 나라 말글에 담긴 겨레 얼을 일러주었다. 큰 스승이었다. 외솔은 이 선생에게 배웠다. “한글만 배웠을 뿐 아니라 우리말 우리 글에 대한 사랑과 그 연구의 취미를 길렀으며 겨레 정신에 깊은 자각을” 얻었고, “일생의 근본 방향”도 정하였다(최 현배, 뒷글: 99). 그는 건성으로 스승을 대하지 않았고 스승의 삶과 가르침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제든지 용사가 전장에 다다른 것과 같은 태도로써, 참되게, 정성스럽게, 뜨겁게, 두 눈을 부릅뜨고 학생을 응시하면서, 거품을 날리면서 강설”하는 스승의 가르침에서 뜨거운 “겨레의 혼”을 만났고 설새 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가르치는 스승의 삶에서 넘치는 “나라의 생각”을 만났다(최 현배, 1953/2019: 62). 스승이 드러내어 실행한 ‘겨레 정신’에서 얻은 깨달음으로 생각을 다듬어 밝히고 삶을 헤아려 엮어가고자 했다. 어린 나이에 구식 공부를 마다하고 신식 공부 길에

4) 외솔의 삶과 학문을 일러주는 짧고 긴 여러 글이 있다. 그 가운데 허 웅(1993), 김 석득(1994; 2000; 2005), 남 기심(1982), 「나라사랑」(2010)에 실린 성 낙수(2010)를 비롯한 여러 글, 그리고 「나라사랑」에 실린 여러 자료 볼 것.

들어서고자 한 그의 ‘비판 의식’이, 주 시경을⁵⁾ 만나면서 이렇게 구체스럽게 절여졌다.

책보를 끼고 이곳저곳 여러 학교를 찾아가 가르쳤다고 해서 ‘주 보파리’라고 불리기도 한 스승 주 시경 또한 낡은 공부 틀에서 헤어 나와 새로운 배움의 터를 찾아 나섰던 선각자였다. 19세기 끝자락, 그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아들고 있음을 알아차리고는 고향 황해도 봉산의 서당 공부를 그만두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식 교육의 문을 연 배재학당에 들어가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자 했다. 이 학교의 학생이었을 때였다. 학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서 재필 선생을 만났다.⁶⁾ 뜻하지 않은 ‘만남’이었다. 서 재필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 신문 〈독립신문〉(1896-1899)을 펴낼 때 주 시경을 불러 교정을 맡아 보도록 했다. 신문 일을 하면서, 국문에 대한 마음도 두터워졌고 국문 연구에 대한 뜻도 뜨거워졌다.

서 재필이 오랜 망명 생활에서 돌아올 때는 지난날 갑신정변의 개혁 방식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친 다음이었다. 세상의 물정에 어두운 일반 백성을 그대로 둔 채 총과 칼로 조정을 점거하여 나라를 바꾸겠다고 한 지난날의 기획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했는지를 먼 망명지 아메리카에 머물면서 깊이 새김질하며 깨우쳤다. 그는 아메리카의 독립을 선언한 유서 깊은 필라델피아 가까이에서 학교도 다니고 그 나라의 수도 워싱턴에서도 공부하고 일해본 망명객으로, 그 나라의 민주주의와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몸소 보고 겪어보았다. 무릇 개혁이란 물정에 밝은 시민의 참여를 통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인민이 깨우쳐 시민다워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조선은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뜻도 세웠다. 이 때문에 그는 갑신 개혁의 거사에 함께했던 지난날의 동지들이 갑오경장의 개혁 정부안에 들어가 관직의 자리에서 법령과 행정 명령으로 나라를 바꾸겠다는 ‘위로부터’의 변혁 시도에 뜻을 같이할 수 없었다. 그는 인민 모두가 널리 세상 물정에 밝도록 눈 뜨게 하고 마음 열게 해야 한다는 ‘아래로부터’의 변혁을 일으키고자 했다. 신문을 펴내고자 한 뜻도 이에서 비롯하였다. 인민이 인민답도록, 오늘날의 말로 시민이 시민답도록 가르치고 일깨워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뜻에서 그는 인민 모두가 쉽게 읽을 수 있게 순 국문으로 신문을 박아내었다. 한문이 아니었고 국한문 혼용도 아니었다. 이따위 문제로 고민하지도 않았고 망설이지도 않았다(박 영신, 1978 ㄱ; 1996 ㄱ; 2020; 2022: 116-122).

국문 쓰기는 기득권에 맞서는 비판이었고 조선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이었다. 조선에는 엄연히 우리의 말글이 있었다. 세종 때에 만든 훈민정음이 있었으나 중화주의의 틀에 갇힌 지배 기득권 세력(조 성운, 1994) 의하여 업신여김을 당하였고 짓밟힘 당하였다. 서 재필은 하찮다고 하여 ‘언문’이라 하고 ‘암글’이라고 부른 국문을 문자 소통의 수단으로 삼았다. 그는 〈독립신문〉 창간호 ‘논설’에서 “상하귀천을 달리 대접 아니 하고 조선 사람으로만 알고 조선만 위하며 공평이 인민에게 말할 터”라고 선언했다. 이어 남녀 사회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읽을 수 있게 “다만 국문으로만” 쓰고 “떼여” 쓰겠다고 했다. 이 창간사에 담은 생각을 어떻게 켜느냐에 따라 2분의 1, 또는 5분의 4을 국문 쓰기의 정신을 알리고자 하는 데 바쳤다고 할 수 있다(박 영신, 2020; 2022: 39-40). 기득권 지배층의 소통 수단인 한문에 맞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소통 수단인 국문을 쓰겠다는 뜻은 조선의 사회 질서 그 정당성에 대한 도전이었다(박 영신, 1978 ㄱ). 이 점에서 그의 개화 개혁 사상은 동도서기나 부국강병의 수준에 묶인 ‘수단의

5) 주 시경의 국문 연구, 가로쓰기 생각, 겨레 운동,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충실히 이어받아 충실히 펼치고자 한 ‘주 시경 학파’에 대하여 여러 자료를 살펴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는 이 준식의 글(2022: 131-158) 볼 것.

6) 그가 남긴 글들을 가려 모아 엮어둔 자료집(2010)과 함께, 이 광린의 글(1978) 볼 것.

근대'에서 벗어나 삶과 힘의 짜임새를 밑뿌리에서 바꿔야 한다는 '가치의 근대'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박 영신, 2016). 서 재필은 인민이 깨어나 지배 체제의 근본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아래로부터'의 혁파를 주창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앞서 몇몇 글에서 논하였기에 여기에 다시 길게 적지 않는다.

한 가지 특기할 일은 있다. 개신교가 한글 쓰기에 이바지한 공로이다. 개신교 교인이라면 교회 상층부에서 내리는 명령과 지침을 권위의 출처로 삼지 않고 성경에서 신앙의 원리와 지침을 찾아야 한다면, '오직 성경'에 권위를 두었던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라 선교지에 온 선교사들은 우선 성경을 국문으로 옮겨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 루터가 고전어로 된 성경을 도이치 토박이 말글로 옮겨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한 그 전통에 따라 개신교 선교사들은 성경을 국문으로 옮겼다.⁷⁾ 이 개신교가 한문을 숭상하는 소수 상층부 안에 머물지 않고 기득권 세력의 중심부에서 떨어진 변두리 인민으로 번져나갔던 만큼 국문으로 옮겨진 성경을 읽는 인구 또한 개신교의 성장과 함께 늘어나고 있었다. <독립신문>이 국문으로 펴 나올 즈음 조선에는 개신교가 성장하고 있을 때라(Park, 2003: 13 아래) 서 재필은 이러한 국문 해독 인구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관리의 전횡에 휘둘러 짓눌려 사는 무기력한 백성을 깨우쳐 정당히 주장하며 살 수 있는 당당한 백성을 만들고자 한 이 신문의 지향성은, 국문을 읽을 수 있는 개신교 교도들의 가치 지향성과 어울리었다(박 영신, 2020; 2022).⁸⁾

주 시경은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배재학당의 학생이 되어 서 재필을 만나 그의 생각과 가르침을 이어받아 그와 함께 일하면서 변혁 개화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고, 이 신문이 문을 닫은 다음 국어를 연구하며 국어 강습 운동을 벌이면서 세차게 '겨레 혼'을 불어내었는데, 이는 그가 함께한 변혁 운동의 신념과 열성의 다른 표현이었을 것이다.

비판은 현존 질서에 대한 도전 행위이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의 좋고 나쁨을 살피고 옳고 그름을 들어 따진다. 어떤 현실도 이상과 일치하지 않기에 현존하는 질서는 언제나 비판의 도마에 올려야 할 새김질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성찰하는 지성의 사람은 비판 행위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현존 질서에 부단히 불화하여 이에 묵묵히 순응하지 않고 도전한다. 외솔이 주 시경을 만나 그의 발자취를 따라 한글을 위해 온 삶을 바쳤다면 한글은 단순한 '조선어'일 수 없었다. 한글은 겨레 모두를 위한 나라 세우기의 뜻과 떨 수 없는 혼이 담긴 글자였다. 탈취당한 나라의 글을 붙잡고 이를 부동켜안고 갈고 닦으며 지키고자 한 그의 열정과 헌신은 한 핏줄을 타고난 겨레 공동체의 체제이든 핏줄을 달리하는 왜인의 식민 체제이든 그 모두의 지배 기득권 세력에 대한 줄기찬 비판 정신의 표현이었고 학문 활동이었다.

어릴 적부터 외솔이 지니고 있던 '비판 의식'은 이렇게 주 시경을 만나면서부터 일정한 형체를 가지게 되고 실재화하였다. 그의 의식은 주 시경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중화사상에서 떨어져 나와 자주독립하고 신분 차별을 허물어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국문을 소통 문자로 삼아 신문을 펴낸 서 재필로 이어진다. 곧 조선의 자주성을 내세움과 동시에 조선의 신분 의식에 맞서는 평등 의식으로 펼쳐졌다. 외솔은 이 의식으로 모두가 한글을 쓰자며 한글을 깨우치는

7) 기독교의 역사와 한글의 보급 역사, 그리고 한글 연구와 떨 수 없게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는 글은 곳곳에 흩어져 있다. Paik(백 낙준)(1970[1929]: 148-151), 최 현배(1938; 1961; 1965), 대한성서공회(1993), 박 영신(1996-); 2022: 특히 104 아래), 나 채운(2010) 볼 것.

8) 이는 한글의 이후 역사에도 이어진다. 외솔의 말로 하면, 이 기독교가 '한글의 보급에 위대한 공적'을 남았다(최 현배, 1938/2019: 375; 그리고 1961, 1965).

일을 펼치었다.

일본의 패망과 함께 나라를 되찾았다. 자유와 민주의 새로운 가치를 누리게 된 시대였다. 일제에 맞서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도 다시 문을 열고 한글 성경도 자유롭게 읽게 되었다. 쓰지 못하도록 금했던 겨레의 말글을 다시 찾아 모두가 쓸 수 있게 되었다. 왜인의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붙잡혀 감옥을 살던 겨레의 사람들도 풀려났다. 함흥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외솔도 해방과 함께 풀려나 서울로 왔다. 해방과 광복의 집합 흥분과 열광의 시대 상황에서, 말글 지킴이로 겨레를 대신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온 조선어학회와 외솔이 말글 펼침의 지도자로 올라섰다(이 준식, 2009: 68-69). 해방된 그해 10-11월에 실행한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있다. 신뢰도와는 상관없이 그때의 여론 한 자락을 보여주는 이 조사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여 운형(33%), 김 구(18%), 박 현영(16%), 이 관술(12%), 이 승만(9%), 김 일성(9%)에 이어 외솔(7%)의 이름이 들어갔고, ‘최고의 혁명가’에도 이들과 함께 외솔도 들어 있었다(이 정식, 2017: 226-227; 박 영신, 2019: 48). 나라 말글을 쓸 수 없게 목 졸려 살던 왜인의 폭정에 온 겨레가 시달렸고, 겨레의 말글을 지키고자 하여 자신의 목숨을 던진 외솔이 존경스러운 ‘지도자’이고 ‘혁명가’이었다는 뜻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외솔을 겨레의 영웅으로 받들어 우러러볼 줄 아는 생각 깊은 나라 사람들이 많았던 셈이다.

외솔은 이에 화답했다. 모든 교과서를 순 우리 말글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 일을 맡아 일했다.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맡을 수는 없었다. 그가 걸어온 삶의 발자취와 그가 갈고닦은 한글 연구 앞에 판전을 부릴 수는 없었다. 적어도 해방의 열기가 가시지 않았을 때까지는, 그리하여 친일 성향의 의식을 떨쳐내지 못한 기득권 세력이 반동의 거사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그러하였다. 이 시기에 외솔은 한글 펼침과 아울러 한글에 담긴 겨레의 얼을 일러주었다. 중화주의에 묶여 중국의 한자를 빌려 생각을 적어야 했던 ‘소중화’ 나라에서 국문으로 생각을 나누게 된 자주와 독립의 정신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 말글을 널리 쓰자는 운동이 일제의 탄압을 받고 꺾이게 된 모진 수난의 역사를 또 기억하게 했다.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 겨레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하며 깊이깊이 되새기게 했다(최 현배, 1963/2019).

한글과 겨레의 얼을 이어볼 수밖에 없는 역사성 때문에, 외솔은 한글을 말할 때면 겨레를 이야기해야 했고 겨레를 말할 때면 한글을 이야기해야 했다. 조선에서의 한글은 억눌린 겨레가 한자 기득권 세력에 맞서고자 함이었고, 왜정 때의 한글은 피압박 겨레가 기득권 식민 세력에 맞서고자 함이었으며, 해방된 다음의 한글은 낡은 틀에 얽매인 현상 유지의 기득권 세력에 맞서고자 함이었다. 외솔은 이러한 ‘맞섬’의 뜻을 담은 비판 학문의 실행자였다.

4. 비판 학문의 길: 안으로부터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사랑과 이를 갈고 닦아 가르치고 가르치고자 한 그의 성의와 헌신, 그리고 겨레 정신에 대한 자각은 한두 마디로 다 말할 수 없는 깊은 뜻을 지닌다. 무엇보다, 외솔이 온 삶을 바친 한글 연구와 한글 운동은 우리 말글에 대한 ‘사랑’이다. 세종 때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음에도 ‘어린 백성’의 글자로 소통 문화의 중심을 이루지 못하고 언제나 변두리로 밀려나 있었다. 앞에 적었듯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나 쓰는 ‘언문’이고 부녀자들이나 쉽게 배워 쓰는 ‘암글’이었다. 신분이 높은 자들은 어려운 한문 공부에 매달려 중국 문헌을 암송하고 모방하여 작문하여 이 공부로 과거 시험을 치러 지배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기에 한자

는 어찌할 수 없는 지배층의 소통 수단이었다. 이러한 소통 문화의 이중성과 그 계층화는(박영신, 2022) 조선왕조의 신분 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고착시켰다. 내가 자주 하는 말로, 조선 사회를 개혁하고자 한 실학 사상가들도 자기 생각을 훈민정음으로 적어 널리 백성과 나눌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문으로 글을 써 지배 지식 집단 사이에서 나누어 읽었을 따름이었다.

일본과의 합방은 조선 인민을 혼란 상태에 빠뜨렸고 땅을 치며 통곡하게 했다. 뜻 있는 사람은 나라와 겨레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자신을 향하여 깊은 물음을 던져야 했다. 어떤 이는 나라 밖으로 나가 군사를 일으키고자 했고 외교의 통로를 찾고자 했다. 또 어떤 이는 나라 안에서 원통한 조선 사람을 위로하고 앞날을 위해 이들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약삭빠른 자들은 우선 살고 봐야 한다며 합방을 기회로 삼아 식민 체제에 날렵하게 맞춰갈 잔꾀 부리기에 바빴다. 하지만 열여섯 살 소년 외솔은 이들처럼 천하지 않았고 가볍고 얕지 않았다. 그는 비통함과 원통함 그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과 씨름했다. 훗날 그때를 돌아보며 외솔은 “살기는 무엇을 위하여 살며, 공부는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하며 고뇌했다고 한다(최현배, 1971: 3). 삶에 대한 근본의 물음이었다. 재능 넘치는 시대의 수재였으니 마음먹기에 따라 승승장구하며 입신출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천박한 조선의 청년이 아니었다. 주 시경에게서 ‘겨레 정신’을 깨우쳤고 걸어야 할 삶의 길을 찾아 그 길을 걸었다(최현배, 1955/2019(1): 99). 나라를 잃은 부끄러움과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한글을 ‘목숨’이라 여기며 이를 갈고 닦아 지킨 ‘한글의 사람’으로 살았다. “겨레의 생존 번영을 위한 연구”의 삶이었다(최현배, 1965/2019(1): 136).

한글은 그가 던진 삶의 물음에 대한 방향을 제공해주었다. 하지만 삶 자체에 대한 물음을 더 파고 들어가 새겨보고 싶었다. 앞서 일본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에서 네 해 동안 공부한 적은 있지만 그것으로는 직성이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삶의 근본 원리에 대한 논구 관심에 이끌리었다. 또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번에는 교토대학 문학부 철학과에 들어가 교육학을 전공하며 자신을 오랫동안 자신을 사로잡았던 ‘삶에 대한 물음’에 다가서고자 했다. 그가 택한 이 교육학은 오늘날의 ‘전문화’된 비좁은 교육학이 아니었다. 삶을 삶답게 바꿔놓고자 하는 ‘교육학문’이었다. 이 관심에서 페스탈로치의 사상을 파고들었다.⁹⁾

페스탈로치는 삶을 복돋우어 세우는 일은 만인의 권리라고 보았고,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다 같은 사람”이기에 사람이 지닌 삶의 힘을 높이 끌어올리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였다(최현배, 1962ㄱ: 183-184). 이러한 인간관에서 그는 신분과 계급으로 체제화된 사회의 정당성 논리에 반하는 평등 의식을 내세워 소수 특권층의 교육에 무게를 두기보다 가난한 사람 평민층 모두 제가꿈 같고 닦아 자신의 가능성을 한껏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풀어내었다. 외솔은 이를 눈여겨보았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지마는, 사람도 또한 환경을 만든다”고 한 페스탈로치의 말을 그대로 따와, 외솔은 “아낙에 있는 도덕력”에 따라 ‘도덕 존재’가 되어 충동의 규율 ‘없음’에서도 벗어나고 억지로 시키는 ‘바깥’ 규율에서도 벗어나 자기다움을 지킬 수 있다고 풀이했다. 한 마디로, 외솔은 “사람의 속마음(內心) 그것을 깨우치고 북치어(鼓舞하여)” 가난한 자도 바깥 조건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다(윗글: 194, 196). 그러므로 개인이 사회에서 좋은 영향을 받도록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은 “깊은, 넓은 교육학”인 동시에 “더 높은 ‘정치학’의 영역”이기도 하였다(윗글: 221).¹⁰⁾

9) 페스탈로치에 대한 외솔의 글은 두 편이 있는데, 하나는 연희학원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다음 해에 나온 짧은 소개 글(최현배, 1927ㄱ)이고, 다른 하나는 은퇴한 다음 다듬어나온 글(최현배, 1962ㄱ)이다.

외솔이 그의 교육 사상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삶’의 뜻을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 잇대어 논구한 글이 「조선 민족 갱생의 도」이다. 왜인의 지배를 받으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겨레를 향하여 그는 이 상황에 굴하지 말고 함께 뚫고 나아가자고 했다. 터무니없게 들리는 한가한 탁상의 공론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더욱이나 조선 민족이 질병에 걸렸다고 하니 이는 겨레에 대한 무감각한 타박이고 무례한 공박이었다. 실제로 그러한 비난을 받았다. 외솔이 책의 ‘머리말’에 적어두고 있듯이, 쟁쟁한 언론인—그는 일제 말에 이르러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전락하였다—서 춘이는 외솔의 글을 “푸닥거리”라고 평하며 ‘단순한 관념 유희’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최 현배, 1971: 8).

그러나 외솔의 생각은 현실이라는 삶의 바깥 조선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얼핏 그럴듯해 보이는 지식인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다. 현실을 등져서도 현실을 추종해서도 안 된다고 현실에 분노해야 한다고 했다. 저항하고 반항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런데 분노할 줄도 모르고 저항하고 반항할 줄을 모르는 시대이었다. 외솔은 무엇보다 삶의 생기를 떨쳐 일으켜야 한다고 했다. 외솔의 말로, “우리 겨레의 ‘살아나기’(更生)”를 이뤄야 했다(최 현배, 1971: 155-156). ‘살음’의 기운은 오래전부터 쇠하여 왔다. 왜인의 지배 밑에서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 조선 시대의 신분 사회에서 민중은 소수 기득권 세력에 의해 짓눌림 당하여 생기를 잃고 쇠약해 있었다. 오랜 세월 병치레로 쇠해진 마당에 왜인의 강탈 밑에 들면서 겨레의 병약함은 더욱 심각해졌다. 하지만 외솔은 이 병이 고칠 수 없는 ‘선천적 병’이 아니라고 보았다. 겨레의 유전 인자 때문도 아니고 혼한 말로 민족성이라는 피 때문도 아니었다. 역사의 조건 밑에서 ‘살음’의 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탓이었다. 생생한 기운을 되찾기만 하면 치유할 수 있는 병이었다(윳글: 1-3장).

이러한 진단과 치유책은 이른바 ‘식자 지도자’들이 떠벌려온 혼한 주장에 대한 격한 반론이었다. 문제의 핵심이 살음의 살림에 있음에도 “경제 생활조차 요 모양”인데 어떻게 “조선 민족이 다시 살아날 여망”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피폐한 경제 형편을 탓하면서, 그들은 “그저 돈이 제일”이라는 결론을 내주기까지 했다(윳글: 105-106). 외솔은 이러한 생각에 발맞추지 않았다. 사람이란 조건을 어찌할 수 없는 조건 지어진 존재이기는 하나, 그 조건 앞에 무릎 꿇고 조건의 요구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타율의 삶을 거부할 수 있는 아낙의 생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외솔은 삶 자체를 조건에 내맡기고는 조건에 머리 숙여 엎드리는 비굴한 조건 순응의 삶을 문제시하여 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삶의 목적과 기운을 되찾고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모든 것을 유심과 유물의 단순 대립 구도로 단순화하여 어느 하나를 붙들고 다른 하나는 저버리는 논법이 아니다. 사람이란 ‘물질만으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정신만 가지고도 살 수가 없다’는 엄연한 진실을 미루어 볼 때 외솔이 말하는 ‘살음’의 문제는 이 둘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역동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논리를 전제한 다음, 그는 삶을 다스리며 이끌어가는 힘은 ‘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물질은 정신의 삶을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 왜인의 강탈 체제 밑에서 겪어야 하는 궁핍한 경제 상황을 부정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절실한 ‘입과 옷과 집’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생기’가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는다고 했다. 물질의 상황을 뚫고 나아갈 힘은 물질에 있지 않고 물질에서 나오지 않기

10) 외솔의 교육학과 교육 사상은 사회 사상과 겹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논의는 앞서 여러 글에서 논의되었기에(김 정한, 1973; 김 인희, 1994; 김 화수, 2008; 노 치준, 1994; 박 영신, 1993/1994; 1994; 2002, 1부; 2010-; 2014), 여기서는 필요한 만큼만 따와 적는다.

때문이다. 이는 살음을 살아야 할 주체의 정신에서 나오고 겨레의 정신에서 나온다고 했다. 외솔은 그때의 지식 상황에 밝을 뿐만 아니라 맑스에 대한 이해의 깊이도 만만찮았다. 그의 맑스 풀이는 오늘날의 지식 상황에 전주어봐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치밀한 논리에 터하고 있었다. 맑스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지 않고서는 시도할 수 없는, 실로 날카롭고 매섭게 그의 이론을 해부하는 품이 돋보이고 놀랍다. 역사의 변동을 하부 구조에 의해 상부 구조가 결정되는 과정으로 단순하게 규격화시키는 속류 맑스주의/유물론과 달리 “역사를 창조하는 인간 정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진정한’ 맑스주의/유물사관의 논리를 정당히 평가하기도 하였다(윗글: 168). 외솔의 말로 옮겨, ‘살음’에는 유물이나 유심으로 갈라 말할 수 없게 이 둘이 맞물려 있고 역사는 그러한 원동력에 힘입어 움직인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맑스주의 유물론이 “궁극의” 결정 요소는 경제라고 한 부분에 이르러 외솔은 자신의 논지를 분명히 하였다. 그는 물질 조건을 돌파하여 이 조건을 바꾸고 다스리는 힘의 원천은 정신이라고 하였다. ‘생기’ 또는 ‘살음’은 물질 의존이지 않고 경제 예측이지 않다는 뜻이다. <공산당선언>에서 ‘세계의 무산자는 단결하라!’고 외치는 소리도 물질 조건을 “극복하려는” ‘큰 생기’의 발로라는 풀이였다(윗글: 163-165). 그는 이 “정신의 갱신—생기의 진작”이 겨레 ‘갱생의 근본 원리’라고 보았다(윗글: 167, 171).

페스탈로치를 연구하고 “배달의 페스탈로치가” 되고자 한 외솔은, 겨레가 겪는 ‘가난’ 그 자체보다 가난으로 생기를 잃고 삶의 품위를 잃게 된 겨레의 비참한 모습에 가슴 아파했다. 마음속 생기가 밖으로 펼쳐 나와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이러한 인식에 터하고 있었다. 바꿔 말해, 그는 삶을 다스리며 나아갈 길을 정해주는 “궁극의” 요소는 정신이라고 생각했다.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으뜸가는 삶의 뜻이 ‘입과 옷과 집’에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돌봄과 보살핌에 있다고 보는지에 따라, 곧 삶의 뜻매김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삶을 결정하는 요인을 밝히 캐기란 어렵다. 그만큼 삶의 과정은 복잡하다. 하지만 삶을 어떻게 보고 뜻을 매기느냐에 따라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 것이다. 세상을 이해하는 자신의 세계상에 따라 향락에 빠져 살기도 하고 절제 있게 살기도 하며, 자기 본위의 이기주의자로 살기도 하고 남을 살피고 헤아리는 이타주의자로 살기도 한다.¹¹⁾ 막스 베버의 생각에 기대어 풀이해 보면, 삶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물질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다. 이념과 물질의 ‘이해관계’가 얹히고설켜어 결정된다. 그러나 ‘이념’이 만들어준 ‘세계상’, 넓게 말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의미 지향성에 따라 이런저런 이해관계를 뚫고 나아가 삶과 행위의 방향이 전해진다. ‘이념’이 기관차의 궤도를 결정해준다는 베버의 유명한 ‘전철수 비유’에 들어있는 생각이다(Weber, 1946: 280). 외솔은 마음속의 생기를 살려야만 바깥 조건을 뚫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 살음의 생기를 살리지 않고서는 바깥 조건에 분노하지도 항거하지도 못하며 삶의 조건 자체를 바꾸지도 못한다고 풀이한다. 다른 말로, 안에서 솟구쳐야 할 이 생기를 살려 세상을 바꾸어야 하고 바꿀 수 있다고 한다.

해방된 나라에서도 이러한 생기를 살려야 했다. 바깥 힘을 받아 나라를 되찾기는 했지만, 그리하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우리의 손에 떨어져 오기는 하였건마는, 그실, 우리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행사할 만한 준비가 익지 못하였다”(최현배, 1958: 408). 이 ‘준비’란 무엇인가? 왕조 신분 시대를 떠받쳐온 복종의 도덕에서 벗어나

11)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는 세상을 향하여, 삶에 대하여 어떤 물음을 던지느냐 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서로 통한다. 이 물음은 세계관의 다른 이름이고 세계상의 첫걸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삶의 물음’을 논하고 있는 나의 글(2013) 볼 것.

고 왜인의 식민지 시대에 강요된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자유 민주의 새 시대를 떠받치고 이끌어가야 할 새 도덕은 아직 터 잡지 못하였다. 외솔은 이 일을 눈여겨보고자 했다. 앞서 펴낸 「민주주의와 국민 도덕」(1953)도 이러한 현실 인식에 대한 풀이의 시도였다.

겨레의 생기를 되살려야 한다고 한 왜정 때의 생각 뼈대는 새 나라를 세울 때도 그대로이었다. ‘살음’의 물질 조건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물질 조건은 자기 인격을 거들어주어야 할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사람은, 개돼지와는 달라서, 물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살음은 사람으로 사는 일, 사람답게 사는 일이다. 물질적 이익과 동시에 정신적 가치를 향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자연적 생물인 동시에, 또 도덕적 존재이다”(최 현배, 1958: 428). 이 도덕은 인격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갖추어 ‘남과의 협동’을 실행하며 사는 삶이고(윳글, 1971: 192), 왜정 때 적어둔 그 생각과 같이 해방된 다음에도 “제 몸만 사랑하지 않고, 남도 사랑할 줄 알며, 제 몸의 이익만 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돌아보는 데에 진정한 사람의 살음이 있는 것”이라고(윳글, 1958: 428) 도덕 인간다움을 일러준 다음, 그가 생각하는 교육의 뜻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이웃 사람을 사랑할 줄을 배우는 것, 남을 섬기기를 배우는 것이 곧 교육이다. 그 런즉, 교육이란 것은 “사람만들기”일 것이다. [...]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라야 능히 사람이지. 다시 말하면, 외형만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라야만 정말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한말로 하자면 “양심”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 것이다(윳글: 같은 곳).

속 깊이 옳다고 하는 믿는 바를 행하는 양심의 사람, 제 한 몸만 생각하는 ‘이기심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남을 섬기는” 사랑의 사람을 키워 만드는 일이 교육이다. 이 일이야말로 자기 이익을 얻고자 하여 임신출세와 영달이라는 ‘그릇된’ 교육관에 맞서는 ‘참’ 교육이며, 그러기에 이 일은 “귀중하고 거룩”하다(윳글: 429). ‘아낙’의 살음을 바꾸어 살음을 해살놓는 ‘바깥’에 맞 설 수 있는 참 살음을 부추기고 만드는 일, 외솔은 이러한 삶을 헤아리며 이를 일구고자 온 힘 쏟았다.

배달의 페스탈로치가 되고자 한 소명 의식에 맞추어 외솔은 이러한 ‘사람만들기’의 교육을 통하여 새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몸 바치고자 했다. 외솔이 해방된 나라의 초등 및 중등 교과서를 펴내는 일을 맡고 있을 때 조선어학회를 통하여 ‘국어’ 교과서와 함께 ‘공민’ 교과서를 만들도록 한 것도(이 준식, 윳글: 같은 곳) ‘공공’ 영역에 대한 그의 생각을 불어넣고자 한 데서 비롯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난 시대의 ‘묵은’ 도덕 가치를 민주주의 시대가 요구하는 ‘새’ 도덕 가치로 바꿔놓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최 현배, 1953; 1958).

5. 우리의 지식 사회

외솔은 누구도 따라잡지 못한 학문 업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말본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신촌의 아늑한 숲속에 자리 잡은 대학의 상아탑에 파묻혀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았고 금화산 고갯길을 넘어 집으로 오가는 길에서도 연구의 완결을 위하여 곁길로 들어서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상아탑에 갇힌 강단 학자의 전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그에 견줄만한 그 시대의

학자가 있었다면 같은 나이에 태어나 같은 때 연희학원의 교수가 된 백 남운일 것이다. 그는 도쿄상과대학을 졸업한 다음 식민 당국이 굳히고자 한 조선의 정체론에 맞서 자본주의가 싹트고 있었다는 논지를 내세웠다. 그 또한 바깥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신촌의 상아탑에 들어가 자신의 연구 주제에 전념했고, 맑스주의 유물사관의 틀로 우리 역사를 파헤친 「조선사회경제사」(1933)와 「조선봉건사회경제사 상」(1937)과 같은 지우지 못할 값진 업적을 남겼다(백 남운, 1993; 이준식, 1990; 하 일식, 1993). 외솔 최 현배와 백 남운 이 두 학자는 각각의 연구 관심 영역에서 오로지 자기 학문에 전념하여 이를 소명으로 받아들인 학문의 사람이다. 이들의 학문은 현실 체제에 들러붙어 부드럽게 순응하며 아첨하는 혼 잃은 저 조무래기들의 무미건조한 공부 지향성과는 달리, 체제의 논리를 문제시하고 그 테두리를 넘어서고자 하였다. 이들은 제각기 학문의 밭을 일구어 익은 곡식을 거둬들인 비판 학문의 선구자가 되었다.

강대한 조선 총독부의 지시를 받아 식민 이념을 정당화하고 이를 집행하는 여러 기관의 하수인 노릇을 마다하지 않은 비열한 지식인 군상이 활개 치고 그들을 부러워하며 무작정 뒤따른 유약한 예비지식인 군상이 제조-생산되는 마당에, 비판 학문의 사람은 험한 삶을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눈앞의 이익에 빠져 학문의 영혼을 팔지 않았고, 체제의 유혹에 넘어가 거레의 얼을 내던지지 않았다. 왜인의 식민 통치와 운용에 거치적거리는 방해인 명부에 올라가 체포되어 감옥도 살았다. 백 남운은 1938년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문제 삼은 ‘연구회 사건’으로 수난을 겪었다. 위에 적었듯이, 외솔 또한 주요 교수들과 함께 1938년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내몰림을 당하고 투옥되었는데, 뒤이어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해야만 했다.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 이야기이다. 체제 추종 세력이 들어서는 길은 넓고 평탄하나 비판 학문의 사람이 들어서는 길은 좁고 험난하다. 체제에 날렵히 적응하여 매끄럽게 살겠다는 저급한 의식의 틀 그 너머 더욱 높은 뜻에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 의식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고서는 걸을 수 없는 길이다. 그리하여 이 비판 학문의 길은 소수자의 길이다. 이들 비판 학문의 사람은 자신이 들어선 체제 대항의 공부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흔히 비판 학문은 좌파의 이념에 잇대어 풀이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외솔은 통레의 좌파와 무관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비판 학문 지향성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못한다. 오히려 외솔의 학문은 깊은 수준에서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충만한 비판 지향성을 뽐낸다. 외솔이 밝히고 있는 대로, 그는 유물론의 눈으로 역사를 보고 풀이하며 그 풀이에 터하여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생각보다 더욱 근본이 되는 ‘삶’의 문제를 논의의 마당으로 끌어 올려 ‘삶’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꾸는 일이야말로 가장 심원한 비판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 현존하는 사회 질서에 어떤 절대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그것과는 다른 사회 질서를 추구코자 하는 그의 변혁 의지는 다만 경제 이해의 관계를 혁파하여 대안 사회를 만들자는 기획에 고정하거나 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경제 관계는 물론, 근본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틀의 변혁을 추구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조선 시대의 사회 짜임새 아래에서는 거기에 어울리는 가족이나 친족 의식으로 살았지만, 민주 시대를 맞게 된 오늘날의 사회 짜임새에 들어서서는 거기에 어울리는 새로운 삶의 의식과 규범을 지니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학의 주요 논지와 만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르케임은 변화된 새 시대에는 지난 시대의 도덕과는 다른 새로운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하고는, 사람 모두가 담고 있는 ‘인간의 귀함’을 존중하는 새로운 인도주의를 내세웠던 논지에 이어진다(뒤르케임, 1979; 박 영신, 1978; Durkheim, 1973). 봉건 사회의

도덕성을 민주 시민 사회의 도덕성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러한 그의 도덕 관심은 학문을 통하여 뿔어나왔다. 외솔은 겨레와 나라에 대한 남다른 ‘사랑’의 마음을 학문으로 실행코자 하였다. 그러나 반론 집단이 형성되어 기세를 떨치기 시작했다. 이들은 학문이란 ‘과학자’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며 ‘사랑’의 감정을 떨쳐내지 못하고 이에 이끌리는 공부는 진정한 학문이 아니라 기껏 사리에 어두운 애국주의에 결박된, 그리하여 학문의 세계에서는 추방되고 극복되어야 할 편협한 태도라고 이를 깎아뭇개고자 하였다. 그리고는 합리성과 과학성의 권위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뽐내었다. 외솔은 이들의 학문 관심과 달랐다. 칠십 평생을 학문에 몸 바쳤지만 ‘학문을 위하여 학문하지 않았다’고 했다. ‘살음’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공부는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 하고 어릴 적에 던졌던 삶에 대한 물음과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위한 학문의 길을 걸었다. 그의 ‘한글 학문’도 이 삶의 물음과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다(최 현배, 1965/2019(1): 136). 한글 연구에 이끌린 그의 관심은 조선어를 한글 식민지 언어로 바라본 왜인의 연구 관심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가 지켜온 학문 정신은 ‘학문을 위한 학문’으로 조선어 연구에 임하는 왜인의 학문 자세와 동질일 수 없고 동격일 수 없었다. 그렇지 않은가. 황국신민을 만들겠다는 식민 정책에 따라 조선에 세워놓은 제국대학에 교수로 자리 잡은 왜인이, 한자는 물론이려니와 국한문 혼용도 그 만두고 인민 모두를 위해 우리의 글자 국문/한글로만 쓰자고 한 서 재필과 주 시경과 외솔이 표상한 주의와 주장을 지지하며 거기에 담긴 겨레의 정신을 이해하겠는가. 왜인 교수가 겨레 선각자들의 외침에 담긴 조선의 혼을 어찌 이해하겠으며, 인민 모두가 살아나 서로 존중하며 평등이 대하는 ‘모두’의 나라를 세우자는 겨레의 꿈을 어찌 받아들이겠는가. 식민 종주국의 왜인 교수는 조선의 겨레 혼을 들먹이기만 하면 이는 진정한 학자의 태도가 아니고 진정한 학문이 아니라며 ‘학문을 위한 학문’을 해야 한다고 거드름을 부리며 교단에서 소리쳤을 것이다. 왜인뿐이겠는가. 왜인에게서 한 조각 배웠다면서 왜인의 학문관을 내면화하여 겨레의 얼을 기어코 빼버리고는 자기들에게 익숙하고 편한 왜인의 용어를 그대로 본받아 쓰자고 고집부리는 자들이 뭐 그렇게 다를 것인가. 패전하여 왜인이 쫓겨난 다음에도 그들에게서 배운 충성된 ‘제자들’은 부일-친일 세력이 그러했듯이 잔파 부려 권세 부릴 자리에 날렵히 올라간 다음 지난날 왜인에게서 배워 익히게 된 왜인 식의 방식을 고수코자 하지 않겠는가.¹²⁾

비판 학문은 이를 문제시한다. 체제의 권력과 짝하는 지식 이해관계의 틀 안에서 언제나 체제의 상층부에 눈독을 들일 뿐 체제의 하층부는 복종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체제 지향의 기득권 세력을 오히려 천하고 야비한 노예근성의 담지자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들 하층부의 다수가 지닌 삶에 대한 열정은 뭇갈 것이 아니라, 되살려야 할 변혁의 힘이며, 현존하는 뒤틀린 세

12) 실제로 그들은 한글만 쓰기를 반대하여, 해방된 다음 우리 세대가 배운 주 시경스런 ‘이름씨’라는 말을 쓰지 않고 왜인에게서 배운 ‘명사’(名詞)라는 말을 고집하여 강제하고 획일화하였다.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식민 지배 기관에서 왜인의 교육을 받은 ‘왜인의 국어학’ 추종 세력답게 그들은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한문을 섞어 쓰자고 주장하였고, 조선 시대 끝에서부터 일제 강탈 시대를 거쳐 새 나라를 세우기까지 줄기차게 우리 말글을 지키며 연구해온 한글학회 중심의 ‘아래로부터’의 학문 활동을 제치고는 이런저런 국가 기구를 만들어 국가 주도의 ‘위로부터’의 언어 정책을 시행코자 했다. 경성제국대학의 조선어 교육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주 시경의 얼을 잇고자 한 ‘겨레 학파’의 정신과 전통과는 다른 왜인의 지향성을 뒤따르코자 한 ‘식민 학파’의 계보와 그 추이, 갈등과 대립에 대해서는 이 준식이 밝혀둔 명쾌한 글들이 있다(이 준식, 2014ㄱ, ㄴ; 2022: 155-156). 외솔은 연희학원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그때부터 한글 펴기의 전선에 나서 “소·중학 교수 용어를 우리 조선말로 해 달라”고 언론을 통하여 호소하기도 했다(최 현배, 1927ㄴ: 258).

상을 올곧게 만들어야 할 힘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물론 인민 일반에 대한 무조건의 예찬과 칭송이 아니다. 이들이 빠져든 타성의 울에서 스스로 벗어나 저항의 생기를 되살려야 한다. 비판 의식은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시민 도덕성’의 바탕이고 ‘시민 미덕’의 구성 요소이다. 외솔이 힘주어 민주 나라의 겨레를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자!’고 한 말은(최 현배, 1956; 1958: 531-550) 이러한 뜻에 잇대어 이해해야 한다.

일제 강탈 세력 밑에서 신음하는 겨레를 향하여 외솔은 체제에 빌붙어 살 수밖에 없고 그 래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견뎌내기 어려운 악조건 밑에서도 그 조건에 순응하기보다 이에 질문하고 맞서기를 요구하였다. 야속하게 들리고 얼토당토않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는 체제 순응보다는 체제와의 불화와 긴장의 길을 걷자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삶의 힘을 되살려야 한다고 했고 그 힘으로 좁다란 삶의 고집스러운 틀에서 벗어나자고 했다. 자기와 자기 집안의 안일에 묶인 가족/친족 중심의 생각 틀에서 벗어나 겨레를 아우를 생각의 지평으로 나아가자고 했고, 먹고 살기에 목줄을 달고 사는 삶의 수준에서 벗어나 서로 기대고 도울 수 있는 높은 삶의 뜻을 귀히 여기며 다지자고 했다. 해방된 다음 나라를 새로 만들어야 할 때, 그는 민주주의 나라에 세워진 삼권분립과 같은 외견상의 구색을 갖췄다고 해서 민주주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 제도를 떠받들며 이를 지키고 가꾸는 시민의 덕성을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한다고 외치며 가르치고자 했다.

이는 실로 귀한 목소리였고 값진 가르침이었다. 광야에서 외친 예언자의 소리였다(박 영신, 1995; 2012). 인민의 나라는 인민의 덕성을 요청받으며, 시민의 나라는 시민의 덕성을 요청받는다. 이 덕성 없이는 민주주의 나라는 광란한 이기주의자들이 마구 날뛰는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 오래전에 제퍼슨이 걱정했듯이 인민의 권리와 참여의 확장은 거기에 어울리는 책임과 참여의 도덕성이 떠받들고 있어야 한다. 엄격한 위계 체제 밑에서의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공평한 자율의 소통 관계로 다스려야 한다면 구성원은 이기스런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넘어 ‘사회’의 관계를 존중해야 하며 개인 넘어 더욱 높은 ‘정의’가 있다는 도덕 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Bellah 등, 1985: 30-31). 서양의 여러 학문 영역에서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새삼 자기 학문의 실제 상황을 점검하고 나왔을 때 이들은 예외 없이 시민 참여와 시민 도덕을 거론하였다. 저명한 아메리카의 사회학자 벨라가 전문화 또는 과학화라는 연구 지향성의 압력 밑에 끼리끼리의 폐쇄된 ‘소통 우리’에 갇힌 협소한 테두리를 넘어서서 시민의 삶에 다가가 이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뜻에서 사회(과)학을 ‘공공 철학’으로 이해코자 한 것도 이러한 학문 관심에서였다(Bellah, 1985). 외솔도 이러한 공동의 도덕성을 강조하며 참여를 권하였다. 같은 시대를 사는 겨레를 향하여 공공의 관심을 가진 단체에 들어가 ‘믿음과 의리’로 참여하여 책임질 수 있는 체험도 하고 맡은 바 일을 통하여 겨레의 생기를 일구라고 한 생각은 참으로 놀랍기도 하다(최 현배, 1930/1971: 227). 책임을 다하는 참여의 삶은 조선의 견고한 신분 제도가 허물어지고 왜인의 강탈도 멈추게 된 민주 나라에서 더욱 필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체험을 통하여 시민 사회의 공공 도덕성이 가꿔지고 다져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의 산물인 동시에 역사의 주체이다.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역사를 체험하며 삶을 이어간다. 그러므로 이 체험을 알아보고 뜯어보려는 학문 행위는 지난날의 역사를 낚고 쓸 모없는 종이썩처럼 폐기하여 처분하지 않고 소중히 여겨 이를 더듬어 새김질한다. 감정과 동감을 저버리지 못하는 존재가 ‘가치’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주장하고 학문은 마땅히 ‘가치 중립’이어야 한다는 구호는 학문 행위의 진실성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도덕 관심을 제거해버리는

서툰 수작이다. 벨라가 제창하는 ‘공공 철학’으로 보는 사회 과학에 이어보면, 이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학문은 다른 어느 행성이 아니라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바로 이 역사의 삶터에서 진행되는 인간의 행위이다(Bellah, 윗글: 특히 302-303). 학문을 위한 학문을 한답시고 겨레 관심을 저버리고는 왜인이 주관하는 식민지 대학의 어느 연구실에서 오직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말은 공허한 기만 행위이다. 그 연구실은 겨레 공동체의 ‘살음’과는 동떨어진 왜인의 학문 관심에 따라 공부해야 한다는 주종의 관계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문은 진공 상태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역사 체험 한가운데서 진행되기 마련이다. 아직도 식민지 시대 왜인의 공부 관심에 따라 그 공부의 전통을 잇고자 한다면 이는 자기가 배워 익숙하게 된 편리함과 익숙함을 뒤쫓는 지식 집단의 예측성과 그 확장 욕구를 보여주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 학문은 역사 체험에 대한 되새김을 요구한다.

6. 맺으며

외솔은 먼저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으나 그의 학문 정신은 만날 수 있다. 그는 자기의 영달과 부귀를 피하여 공부 길에 들어선 다음 학문이라는 탈을 얻어 쓰고는 권력과 재력에 굽실거리는 체제 순응의 지식 군상에 맞서, 더욱 큰 삶의 세계를 그리며 거기로 나아가려는 체제 변혁의 비판 정신을 표상하며 실행하였다. 한 마디로 그는 실천 비판 학문의 선구자요 실행가였다. 어느 시대나 체제 순응의 지식 세력이 득세한다. 그러함에도 좁은 ‘자기’의 이익 테두리 넘어 더욱 넓은 뜻을 값지게 여겨 이에 헌신하는 자라면 체제 순응의 지식 행위에 동조하지 않으며 동조하지 못한다. 자기 나라의 겨레, 세계의 온 인민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협소한 공부 틀에 갇히지 않는다. 체제 비판의 지식 행위를 소중히 여겨 비판 학문의 역사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정신사에 우뚝이 서 있는 외솔 최현배를 만나야 하고 그가 터놓은 비판 학문의 정신과 대화할 터이다.

비판 학문은 사사로운 자기의 좁은 틀을 넘어서는 공공성을 지향한다. 조선 시대의 양반 중심 체제 밑에서 따돌림받아온 백성 일반의 서러움, 일제 강탈 체제 밑에서 말글을 잃고 서럽게 산 겨레의 억울함, 해방되어 새로 세운 민주주의 나라임에도 자기 이익 챙기는 데만 급급하여 변두리로 밀려난 힘없는 겨레의 외로움, 이 모두는 외솔의 비판 학문 정신에 담긴 공공의 학문 관심이었다. 그는 언제나 체제 기득권의 횡포와 이에 짓눌리는 삶의 안타까움과 무기력함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했다. 그리고 이들 약자 편에 서서 살음에 대한 기운을 살리고자 분투했다. 공공성은 짓눌리고 밀려나는 ‘이웃’에 눈길을 돌리고자 하는 관심의 표명이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동감의 실행이다. 비판 학문은 이 공공성과 벗한다.

시대가 바뀌어 오늘날 우리의 삶은 건잡을 수 없는 범세계화의 상황에 던져졌다. 무역이니 통상이니 하는 경제 세력 중심의 얇은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범세계화의 광풍에 휩싸여 세계 인민 모두가 지구 거주민이고 이웃이라는 깊은 도덕 감정에서 결속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범세계화의 과제는 도외시되고 있다. 무정한 상황이고 부당한 처사이다. 기후 변화라는 인류 공멸의 위기 앞에서 지구인의 공동 책임 문제는 더 이상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 이는 긴급한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는 인류 전체의 생존 문제이다. 무절제한 산업화가 낳은 기후의 상승은 가뭄과 불벌터위와 물벼락에 알지 못할 질환을 불러온다. 불공평과 불평등은 더 이상 나라 안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가 되었다. 풍요를 누리는 부국 거주자의 소비 행태

에 의하여 빈국 거주자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기에, 생태계는 자연과학의 전문가들이 전담할 문제가 아니라 세계 인민이 함께 걱정하고 함께 챙겨야 할 공공의 과제이다. 지난 60년대 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 비행사가 우주 공간으로 떠오르는 '작은 지구'를 찍어 보낸 사진을 보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지구 공동체'를 그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이 공동체가 여태 물질로 엮이는 나라들 사이의 상거래 관계에 발목이 잡혀 그 이상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비판 학문은 새 도전 앞에 서 있다. 한 나라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사이의 문제도 아닌, 모든 나라 경계를 넘어서는 지구 공동체 전체가 마주하게 된 생존과 멸망의 문제이다. 하지만 이 지구의 문제도 사람의 문제이다. 지구인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은 햇빛과 바람과 물이 아니다. 물릴 줄 모르고 멈추지 못하는 탐욕과 이를 부추기는 오만한 과학-기술의 '근대'를 만들어 이익의 증폭을 추구하는 '사람'의 문제이다. 저절로 햇빛이 더 뜨거워지지 않았고 저절로 바람과 물이 더 더럽혀지지 않았다. 이 시대의 비판 학문은 이 무적의 막강한 '근대' 체제 밑에서 답답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꼭 막힌 사람의 문제를 겨냥하여, 속마음이 거듭나 체제 저항의 활력을 불어넣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 나서고자 할 것이다.

《도움 받은 글》

<최 현배의 글>

모음 글:

최 현배, 「외설 최 현배 전집 1-28」(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문학·논술·논문 전집 1-4」(외설회 엮고 옮김)(서울: 채륜, 2019).

날 글:

-----, 「朝鮮民族 更生의 道」(서울: 정음사, 1971)[1930], 또는 「외설 최현배 전집 1」.

-----, “페스타로치의 교육 사상”(『현대평론』, 1927년 10월 3월호), 「문학·논술·논문 전집 3」.

-----, “한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갈 것인가”(『조선일보』, 1927년 10월 24일), 「문학·논술·논문 전집 3」.

-----, “한글의 整理(정리)와 예수교”(『한글』, 55호/1938), 「문학·논술·논문 전집 3」.

-----, “한글은 겨레 갱생의 근본 길”(『부산일보』, 1951년 10월 9일), 「문학·논술·논문 전집 3」.

-----, 「민주주의와 국민 도덕」(서울: 정음사, 1953), 또는 「외설 최현배 전집 18」.

-----, “나의 걸어온 학문의 길”(『사상계』, 1955년 6월호), 「문학·논술·논문 전집 1」.

-----, “어리석은 사람이 되자”(1956년 7월 7일), 「문학·논술·논문 전집 1」.

-----, 「나라사랑의 길」(서울: 정음사, 1958), 또는 「외설 최현배 전집 22」.

-----, “한국 기독교와 한글—민족 문화 발전의 선수”(1961), 「문학·논술·논문 전집 3」.

-----, “성서와 한글”(1965), 「문학·논술·논문 전집 1」.

-----, “베스타로치의 교육 사상”, 「나라 건지는 교육」(서울: 정음사, 1962년), 또는 「외설 최현배 전집 24」.

-----, 「나라 건지는 교육」, 서울: 정음사, 1962년, 또는 「외설 최현배 전집 24」.

-----, “한글이 우리 민족 정신에 미친 영향”(『공군』, 79호/1963), 「문학·논술·논문 전집 3」.

-----, “나의 저서를 말한다—한글의 사업을 삼아—”(『현대문학』, 1964년 9월호), 「문학·논술·논문 전집 1」.

-----, 「한글만 쓰기의 주장—그 반대론자의 의혹을 풀어봐힘—」(서울: 정음사, 1970).

<외설 이르는 글>

김 석득, “외설 최현배 선생이 걸으신 길,” 「나라사랑」, 89집(1994년).

-----, 「외설 최현배—학문과 사상」(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 “최현배: 겨레 문화를 이끌어 온 국어학자,” 「애산학보」(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 “조선어학회 수난사건—언어관을 통해서 본—,” 「애산학보」, 32집(2006년).

김 정한, “외설 선생의 민족적 교육학,” 「나라사랑」, 10집(1973년).

김 화수, “시대 전환기에 대한 최현배와 페스타로치의 대응,” 「東方學志」, 143집(2008년 9월).

남 기심, “외설 최현배의 애국 사상과 우리말 연구,” 「현상과인식」, 6권 2호(1982년 여름).

노 치준, “외설의 사회 사상 연구,” 「현상과인식」, 18권 3호(1994년 가을).

박 영신, “사회 사상이 외설—겨레 되살리는 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국학연구발표회(1993년 10월 28일/국학연구원), 「東方學志」, 85집(1994년 9월), 또는 박영신(2002).

-----, “교육에 대한 외설의 생각,” 「현상과인식」, 18권 3호(1994년 가을), 또는 박영신(2002).

-----, “외설 최현배의 ‘새 나라’ 세우기 생각,” 「韓國史市民講座」, 17집(1995년).

- , 「겨레 학문의 선구자 외솔과 한결의 사상」(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 , “조선어학회가 겪은 ‘수난’ 사건의 역사 사회학,” 「애산학보」, 32집(2006년).
- , “외솔 최현배의 사상과 나라사랑,” 「나라사랑」, 116집(2010ㄱ년).
- , “외솔 최현배 선생의 교육 철학,” 「나라사랑」, 118집(2010ㄴ년).
- , “실천 지성의 사람 최현배의 시민 기르기 생각,” 「현상과인식」, 36권 3호(2012년 가을).
- , “외솔의 ‘민주 교육’ 생각”(외솔 탄생 120돌 기념 학술강연회/2014년 10월 16일/세종문화회관 예인홀/재단법인 외솔회), 또는 「나라사랑」, 123집(2014).
- , “‘새 나라’, ‘새 사람’--한 백년의 역사사회학 한 토막--”(〈573돌 한글날 기념 제11회 집현전 학술대회/주제: 지난 백 년의 우리 생활·문학과 한글/기조 강연/서울역사박물관 아주개홀/10월 10일), 또는 「나라사랑」, 128집(2019).
- , “‘근대’의 두 길—우리의 상황--,” 「현상과인식」, 40권 4호(2016년 겨울), 또는, 「어떤 국민인가」(서울: 여울목, 2017ㄱ).
- , “민주주의의 조건—지배 계급의 문자(漢字)에서 인민의 글자(한글)로—,” 「현상과인식」, 44권 2호(2020).
- , “한글과 민주주의의 ‘어울림’ 풀이—역사사회학의 눈으로--,” 〈자료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제473회 국학연구발표회/주제: 한글의 사회사 - 민본에서 민주로, 교화에서 운동으로/2020년 10월 8일). 또는 박 영신/도 현철/최 기숙 들, 「한글의 사회문화사」(서울: 혜안, 2022).
- 이 준식, “외솔과 조선어학회의 한글 운동,” 「현상과인식」, 18권 3호(1994년 가을).
- , “최현배와 김두봉—언어의 분단을 막은 두 한글학자,”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엮음, 「남과 북을 만든 라이벌—인물로 보는 남북현대사」(서울: 역사비평사, 2009).
- , “경성제국대학 ‘조선어문학과’의 언어학,” 신 주백 엮음, 「한국 근현대 인문학의 제도화: 1910-1959」(서울: 혜안, 2014ㄱ).
- , “언어민족주의와 ‘과학적’ 언어학—불안한 동거에서 대립으로,” 신 주백 엮음, 「한국 근현대 인문학의 제도화: 1910-1959」(서울: 혜안, 2014ㄴ).
- , “식민 지배 체제의 극복과 민족 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글 운동의 사회사: 주시경, 김두봉, 최현배의 만남을 중심으로,” 〈자료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제473회 국학연구발표회/주제: 한글의 사회사—민본에서 민주로, 교화에서 운동으로/2020년 10월 8일 늦은 3:00-5:30/연세대학교 위당관 313호/대면+비대면), 또는 박 영신/도 현철/최 기숙 들, 「한글의 사회문화사」(서울: 혜안, 2022).
- 조 성운, “외솔과 언어 민족주의: 한문의 세계에서 한글의 세계로,” 「현상과인식」, 18권 3호(1994년 가을).
- 허 웅, 「최 현배」(서울: 동아일보사, 1993).
- 홍 이섭, “「조선민족 갱생의 도」, 그 정신사적 추구,” 「나라사랑」, 1집(1971년).

〈그 밖의 글〉

- 나 채운, “개신교와 만난 한글,” 「나라사랑」, 119집(2010년).
- 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사 I」(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뒤르케임(뒤르껼), 에밀, “개인주의와 지성인,” 「현상과인식」, 4권 4호(1978년 겨울).
- 박 영신, “독립협회 지도 세력의 상징적 의식 구조,” 「東方學志」, 20집(1978ㄱ년).
- , “현대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도덕적 위기—에밀 뒤르껼 현대 사회 인식,” 「현대 사회의 구조와 이론」(서울: 일지사, 1978ㄴ).
- , “‘위로부터의 개혁’에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으로: 서 재필의 운동 전략 변화,” 「현상과인식

- 」, 20권 1호(1996년 봄). 또는 박 영신, 「새로 쓴 변동의 사회학」(서울: 학문과 사상사, 1996ㄱ).
- , “기독교와 한글 운동,” 유 동식 들, 「기독교와 한국 역사」(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6ㄴ).
- , “나의 길 다 가기 전에,” 「철학과 현실」, 57호(2003년 여름).
- , “삶의 이론: ‘물음 행위’의 풀이,” 「자료집」 (한국사회이론학회 창립30주년기념 학술대회/주제: 삶의 이론--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찾아서/2013년 6월 1일(토)/감리교신학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 또는 「사회이론」, 통권 44호(2013년 가을/겨울).
- 백 남운, 「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 1, 2」(하 일식 옮김)(서울: 이론과 실천, 1993)[1937].
- 서 재필, 「서재필이 꿈꾼 나라」(최 기영 엮음)(서울: 푸른역사, 2010).
- 성 낙수, “민족혼을 일깨운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독립운동,” 「나라사랑」, 118집(2010).
- 이 광린, “徐載弼의 開化思想,” 「東方學志」, 18집(1978).
- 이 정식, 「대한민국의 기원」(서울: 일조각, 2017).
- 이 준식, “백남운의 사회 인식과 맑스주의,” 「사회학연구」, 여섯째책(1990년).
- 하 일식, “「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의 ‘典型的’ 封建社會論--토지소유관계와 농민항쟁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백 남운, 「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 2」(하 일식 옮김)(서울: 이론과 실천, 1993)[1937].

- Bellah, Robert N., “Social Science as Public Philosophy,” Robert N. Bellah 들, *Habits of the Heart* (New York: Harper & Row, 1985).
- /Richard Madsen/William M. Sullivan/Ann Swidler/Steven M. Tipton, *Habits of the Heart* (New York: Harper & Row, 1985).
- Durkheim, Emile, “Individualism and the Intellectuals”(1898), Emile Durkheim, *On Morality and Society*(Robert N. Bellah 엮음)(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 Paik, Lak-Geon George,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70)[1929].
- Park, Chung-shin,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 Seattle/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3.
- Max Weber, “The Social Psychology of World Religions,”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H. H. Gerth/C. Wright Mills duRdma)(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6).

제2부 신진학자 강연

- ▷ 수많은 세계, 수많은 재앙
: 캐서린 유소프의 「10억개 혹은 0개의 흑인 인류세」에 나타난 인류세 탈식민화와 유토피아적 상상력

수많은 세계, 수많은 재앙 : 캐서린 유소프의 『10억개 혹은 0개의 흑인 인류세』에 나타난 인류세 탈식민화와 유토피아적 상상력 이 성미(연세대학교)

들어가는 말: 인류세는 지질학의 정치성을 폭로할 수 있는가?

인류세(Anthropocene) 담론은 역사의 범위에 대한 재정의의를 추구하는 이론입니다. 인류가 이제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구의 연대기라는 광범위한 지질학적인 시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인류의 흔적이 지질층의 기록으로 남겨질 것이라는 예견은 전지구적인 생태 위기를 암시합니다. 우리 삶에서는 매년 겨울이 전년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는 이상 기온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고, 홍수, 지진, 산불, 가뭄 등과 같은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이전보다 기후가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체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롭 닉슨(Rob Nixon)이 『느린 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에서 말하듯이,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 혹은 플라스틱이 땅에 축적되는 현상은 즉각적인 격변이 아닌, 마치 서서히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닉슨은 기후 위기가 초래하는 전지구적 생태 훼손을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폭력, 시공을 넘어 널리 확산하는 시간 지체적 파괴, 일반적으로 전혀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는 오랜 시간에 걸쳐 벌어지는 폭력”이라고 규정합니다.¹⁾

인류세(人類世)란 흔히 산업 혁명을 기점으로 인류의 활동이 기후 변화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새로 진입하게 된 지질시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대기화학자 폴 크뤼첸(Paul Crutzen)과 생물학자 유진 스토머(Eugene Stoermer)가 제안한 것으로, 산업 활동의 흔적이 지질층에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합니다.²⁾ 인류세가 시작된 지표 흔히 대기의 이산화탄소 함량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인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 (1800년대)를 의미합니다. 크뤼첸과 스토머는 제임스 와트가 증기 기관차를 발명한 사건에 주목하여, 기후 변화를 촉진시킨 주범은 화석 연료였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지리학자 사이먼 루이스와 마크 매슬린(Simon Lewis and Mark Maslin)은 1492년경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한 이후 1601년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준이 급격하게 감소한 “오르비스 스파이크(Orbis Spike)”를 인류세의

1) 롭 닉슨. 『느린 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 김홍옥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2000).

2) Paul J. Crutzen and Eugene F. Stoermer, “The ‘Anthropocene’ (2000).” *The Future of Nature: Documents of Global Change*, edited by Libby Robin, Sverker Sörlin and Paul Ward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3), 479-490.

시작점으로 지목합니다.³⁾ 조이 토드(Zoe Todd)도 이 시점이 세계화(globalization)가 시작된 시점으로 보며, 1601년부터 1650년까지 약 5,400만~6,100만 명가량의 원주민 인구가 600만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시기를 곧 전지구적인 기후 위기가 이미 시작된 시점이라고 주장합니다.⁴⁾

반면 제이슨 무어(Jason W. Moore)는 1450년대를 기점으로 유럽이 식민지에서 잉여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자본주의 생산체제를 구축한 시대에 조목합니다.⁵⁾ 무어에 따르면, 현 시대의 기후 변화는 인류 모두가 동일한 비율로 초래한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맞이한 위기이므로 “인류세”보다는 오히려 “자본세”가 더 적합한 용어라고 말합니다. 무어는 식민주의가 저렴한 자연(cheap nature)을 추출하여 잉여 자본을 창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화석 연료를 비롯한 에너지원이 고갈될 생태적 위기에 이르렀다고 경고합니다. 더 나아가 대기의 방사능 농도의 증가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아지면서, 1945년에 미국이 최초로 원자폭탄을 투하한 사건 이후 각종 핵실험이 발달한 20세기가 기후 위기의 주범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인류세의 시작을 어떻게 설정하든 간에 “인류”라는 생물종이 출현한 홀로세(Holocene) 이후 이제 전례없는 대멸종이 일어날 것이며, 지질층에 인류세라는 영구적인 흔적으로 남길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이런 여러 담론을 살펴봤을 때, 두 가지 공통점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 세계 시스템은 이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종말론적인 암시 혹은 불가피한 디스토피아에 대한 예고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앞으로 닥칠 아포칼립스에 대비하려면 탄소사회가 아닌 다른 대체가능한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예측입니다. 다시 말해, 인류세 담론은 디스토피아를 예견하기도 하며, 미래에 올 세계를 자원을 통해 재구축(reworlding)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서사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⁶⁾

본고는 인류의 대멸종이 암석의 기록으로 남겨질 것이라는 미래형 서사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자 하며, 생태주의적 탈식민화로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리학자 캐서린 유소프(Kathryn Yusoff)는 『10억개 혹은 0개의 흑인 인류세』(A Billion Black Anthropocenes or None)에서 인류세 담론의 미래 시제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서문을 시작하며,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수형 인류세가 아닌 복수형 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⁷⁾

인류세란 [현대]자유주의 사회가 직면한 환경적 해악에 노출된 것에 대한 위급함에 대한 우려를 선언한다면, 이러한 해악은 문명, 개발, 근대화 및 자본주의의 영향 아래에 의도적으로 흑인 및 갈색 인종 공동체에게 수출된 피해가 낳은 역사적인 산물이다. 인류세는 세계의 종말을 한탄하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예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국주의 및 지속적인 [정착형] 식민주의는 [수많은 세계들이] 존재했던 세상을 이미 종식시켜 왔다.⁸⁾

3) Simon L. Lewis and Mark A. Maslin. “Defining the anthropocene.” *Nature* 519 (2015): 171-80.

4) Heather Davis and Zoe Todd, “On the Importance of a Date, or Decolonizing the Anthropocene” *ACME: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Critical Geographies* 16, no. 4 (2017): 761- 780.

5) Jason Moore. *Capitalism in the Web of Life: Ecology and the Accumulation of Capital*. (Verso Books, 2015.)

6) 도나 해러웨이, 김상민 옮김, “인류세, 자본세, 대농장세, 톨루세 - 친족 만들기.” 『문화과학』 97 (문화과학사, 2019)

7) Kathryn Yusoff, *A Billion Black Anthropocenes or Non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8).

8) Yusoff, xiii.

즉 유소프는 인류를 불특정한 “우리”라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전제하는 방식을 비판하며, 흑인과 인종적 타자의 죽음이 “모든 인류세 기원 서사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주장합니다.⁹⁾ 또한, 인류세 담론은 “보편적 인류를 선언함에 따라 지질학적 관계 구조를 통해 배양되었던 인종차별의 역사를 깔끔하게 삭제한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합니다.¹⁰⁾ 더 나아가 지질학을 통해서 본 지구에 대한 많은 담론이 생물학적인 진화론과 차원이 다른 기원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매우 파격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현 인류세 논쟁 역시 일종의 “인류기원론”(Anthropogenesis)으로서 세계-만들기 작업(world-making practice)을 하고 있다는 말은 설득력있는 주장입니다. 인류세 대신 “인류기원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현 기후 위기 담론이 어떻게 근대 지질학이 만들어낸 언어와 서사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는지에 주목하고 있는 이론서적이기에, 유소프의 이론을 읽을 수록 여러 담론의 수사법을 분석하는 문학비평을 읽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첫째로, 유소프는 인류세 담론은 세계의 창조자/파괴자라는 어마무시한 존재인 “신화적인 안트로포스”(mythic Anthropos)를 생산하는 내러티브라고 보고 있고, 둘째로, 인간의 기원과 종말을 이제는 전적으로 생물학적 맥락이 아닌 지질학적 맥락에서 다시쓰기하는 새로운 진화론, 즉 물질(material)에 대한 거대 서사를 만드는 작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소프는 18세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근대 지질학 역시 “인간 아닌 것”(inhuman)에 대한 일종의 기원 이야기로 보며, 물질(matter)의 속성(property)에 따라 인종 또한 세분화한 지질학적인 언어를 통해 생물학적 인종주의 이전의 물리적인 식민화가 만든 비인간과 인간의 이분법을 분석합니다. 땅은 곧 인간이 침략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지면 아래에 축적된 물질은 인간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생명이기에, 지구에서 추출된 물질은 속성에 따라 분류하고 가치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고는 인류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편화하는 인류세 담론에 의문을 던지며, 인종주의적 착취의 역사(특히 대서양 노예무역은 흑인의 신체를 물건처럼 거래하던 역사)를 통해 근대 지질학의 식민성에 대해 재고찰 하고자 합니다. “Black Anthropocenes”라는 유소프의 개념을 번역할 때, 필자는 비인격화되고 인종화된 주체로 대표되는 “흑인”이라는 표현을 선택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삶의 터전에서 박탈당하거나 강제 이주를 경험한 모든 인종적 주체를 포함하는 더 넓은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흑인이라는 인종적 개념은 식민적 근대성의 산물이며, 바이오스(bios)에서 마저 제외되었기에 유소프가 말하는 “인간 아닌 것,” 즉 지오스(geos)에 포함됩니다. 지질학에서 비인간적 요소를 “무생물적인 것, 비역사적인 것, 비정치적인 것, 또는 비유기적인 것(무기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생명정치의 영역 밖에서 일어납니다.¹¹⁾ 즉 수많은 세계들을 오래전부터 종식시켜 “식민적 지구”(colonial earth)를 만든 인간(Anthropos)의 기원 이야기가 담긴 담론을 바로 지질학으로 지목합니다. 이런 “인간 이전의/이하의 존재”에 대한 성찰 없이 현 인류세의 위기를 논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식민주의적 생태 폭력(colonial ecological violence)이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은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 수많은 멸종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어떻게 지구에 속한 공동체들이 공생관계가 가능한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대한 열린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9) Ibid., 66.

10) Ibid., 14.

11) Ibid., 101-102.

쟁점 1. 근대 지질학이 백인의 유토피아를 구축했다.

근대 지질학을 정립한 제임스 허튼(James Hutton, 1726~1797)과 찰스 라이엘(Charles Lyell, 1797~1875)의 이론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세계”는 곧 지구(terra)라는 이해가 지배적었고, 식민주의적 약탈이 지질학 탄생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허튼과 라이엘 이후 지구의 시간을 연대기적으로 측정하는 지질학은 곧 근대성의 언어가 되었습니다.¹²⁾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연대기 자체가 아니라, 지질시대의 기원과 종말에 대한 서사(narrative)입니다. 오래된 지질시대의 흔적을 “발굴”했다거나, 채굴을 통해 더 많은 층서명을 “발견”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신대륙 발견에 대한 서사와 동일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지구의 역사를 수직적인 시간 단위로 표현하려는 시도가 지질학의 작업이었으며, 근대 지질학이 논했던 두 가지 상반된 규모의 시간 (홀로세 인류 출현 이후의 압축적인 역사 및 지구의 탄생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심원의 시간)의 관계는 현 인류세 담론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논점이기도 합니다. 당시 신학적으로 성서무오설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와 충돌한 담론이 되기도 했지만, 빠른 속도로 지질학의 언어는 대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구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 단위 (하루, 한 주, 한 달, 한 계절, 한 해, 한 시대)에서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느린 시간이었기에 더욱 인류 출현 이전에 관한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탐구하는 서사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당시 영국은 석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에, 지구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 석탄기의 기원과 종말 이야기를 풀어냅니다.¹³⁾ 19세기 영국 지질학자인 윌리엄 코니베어(William Conybeare)와 윌리엄 필립스(William Phillips)의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지질학 개요』(Outlines of the Geology of England and Wales, 1822)에 처음으로 고생대 후기를 뜻하는 “석탄기(Carboniferous)”라는 층서명이 등장했습니다.

12) 근대 지질학을 본격적으로 대중화시킨 스코틀랜드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1797~1875)은 『지질학의 원리』(Principles of Geology, 1830~1833)의 저자이자 런던 지질학회 회장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가장 큰 이론적 밑거름을 제공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엘은 지구가 현재까지도 작동하는 자연의 원리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성서무오설을 주장한 창조론자들이 주장한 짧은 지구설과는 달리, 수십억년에 걸쳐 지층이 느리게 형성되었다는 광범위한 시간적 틀을 제시하여, 생물학적 진화론의 원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엘의 패러다임은 다윈이 『종의 기원』(Origin of Species, 1859)을 발간했을 때 이미 심원의 시간(deep time)은 친숙한 개념이었고, 종의 분화가 이루어진 생물 진화의 역사에 비해 “인류”의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이해가 학계에서는 벌써 “특권적 언어”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McClintock 283). 이에 대해 브루스 존슨(Bruce Johnson)은 “근대성의 의미”를 찾는다면, “라이엘과 다윈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현재와] 과거와의 긴 연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113).

13) William Conybeare and William Phillips, *Outlines of the Geology of England and Wales* (London: William Phillips, 1822). 약 3억6천만 년 전부터 약 3억년간 지속된 석탄기는, 현재보다 전 세계 평균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훨씬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초기 석탄기에 지구는 약57도가량 더 더웠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1500ppm(현재는 400ppm, 산업 혁명 이전은 270ppm)였습니다. 당시 울창한 숲은 대기로부터 풍부한 탄소를 흡입하여,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며 전지구적 냉각과 빙하기의 일원으로 작용했고, 나무가 썩지 않고 화석화되어 태양의 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석탄으로 저장했습니다.

표 1. 두산 백과사전 (<https://www.doopedia.co.kr/>)

이 개요에 의하면 석탄기는 울창한 숲이 번창하던 푸른 행성의 시기였고, 지구는 계절이 없는 일정한 기온과 습도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코니베어와 필립스는 특히 영국 석탄층에 보존된 고생대 식물의 흔적에 관심을 가졌으며, 석탄은 다른 어떤 암석 형성과도 달리 “식물계(vegetable kingdom)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¹⁴⁾ 당대 많은 학자들은 영국의 지층에서 나오는 풍부한 에너지를 찬양했고, 석탄층을 “널리 유용한 목적에 활용가능한 지층(stratum)”으로 인식했습니다.¹⁵⁾

이후에도 유토피아와 같은 석탄기에 대한 서사에는 신의 섭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연신학

14) Ibid., 345.

15) Ibid., 233.

자 윌리엄 버클랜드 (William Buckland, 1784 ~1856)는 1836년에 발표한 『브리지워터 논고』 (Bridgewater Treatise)에서 석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비록 이러한 미래의 혜택을 가져다줄 원료가 저장되었을 때,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전이었든지라도, 우리는 합리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 [석탄이] 인류의 이익에 매우 적합한 방식으로 예로부터 배치되었을 때, 설계(design)의 일환으로 미래의 인류(Human Race)가 이를 유용하게 사용할 것을 미리 예견한 방식으로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⁶⁾

신이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섭리와 설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누군가가 인류의 미래를 마치 “예견”한 듯, 영국에 석탄을 풍부하게 배치했다는 서사는 제국주의와 산업혁명이 정점을 찍었던 19세기 중반에는 더욱 꽃피우게 됩니다. (분량을 고려하여 원고의 일부를 생략합니다.)

**

자메이카 출신 미국 철학자이자 문화비평가인 실비아 윈터(Sylvia Wynter)는 인간(Human/Man)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성의 근간”(foundational basis of modernity)이었다고 하며, 근대성은 인종적 타자로부터 존재론적인 자격을 박탈하는 동시에, 땅과 인간을 분리한 식민주의적 관념이자 물리적인 폭력이었다고 말합니다.¹⁷⁾ 유소프의 이론 역시 윈터의 존재론적인 해석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고, 지질학은 안트로포스(Anthropos)의 영역에 포함된 인간이 비인간 지구를 대상으로 “식민주의적 세계-구축하기”(colonial world-making)에 기여한 학문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유소프에 따르면, 노예무역과 플랜테이션이 출현한 시점인 1452년은 일종의 “황금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윈터에 의하면, 1452년은 백인이 인간으로 탄생하는 시점이고, 타인종은 인간이라는 범주에서 배제된 순간입니다. 흑인 노예들이 아프리카 해안으로부터 500킬로미터 떨어진 포르투갈령 마데이라 제도로 끌려가 설탕 생산을 위한 사탕수수 재배에 투입된 해입니다. 유소프가 제안한 인류기원론이라는 개념을 따르면, 1452년이 인간과 비인간이 “존재론적으로” 기원이 분리된 날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¹⁸⁾

유소프가 근대 식민주의 담론의 핵심을 생물학적 인종주의로 보지 않고, 근대 지질학 문헌의 인종적 논리와 언어로 해석하는 방식은 탈식주의 이론, 존재론, 마르크주의 이론과 같은 다양한 방법론을 경합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인종화된 주체의 탄생은 식민주의와 세계 정복, 그리고 소유(property)와 속성(properties)를 다루는 지질학이 학문으로 자리매김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언어적 유희도 담고 있지만, 탈식민주의적 비평이 간과한 지하(underground) 세계 정복에 대한 사유를 이론화하려는 시도로 보이기도 합니다.¹⁹⁾ 또한 유소프가 “지질 자원과 신체 자원(또는 인종화된 노예)은 탄생 시점이 같다”고 주장하는 지점에서는 유물론적인 의미에서 이 두 자원이 식민주의 채굴 경제(extraction economy)를 뒷받침하

16) William Buckland, *Geology and Mineralogy Considered with Reference to Natural Theology* (London, W. Pickering, 1836), 536-538.

17) Sylvia Wynter, “Unsettling the Coloniality of Being/Power/Truth/Freedom: Towards the Human, After Man, Its Overrepresentation--An Argument.” *CR: The New Centennial Review* 3, no. 3 (2003), 288.

18) Yusoff, 101.

19) Yusoff, 58.

는 역할을 해왔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²⁰⁾

유소프는 백인중심주의를 “지구를 영원히 소유”하는 행위로 정의한 W.E. B 듀 보이스(W.E.B. Du Bois)의 말을 인용하며, 이를 근대 지질학의 서사와 연결시켜 블랙니스(blackness)에 대한 재해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²¹⁾ 즉 근대 지질학은 세계를 물질과 소유로 보는 백인중심주의와 일맥상통하는 인간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고, 여기서 “세계”란 지구의 표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지면 아래에 있는 모든 암석과 광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 시킵니다. 채굴 경제와 함께 인종화 논리가 함께 간다는 말은 아프리카 노예무역이 단지 생물학적으로 흑인을 열등하게 본 것이 아닌, 지구의 표면과 지층을 구성하는 모든 존재가 곧 추출의 영역이라는 관념이 만든 폭력이며, 흑인을 물질과 동일하게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탈식민주의 이론의 거장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의 표현을 빌려, 유소프는 식민주의는 곧 “사물화”(Thingification)였다고 주장합니다. 덧붙여, 백인이 아닌 인종적 타자를 물질로 인식하기에, 블랙니스(blackness)는 바이오스(bios)의 영역이 아닌 지구에서 추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자리잡았다는 해석입니다.

대서양 노예 무역 시대에는 물질이 어떤 속성과 가치를 갖는지에 대한 식별이 필요했고, 재산에 대한 절도죄를 입증할 수 있는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확산되었기에, 노예와 광물은 모두 수익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검은 피부를 가진 주체들은 금, 은 및 기타 귀금속처럼 교환 가치를 가진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흑인이라고 해서 모두 몸값은 동일하지 않았고, 유형별로 (성별, 몸무게, 키, 연령 등) 분류되었고, 속성, 즉 각자의 기술력이나 미래의 흑자(surplus)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백인들이 노예의 몸에 대한 재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도, 광물이 가진 속성 (properties)을 분류하듯 흑인의 신체를 철저히 비인간화했기 때문입니다.²²⁾ 즉 근대 지질학과 노예제는 공통적으로 “비인간적 요소들”을 범주화하는 방식이었고, “신체를 규제하고 복종시키는 방식”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인종적 노예의 탄생이야말로 흑인 인류세(Black Anthropocenes)의 원형적 순간으로서, 근대 지질학의 언어가 인종적 타자를 비인간적인 것 (물질과 에너지)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 역사적 맥락입니다.

이 주장은 마테이라 섬 사탕수수 재배에서 자본세가 유래했다는 무어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유소프는 무어의 견해를 따르고 있지만, 자본세 담론 역시 유럽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경제적으로 정점을 찍은 산업혁명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비판합니다. 대신 유소프가 다루는 문제는 지질학의 언어가 그 이전부터 어떻게 정치적인 맥락 안에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윈터가 비판한 근대 자유주의 휴머니즘(liberal humanism)을 탄생시킨 규범적 인간을 탄생시켰지만, 유소프가 비판하는 지질학은 비인간을 사물화하는 격자(grid)이며, 인종 분류법(taxonomy of race)이 작동하는 테크놀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 Ibid., 8.

21) Ibid., 26.

22) 호텐스 스피ллер스(Hortense Spillers)의 주장에 따르면, 노예 무역으로 “포로가 된 몸”은 곧 소유물이었고, 특히 인종화된 몸이 암석이나 광물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말은 비유로만 보기에 너무나 공교롭게도 문자 그대로 추출할 수 있는 물질성을 대변하고 있었기에 물질과 노예의 구분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고 합니다 (208).

쟁점 2. 정착형 식민주의는 이미 수많은 세계를 종식시켰다.

과거에도 지질학이 물질을 추출하는 테크놀로지를 제공했지만, 현재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화석 연료 채굴, 석유를 운송하는 지하 파이프라인 건설, 강물과 토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댐 건설 등과 같은 산업에 동원되며, 전지구적 추출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식 정착형 식민주의(settler colonialism)가 이런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관점을 생태주의적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정착형 식민주의는 하나의 “사건”(event)이 아닌 원주민(토착민) 인구를 정착민이 대체하는 “구조”(structure)이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현재진행형인 식민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²³⁾ 백영경에 의하면, 정착형 식민주의란 “외부에서 들어온 집단이 지역에 살던 집단을 영구적으로 대체하면서 스스로 거기에 머무르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반 식민주의와 다르며, 탈식민화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주체들이 선주민으로서 주권을 박탈 당한 채 살아가는 체제입니다.²⁴⁾

정착형 식민주의의 길고 긴 역사 속에서, 1607년은 제임스타운이라는 최초의 영구적인 영국령 정착지가 출현한 해입니다. 이 시기에 버지니아 주 동쪽에는 20,000명 이상의 토착민이 약 30개 이상의 부족을 이루어 생태계를 공유하고 있었고, 마타포니, 파문키, 치카호미니, 아로하텍, 아파마툽 등은 모두 강력한 포와탄 연맹(Powhatan Confederacy)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시기는 대서양 노예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대였고, 영국령 정착지가 신대륙에서 번성하면서 버지니아,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를 중심으로 흑인 노예를 동원한 석탄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의 석탄을 수입했기 때문이며, 석탄 채굴은 원주민의 생존 터전을 박탈하여 미 동부의 인구 분포뿐 아니라 생물종의 구성을 의도적으로 변형시켰습니다. 요약하자면, 지리학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근대 제국주의 팽창의 동력이었다면, 지질학은 노예무역과 정착형식민주의라는 맥락 속에서 발달했고, 사탕수수농장, 금광, 탄광 개발의 원동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 미합중국이 탄생하기까지 정착형 식민주의가 토착민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말살한 과정을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이 역사는 이브 터크와 C. 리(Eve Tuck and C. Ree)가 주장하듯이, 토착민 외에도 수많은 생물종을 비롯한 인간 외의 모든 것들을 살인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making killable) 끔찍한 과정이었습니다.²⁵⁾ 정착형 식민주의 구조 아래에서 인간/문명이 아닌 존재는 생태적인 학살(ecogenocide)를 경험했고, 북아메리카 선주민 인구가 살고 있던 산맥, 삼림, 빙하 주변까지도 “무주지”(terra nullius)로 간주되어 약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질학이 발달하던 시기에 풍부한 석탄이 지층에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신의 섭리로 찬양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초기 청교도 정착민들은 뉴잉글랜드의 거대하고 울창한 숲을 신의 선물처럼 여겼습니다. 영국은 목재가 부족했기에, 풍부한 삼림은 영국에 수출할 수 있는 목재가 되었고, 정착민들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원천이었습니다. 또한 청교도 정착민들은 원주민 거주지인 삼림에서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 삼림을 개간했고, “연간 2,500만 입방미터의 목재”

23) Patrick Wolfe, “Settler Colonialism and the Elimination of the Native,”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8, no. 4 (Winter 2006): 387–409. J. Kēhaulani Kauanui, “‘A Structure, Not an Event’: Settler Colonialism and Enduring Indigeneity,” *Lateral* 5, no. 1 (Spring 2016).

24) 백영경. “태평양 지역 섬의 군사화와 탈식민, 그리고 커먼즈,” *탐라문화* no. 58 (2018), 102.

25) Eve Tuck and C. Ree, “A Glossary of Haunting,” in *Handbook of Autoethnography*, edited by Stacy Holman Jones et. al. (Abingdon: Routledge, 2013).

를 영국으로 수출했습니다.²⁶⁾ 이로 인해 청교도 정착촌에서 축산업이 발달했고, 대량으로 목재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더 빠른 속도로 대서양을 항해할 수 있는 선박과 항구를 발전했습니다. 이후에 아메리카 식민지로 이주한 백인 정착민들도 노예무역을 통해 산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영국이 노예제를 폐지한 지 얼마되지 않아, 찰스 라이엘은 1840년대 초에 정착형 식민주의가 진행되고 있던 북아메리카를 여행했고, 『북미여행』(Travels in North America, 1845)과 『미국 두 번째 방문』(A Second Visit to the United States of North America, 1849)이라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두 저서 모두 북미권의 지형적 특징과 지질층을 관찰한 기록을 담은 기행문이었지만, 흥미롭게도 인종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미여행』의 목차를 보면, 기행문에 흔히 등장하는 여행지의 명칭뿐 아니라, 인종에 대한 짧은 단상과 화석이나 지층에 언급이 동시다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9장을 목차에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저자가 “찰스턴으로의 귀환—화석 인간 골격”과 더불어 “미국과 유럽의 에오세 지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개의 종”을 요약하기도 하지만, 바로 다음 줄에서는 “노예 인구의 상태—흑인들의 쾌활함: 그들의 허영심—동물의 상태—혼인의 무효—유색인종은 백인보다 더 빠르게 번식한다—노예 폐지론자들의 간섭이 미치는 영향”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CHAPTER IX.

Return to Charleston. — Fossil Human Skeleton. —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Quadrupeds in North America. — Severe Frost in 1835 in South Carolina. — White Limestone of the Cooper River and Santee Canal. — Referred to the Eocene Period, and not intermediate between Tertiary and Chalk. — Lime-sinks. — Species of Shells common to Eocene Strata in America and Europe. — Causes of the increased Insalubrity of the Low Region of South Carolina. — Condition of the Slave Population. — Cheerfulness of the Negroes: their Vanity. — State of Animal Existence. — Invalidity of Marriages. — The Coloured Population multiply faster than the Whites. — Effects of the interference of Abolitionists. — Laws against Education. — Gradual Emancipation equally desirable for the Whites and the Coloured Race - - - - - Page 171

CHAPTER X.

Wilmington, N. C. — Mount Vernon. — Return to Philadelphia. — Reception of Mr. Dickens. — Museum and Fossil Human Bones. — Penitentiary. — Churches. — Religious Excitement. — Coloured People of Fortune. — Obstacles to their obtaining political and social Equality. — No natural Antipathy between the Races. — Negro Reservations - - - - - 196

(분량을 고려하여 원고의 일부를 생략합니다.)

지질학은 “주체가 없는” 학문이자 “사물 혹은 무감각한 무생물”을 다루는 학문인 반면, 생

26) Kyle Keeler, “Colonial theft and Indigenous resistance in the Kleptocene”(Edge Effects, September 8, 2020)

물학은 “유기체” (생물, 감각, 몸 등)에 대한 학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이러한 이분법은 지질학이 점점 더 책임을 회피하고 마치 정치성이 배제된 중립적인 학문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사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지질학은 “항상 이미” (always, already) 정치적으로 작동해왔고, 같은 의미로, 항상 이미 인종차별화되어 있었다는 점은 현상태의 지속불가능성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유소프가 비판하는 인류세 담론은 이미 멸종을 경험했던 인종적 타자에게는 수 세기 전부터 발생한 참사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며, 정착형 식민주의 체제에서는 현재진행형인 재앙이기에 이 곳은 “살 만한”(livable) 조건을 제공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국의 정착형 식민주의로 인해 석탄 산업은 꾸준히 버지니아,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를 중심으로 번창했고, 석탄 채굴 경제는 선주민들의 생존 터전을 박탈하여 인구 분포뿐 아니라 생물종의 구성을 의도적으로 변형시켰습니다. 인류세 담론이 예고하는 기후 변화는 식민화에 의한 생태적 파괴와 약탈 없이 설명할 수 없으며, 미국식 정착형 식민주의는 이런 사실을 입증합니다. 흑인, 토착민, 및 자연 생태계를 추출의 대상이자 문명/백인/남성으로 대표되는 인간(Man)과 대조되는 비인격의 물질(matter)로 귀속되었고, 정착형 식민주의는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준 구조(structure)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과거에 이미 수차례 일어난 식민주의적 생태적 폭력과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토착민과 흑인에 대한 폭력에 대한 저항 없이 이대로의 “세계”는 누구에도 유토피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류세는 전대미문의 미래와의 대면이 아닌, 과거의 유령이 현재를 떠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미국의 포타와토미(Potowatomi)족 학자 카일 화이트(Kyle Whyte)의 견해에 따르면, 즉 “무엇이 장소 고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유가 배제된 일방적인 환경주의는 부작용만 낳을 뿐입니다.²⁷⁾ 지역의 특수성과 생태적 연결망을 이해해야 보호구역(reservation)과 같은 인위적인 방식이 아닌 인간과 비인간이 진정한 공생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토착민에게 낯선 환경, 낯선 기후, 낯선 동식물에 대한 적응을 강요한 미국식 정착형 식민주의야말로 생태적인 재앙이었으며, 정착민이 선주민의 땅에서 떠나거나 땅을 반환하고 있지 않기에 현재에도 진행되는 생태적 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북아메리카 토착민 강제 이주는 인류세라는 조건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종의 “미리 보기”였고, 기후 변화는 식민적 데자뷰(colonial déjà-vu) 중 또 다른 현상입니다.²⁸⁾ 화이트가 말하듯이, 인류세가 말하는 전례없는 기후 위기는 이미 수 세기 전 신대륙 발견과 함께 시작된 멸종의 반복입니다. 유소프의 이론은 비록 대서양 노예무역과 맞물린 검은 피부를 가진 주체들의 비인격화를 논하고 있지만, 십억개의 흑인 인류세는 토착 원주민들이 경험한 지오토라우마(geotrauma)라는 현재진행형 구조에 적용되기도 하며, 정착형 식민주의 체제가 여전히 생태적인 폭력 구조를 유지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27) Kyle Whyte. “Our Ancestors’ Dystopia Now: Indigenous Conservation and the Anthropocene.” *Routledge Companion to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edited by Ursula Heise et. al. (London: Routledge, 2016), 206-15.

28) Whyte, “Is it Colonial Déjà Vu? Indigenous Peoples and Climate Injustice” In *Humanities for the Environment: Integrating Knowledges, Forging New Constellations of Practice*, edited by Joni Adamson, Michael Davis, and Hsinya Huang. (London: Routledge, 2016), 88-104.

나가는 말: “탈식민화는 은유가 아니다”²⁹⁾

유소프는 (복수형) 흑인 인류세의 문제를 활용하여 현 인류세 (단수형)에 대한 이해에 균열을 일으키는 독특한 방식으로 전례없는 대멸종을 예견하는 수사법에 저항합니다. 인류세라는 표면적인 난국을 지나 유소프는 역설적으로 비인격화된 주체들간의 공통분모인 지오탁라우마에서 오히려 연대와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며, “저항의 지질학”(insurgent geology)이라는 대안적인 언어가 유토피아적 상상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유소프가 인류세 담론에 대해 가차 없는 비판을 하면서도, 수많은 세계의 종말을 겪고도 생존하며 저항한 많은 이들의 언어를 빌려 다시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것을 보면, 절망과 희망에서 줄타기를 하며, 새로운 방식의 지질시학(geopoetics)를 통해 새 언어를 창시해야 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야누스의 얼굴과 같이 지질학의 폭력적인 역사가 있다면, 계속해서 이 폭력에 균열을 일으키는 존재들의 저항이 있었고, 이 저항의 언어를 섬세하게 읽어내는 유소프의 성찰은 문학비평가인 저에게도 희망을 시사하는 텍스트입니다. “세상의 끝”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종말 이후의 삶이 다시 열린다는 것은, 어쩌면 희망어 어원을 가진 아포칼립스(apocalypse)의 또 다른 의미 “계시” 혹은 “폭로”로서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묵시론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이론적 가능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유소프가 여러 차례 지적하듯이, 세계 질서와 동떨어진 중립적 지질학이 존재한다는 편견은 바로잡아야 하며, 지구라는 행성은 결코 식민적 근대 이후로 보편적 인류의 터전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더욱 현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을 만한 상상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제를 던져줍니다. 또한 인문학이 인간중심주의를 탈피하고, “인간이 아닌 것에 대한 학문”(Inhumanties)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은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만큼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마련하며, 미완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기에 열린 결말을 통해 유토피아적인 암시를 던져줍니다.

아미타브 고시(Amitav Gosch)에 의하면 “기후 위기는 문화의 위기이자 상상력의 위기”이기도 합니다.³⁰⁾ 상상력은 늘 지구상 생명체의 기원 및 진화를 이해하는 데 활용되어 왔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지구의 기후와 생태계를 형성하는 장기적인 과정을 이해하려는 서사가 있다면, 토착 생태주의이론은 계속해서 정착형 식민주의에 저항하며, 채굴경제를 통한 생존이 아닌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를 강조합니다. 버네사 워츠(Vanessa Watts)는 토착민(원주민)의 “장소 사유”(Place-Thought)를 “특정 장소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사고와 지식”으로 정의합니다.³¹⁾ 장소 사유는 장소 자체의 주체성, 역사,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으며, 마치 주체가 없는 것처럼 중립적인 행세를 하는 근대 지질학과는 달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장소 내에서 더 큰 “관계망의 일부” 뿐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고 강조합니다. 워츠의 의는 지식과 이해를 형성하는 데 개인과 공동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감각적인 경험에서 얻은 생태적 지식과 특정 장소와의 친밀한 관계가 생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또한, 장소 사유는 원리나 속성과 같은 고정된 개념이 아닌, 인간과 장소의 지속적인 상호

29) Eve Tuck and K. Wayne Yang. “Decolonization Is Not a Metaphor.” *Decolonization: Indigeneity, Education & Society* 1, no. 1 (September 8, 2012).

30) 아미타브 고시, 『대혼란의 시대: 기후 위기는 문화의 위기이자 상상력의 위기다』 김홍목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2021).

31) Watts, Vanessa. “Indigenous Place-Thought and Agency amongst Humans and Non-Humans (First Woman and Sky Woman Go on a European World Tour!).” *Decolonization: Indigeneity, Education & Society* 2, no. 1(2013): 20-34.

작용과 시간이 흘러 생기는 변화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사유체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토착 생태학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미래의 기후 위기에 대해 경보를 울리기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위기에 맞서는 지속적이고 끈기 있는 상호의존과 상호책임을 주장하기에 더욱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³²⁾ 이런 관점에서 도나 해러웨이의 “친족만들기”와 리안 심슨(Leanne Betasamosake Simpson)의 “상호인정” (reciprocal recognition)은 더욱 유효한 개념입니다. 해러웨이는 쉘루세(Chthulucene)라는 개념을 통해, 종간(interspecies) 공생(共生)을 향한 변화를 상상하려고 하며, 인간 역시 다른 종과 마찬가지로 “필멸의 동물로서 잘 살고 죽는 한 가지 방법은 피난처를 재구축”하는 데에 있다고 제안합니다.³³⁾ 다른 생물종과 무생물과 친족 관계를 맺고 “지구에 묶인 자들”로서 “세계”를 재탄생시키자고 하는 제안이 유소프가 말하는 “인간이 아닌 것에 대한 학문”(Inhumanties)을 통해 사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³⁴⁾ “저항의 지질학”은 비록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지 못하지만, 새로운 방식의 공생관계는 분명히 유소프의 말대로 정착형 식민주의의 해체를 요구하며, 바이오스(bios)에서 제외된 모든 것에 대한 학문적 성찰을 필요로 합니다. 주디스 버틀러가 “우리의 잠재적 평등과 살 만한(livable) 삶의 조건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는 단지 별거벗은 생명 (취약한 생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소프가 말하는 생명 이외의 것들과의 공생을 모색하는 일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³⁵⁾ 그동안의 인류세 담론이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새로운 창조성을 요구하는 유소프, 해러웨이, 혹은 심슨의 상상력은 세계재구축(reworlding) 작업을 요구합니다. 연대와 상호인정을 전제로 하는 이런 대안적인 사유는 탈식민화의 지평을 향한 새로운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해봅니다.

32) Leanne Betasamosake Simpson. *As we have always done : Indigenous freedom through radical resista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7)

33) 해러웨이, “인류세, 자본세, 대농장세, 톨루세 - 친족 만들기,” 167.

34) 해러웨이, “인류세, 자본세, 대농장세, 톨루세 - 친족 만들기,” 169.

35) 주디스 버틀러, 김응산, 양호실 옮김. 『연대하는 신체들의 거리』 (서울: 창비, 2020), 307.

제3부 주제 발표 (1)

- ▷ 한류, 세계인의 문화가 되다: 영상산업 변화를 통해 본 한류의 진화
- ▷ ‘한’ 없는 한류 : 한류 개념의 포용적 진화 가능성 탐구

한류, 세계인의 문화가 되다: 영상산업 변화를 통해 본 한류의 진화

이 성민(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3 한국인문사회과학회 봄 학술대회

한류, 세계인의 문화가 되다

: 영상산업 변화를 통해 본 한류의 진화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3.5.13

K-드라마, 세계를 뒤흔들다

TOP 10 TV (Non-English)

Some titles may not be available in all regions. Some territories are included in the countries list for convenience.

1

The Glory

Watched for 124.46 million hours this week.

2

SQUID GAME

Watched for 42.79 million hours this week.

3

ALL OF US ARE DEAD

4

HELLBOUND

5

Business Proposal

6

Extraordinary Attorney Woo

K드라마, 다음은 K예능?

Some titles may not be available in all regions. Some territories are included in the countries list for convenience.

1

PHYSICAL:100

Watched for 45.42 million hours this week.

[Watch now](#)

2

THE GLORY

3

SQUID GAME

4

ALL OF US ARE DEAD

5

HELLBOUND

6

Business Proposal

7

Extraordinary Attorney Woo

◀ FEBRUARY 13 - FEBRUARY 19, 20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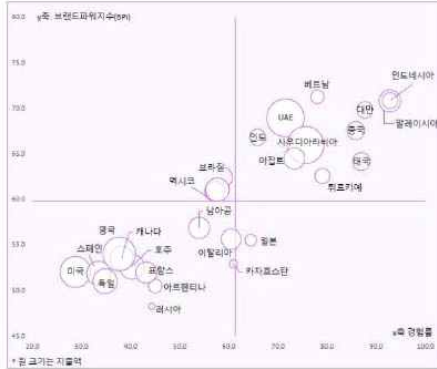
K-콘텐츠: 드라마, 예능 주요 지표 요약 (경험률x브랜드파워지수)

드라마 | 인기도 ▼1.7%p, 중동·아프리카 '배우' 문화 간질 '정말' 인기요인

한국 드라마 주요 지표 요약

구분	전체	인기	배우	문화	정말	인기	배우
지표	61.2%	39.8%	42.1%	25.3%	21.4%	26.7%	39.6%
한국 문화콘텐츠 중 순위	4위/11개	6위/11개	5위/11개	5위/11개	1위/8개	2위/11개	1위/11개

한국 드라마 경험률과 브랜드파워지수에 따른 국가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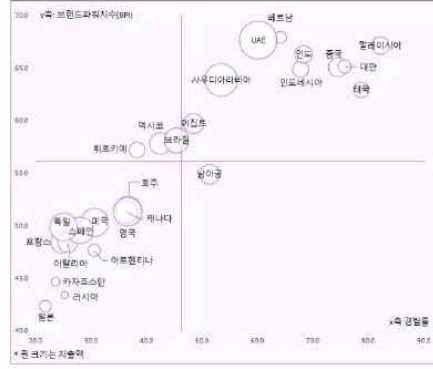
출처: 2023 해외한류실태조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예능 | 시청량 상승세·경험자 긍정 평가로 향후 주력 콘텐츠 가능성

한국 예능 주요 지표 요약

구분	전체	인기	배우	문화	정말	인기	배우
지표	46.1%	56.1%	37.4%	27.6%	26.7%	26.7%	39.6%
한국 문화콘텐츠 중 순위	8위/11개	9위/11개	8위/11개	4위/11개	2위/8개	1위/11개	1위/11개

한국 예능 경험률과 브랜드파워지수에 따른 국가 분류



4

OTT 중심의 K-콘텐츠 접촉 기회 확대 (드라마 사례)

[표 3-8] 권역별 한국 문화콘텐츠 접촉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BASE: 한국 문화콘텐츠별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접촉자, n=(), 단위: 중복응답%]

구분	전체	아시아 태평양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드라마						
사례수	(10,178)	(4,624)	(1,716)	(2,210)	(819)	(809)
넷플릭스(Netflix)	69.9	58.9	87.0	76.7	75.0	72.4
유튜브(YouTube)	62.6	64.9	55.8	55.5	72.3	73.7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	29.3	22.4	39.1	36.7	34.2	22.7
디즈니 플러스(Disney+)	23.2	23.9	21.7	22.7	26.7	19.9
유튜브 프리미엄(YouTube Premium)	18.1	16.8	19.2	16.8	23.3	21.6
아이치이(iQiyi)	15.2	27.5	4.4	3.4	8.8	6.1
유쿠(Youku)	11.2	15.8	6.7	5.8	11.8	8.7
뷰(Viu)	11.2	20.1	0.0	0.4	11.8	13.1
애플티브플러스(Apple TV+)	11.2	10.1	10.8	9.5	22.3	11.4
홀루(Hulu)	8.2	6.2	13.2	5.0	14.5	11.0
비키(Viki)	6.8	4.8	11.8	6.0	11.2	5.6
아이플릭스(iFix)	6.7	8.6	3.3	2.5	13.3	8.3
슬링 티비(SlingTV)	4.1	4.0	3.6	3.1	8.4	4.1

출처: 2023 해외한류실태조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5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량 변화 추이

[BASE: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자, n=(), 단위: 영화-편수/3개월, 그 외-시간/개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동락폭 (22-21)



출처: 2023 해외한류실태조사 (KOFICE, 2023)





오징어게임, K-드라마의 판을 바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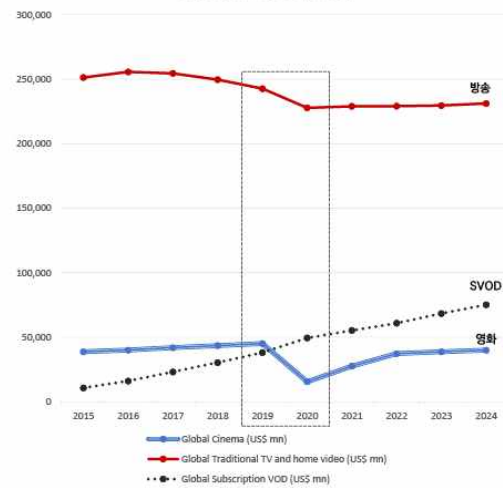


오징어게임, K-드라마의 판을 바꾸다

‘OTT(Over the Top)’ 서비스의 성장
방송-영화-온라인의 경계 약화



Traditional TV and Home Video,
Cinema, SVOD(OTT)



출처: PwC(2020)

10

오징어게임, K-드라마의 판을 바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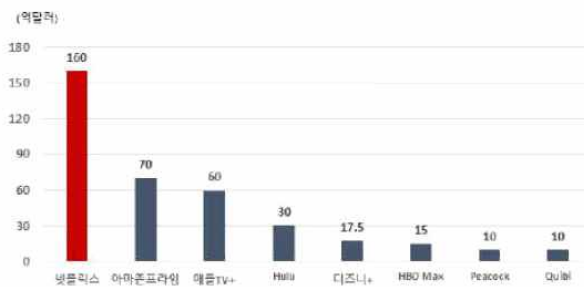
글로벌 OTT 전쟁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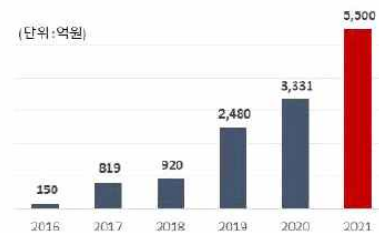
오징어게임, K-드라마의 판을 바꾸다

2020년 글로벌 OTT 콘텐츠 투자액



출처 : 김윤지, 수출입은행(2021). Statista, Forbes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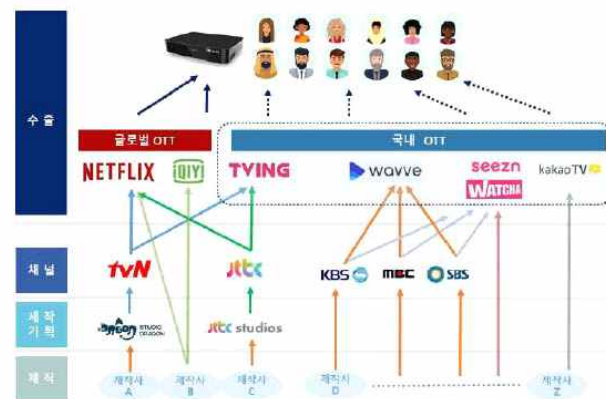


출처 : 김윤지, 수출입은행(2021). 넷플릭스

12

오징어게임, K-드라마의 판을 바꾸다

드라마 수출의 변화: OTT 기반의 글로벌 진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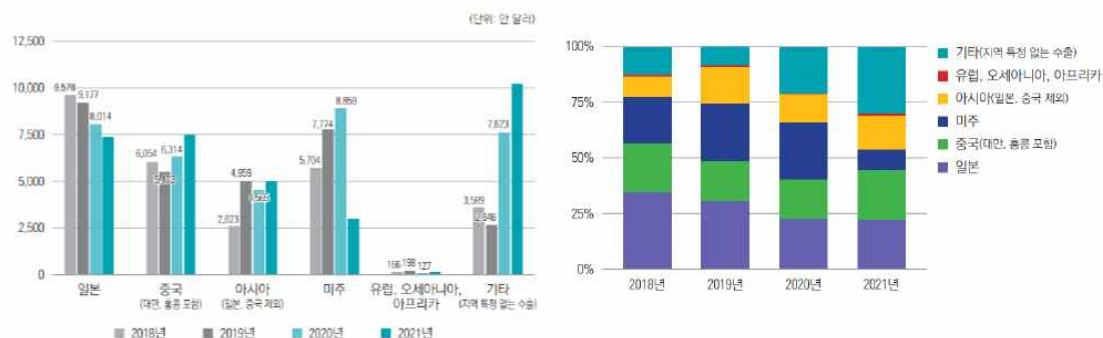
출처 : 김운지, 수출입은행(2021).

드라마 제작사와
글로벌 OTT의
직접 수출(제작)
계약 확대

13

오징어게임, K-드라마의 판을 바꾸다

방송 프로그램 국가별 수출액(좌), 수출비중(우) (2018~2021)



14

새로운 K-드라마의 등장

넷플릭스, 세상에 없던 K드라마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다

넷플릭스 이용자 데이터 기반과 세부 장르(altgenres)의 구분

- 마이크로 태그(microtag)를 통한 작품의 분류 전략

IP중심의 새로운 '영토'와 '국경' 형성

- 취향을 중심으로 모인 IP팬덤이라는 집단에게 소구하는 작품의 성과 확인



15

새로운 K-드라마의 등장

넷플릭스, 세상에 없던 K드라마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다

"보편적인 대중들을 만족시키기 보다는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리란 생각을 갖고 만들었다"

"저는 B급, 하위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지옥의 사자 등)이 하위 문화로 보이길 바랐다."

- 연상호 감독

"(넷플릭스의 전략은) 로컬에서 제작한 작품을 글로벌에서 시청하는 것"

-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

→ 글로벌 유통 역량을 바탕으로 '팬덤'을 가진 장르 기반의 새로운 작품에 대한 과감한 투자

: 한국에서 '장르물' 제작 기회 확대



16

새로운 K-드라마의 등장

장르x지역 : 팬덤 기반의 새로운 보편성의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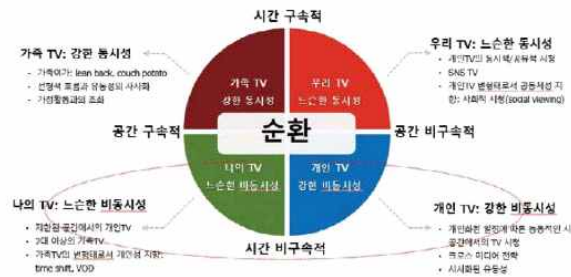


17

새로운 K-드라마의 등장

• OTT 콘텐츠의 특징

- ‘비동시적’ 시청의 시대, 새로운 ‘중심 콘텐츠’의 특징은?
 - 새로운 TV 시청의 흐름: 시간 비구속적 시청 → 개인의 취향 중심 소비 확대



출처: 임종수, 최세경(2016)

18

새로운 K-드라마의 등장

• 넷플릭스로 살펴본 OTT 콘텐츠의 특징

- 한국 드라마는 어떻게 넷플릭스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넷플릭스의 글로벌 현지화 전략: ‘권역별 장르 리더십에 대한 집중 투자’
 - (ex) 한국 - 드라마, 일본 - 애니메이션
 - 한국 드라마의 선택은 한류를 통한 지속적인 글로벌화 대형화 과정의 구조적 결과
- 넷플릭스 콘텐츠의 핵심 특징 (임종수, 2020)
 - 에픽 뷰잉(epic viewing, 서사극적 시청)
 - 일상적 ‘시사교양’ 콘텐츠 보다는 비일상적-영화적 콘텐츠에 대한 선호



출처: 넷플릭스

19

*넷플릭스 OTT서비스(2007) *아이치이 서비스(2010)	*NEW, 화제작이다 후지유치 (2014)	*방송사업자 특수관계자 관영재판 제재(2015.6.22)	*넷플릭스 국내 진출 (2016) *스튜디오드래곤 설립 (2016)	*사드배치 및 한한령 (2017)	*넷플릭스 '당당' 방영 (2019)
별에서 온 그대(2013) 제작: HB엔터테인먼트 *HB그룹 계열사, 제작 및 매니지먼트 국내방영: SBS 해외방영: 아이치이(중국) *중국 방영권 회당3천2백만원 제작비: 132억원	태양의 후예(2016) 제작: 스튜디오 앤 뉴 *NEW 계열사, 화제작 2대주주 국내방영: KBS 해외방영: 아이치이(중국) *중국 방영권 회당 3억원, 한중 동시방송 제작비: 130억원 *사전제작	미스터 션샤인 (2018) 제작: 화앤담픽처스 *스튜디오드래곤 자회사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CJ E&M 자회사 국내방영: tvN 해외: 넷플릭스 (글로벌) *글로벌 방영권 회당 12억원, 190개국 제작비: 430억원 *사전제작			
		20			

넷플릭스의 현지화 전략: 새로운 '글로벌 텔레비전' 시대 선택받은 장르들: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스토리텔링의 장을 넓히다: 넷플릭스, 도호 스튜디오의 방음 스튜디오 두 곳 임대

Teiji Ozawa
다국적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저임금인력난 日 애니 업계 구세주"

김형준 기자

2021년 12월 28일 09:00

일본 애니메이션의 日 애니 시장은 연간 2조원(22400억원)에 달한다. 한 세계 각지에는 몇몇 스튜디오가 있다.

일본 경제 신문 전자판 @nikkei

Netflix가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합니다. 6개월 동안 소규모 교육하고 1명 15만엔의 생활비 60만원 상당의 학비를 부담. 졸업생은 넷플릭스 독자적인 작품을 제작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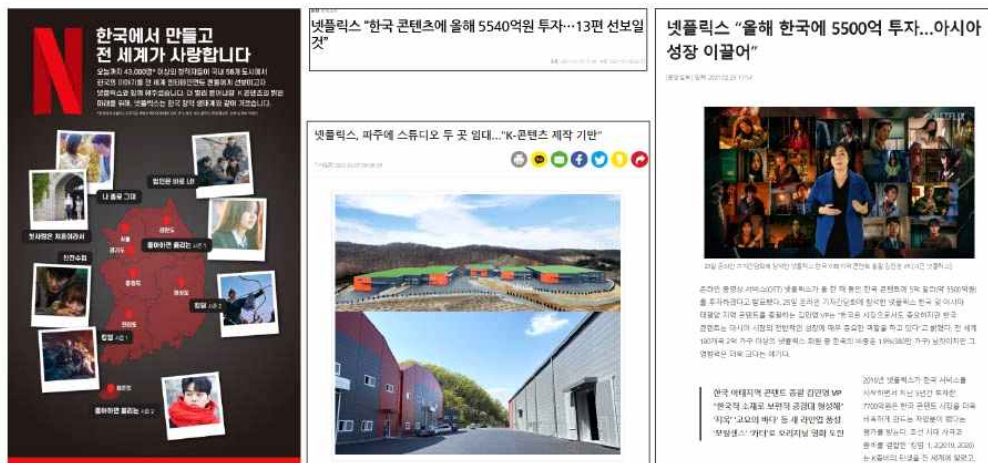
조도 번역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의 육성 지원
미국 동양권 전일 대기업의 넷플릭스는 12월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제1호를 맺고있는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 워트 스튜디오 (도호...
@nikkei.com

호전 8:38 · 2021년 12월 12일 · Sodalflow

넷플릭스의 현지화 전략: 새로운 '글로벌 텔레비전' 시대
선택받은 장르들: 한국 드라마



한국 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의 확장

한국 콘텐츠 소비가
다른 한국 콘텐츠 소비를 부른다

- 넷플릭스 프랑스에서 한국 콘텐츠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경우 미국 할리우드나 유럽 콘텐츠 보다 'K콘텐츠'를 더 많이 추천 받는 것으로 조사됨

동아일보 문화

佛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한번 보면 줄줄
이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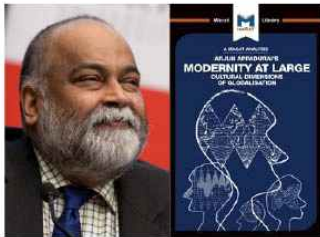
이소연 기자

서울대·파리1대학 공동연구팀 분석... '미스터 션샤인' '별에서 온 그대' 등
추천작 10개 중 9개가 한국 드라마... 日드라마 보면美작품 추천 더 많아
"넷플릭스, K콘텐츠 우수성 인정... 추천 시스템에 적극적 활용을 셈"

K-콘텐츠, 새로운 글로벌 대중문화의 서막을 열다

미디어스케이프의 글로벌화와 한국 영상 산업의 진화

*미디어스케이프(Mediascape)(아르준 아파두라이, 1996)



- 미디어스케이프는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레퍼토리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제공
- 미디어 산업의 디지털화로 인한 국가 간 경계의 약화로 새로운 '취향 공동체'의 형성
- 한국 영상 콘텐츠는 글로벌 미디어스케이프 변화 속에서 취향 레퍼토리의 위치를 확보

24

K-콘텐츠의 글로벌 성장과 새로운 고민

오징어게임 이후, '콘텐츠IP' 문제의 부상



출처: shop.netflix.com

25

2023 한국인문사회과학회 봄 학술대회

한류, 세계인의 문화가 되다

: 영상산업 변화를 통해 본 한류의 진화

감사합니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3.5.13

‘한’ 없는 한류: 한류 개념의 포용적 진화 가능성 탐구

김 규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 한국인문사회과학회 봄학술대회

‘한’ 없는 한류 : 한류 개념의 포용적 진화 가능성 탐구

2023. 5. 13.

김규찬 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연구본부
qchan@kcti.re.kr



01. 한류와 한국

K-콘텐츠, 한류의 위상

BTS와 같은 글로벌 슈퍼스타를 보유한 한국 대중음악의 저력

- 2012년 싸이 <강남스타일> 빌보드 2위
- 2018년 BTS *Love Yourself: Tear*, *Love Yourself: Answer*, 2019년 *Map Of The Soul: PERSONA*, 2020년 *Map Of The Soul: 7*, *BE* 5장의 앨범 Billboard HOT 200 1위
- 2019년 5월 미국 CBS talk show <The Late Show> 출연, Beatles 'Ed Sullivan Theater' 재현
- 2020년 Dynamite(3주), Savage Love, Life Goes On과 2021년 Butter(10주), Permission to Dance, My Universe 6곡이 Billboard HOT 100 1위 (2021년 AMA Artist of the Year 수상, 유엔총회 연설)
- 2022년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LAS VEGAS (4.8~4.16) 62만명(20+40.2) 관람, 5월 백악관 방문 바이든 면담, 11월 정국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축하



01. 한류와 한국

K-콘텐츠, 한류의 위상

탄탄한 내수시장을 토대로 해외에서 명성을 얻은 한국영화

- 2000년 이후 자국 영화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몇 안되는 국가
- <설국열차>(2013), <옥자>(2017, 넷플릭스), <기생충>(2019,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
- <올드보이>(2004), <친절한 금자씨>(2005), <아가씨>(2017), <헤어질결심>(2022, 칸영화제 감독상)
- <브로커>(2022, 칸영화제 남우주연상)



한류의 원조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K-드라마

- <사랑이 뭐길래>(1997/1998) 중국 CCTV1, <겨울연가>(2002/2003) 일본 NHK BS2
- <오징어게임>(2021) :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1위 콘텐츠, 달고나 인기, 2022 프라임타임 에미상 비영어권 최초 연출상(황동혁) 및 남우주연상(이정재) 등 6개 부문 수상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2022), <갯마을 차차차>(2022), <재벌집 막내아들>(2022), <더글로리>(2022/2023) 등 글로벌 OTT 흥행 지속



01. 한류와 한국

K-콘텐츠, 한류의 위상

전세계 어린이와 함께하는 한국 애니메이션/캐릭터

- 핑크퐁 <아기상어(Baby Shark Dance)> 122억뷰(2023.1 기준), 유튜브 역사상 최다 조회수, 기네스북 등재
- 2003년 남북합작 애니메이션으로 출발한 <뽀롱뽀롱 뽀로로>는 최근 시즌8 제작
- <꼬마버스 타요>, <로보카폴리>, <미니특공대>, <미라클러스 레이디버그>, <브레드 이발소>까지 세계 각국 어린이에게 꾸준한 인기



문화강국 : 문화를 통해 (정신적 →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국가

01. 한류와 한국

K-콘텐츠, Made in Korea(?)

구분	감독	주연배우	메인투자	제작사	언어	원작
<설국열차>	한국	한국+미국	한국	한국	한국어+영어	프랑스
<옥자>	한국	한국+미국	미국	한국	한국어+영어	
<브로커>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어	
<헤어질결심>	한국	한국+중국	한국	한국	한국어	
<미라클러스 레이디버그>	프랑스	-	프랑스	한국, 프랑스, 일본	-	일본
<오징어게임>	한국	한국	미국	한국	한국어	

01. 한류와 한국

K-콘텐츠, Made in Korea(?)

곡명	가수	작사	작곡	프로듀서	언어
<i>Dynamite</i>	BTS	David Stewart Jessica Agombar		David Stewart	영어
<i>Savage Love</i>	BTS Jason Derulo Jawsh 685	Jacob Kasher Hindlin Suga j-hope	Joshua Nanai Jacob Kasher Hindlin Phil Greiss		영어 한국어
<i>Life Goes On</i>	BTS	Pdogg, RM Ruuth, Chris James, Antonina Armato SUGA, j-hope		El Capitxn (장이정)	한국어
<i>Butter</i>	BTS	Jenna Andrews, Rob Grimaldi, Stephen Kirk RM, Alex Bilowitz, Sebastian Garcia, Ron Perry		Rob Grimaldi Stephen Kirk Ron Perry	영어
<i>Permission to Dance</i>	BTS	Ed Sheeran, Steve Mac Johnny Mc Daid, Jenna Andrews		Stephen Kirk	영어
<i>My Universe</i>	Coldplay BTS	Bill Rakho, Chris Martin, Guy Berryman J-Hope, RM, Suga, Jonny Buckland, Max Martin, Oscar Holter, Will Champion		Bill Rakho Max Martin Oscar Holter	영어 한국어

01. 한류와 한국

K-콘텐츠, Made in Korea(?)

동아일보

2019-07-09 15:09:00 편집

영국문화 | K-문화

"아이돌 안무가 아니라 한 편의 뮤지컬" 극찬받은 BTS 안무가
'시에나 라라우'



1984년 세계적인 안무가가 된 시에나 라라우는 '세계가 계속 춤을 출 수 있도록'을 목표로 '무용'을 연구, 이들을 바탕으로 모든 K-POP 시대를
메가 히트 데뷔곡이라는 찬사를 주고 있다고 한다. 시에나 라라우는 현재 20대.

01. 한류와 한국

K-콘텐츠, Made in Korea(?)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제2조 3호)
-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제2조 4호)
-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는 자는 해당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물적 요소나 해당 영화의 예술적·기술적 특성이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27조 1항)

대부분	소부분	배점
언어(10점)	촬영언어	10점
소재(5점)	소재의 한국적 연관성	5점
예술성(15점)	한국 영화 발전의 기여도	10점
	예술적 성취도	5점
창작자(16점)	감독	10점
	시나리오	5점
	각작가	1점
배우(18점)	주연	10점
	조연 및 단역	8점
	조연출 및 연출부	3점
	촬영 및 촬영부	3점
	행정 인력 및 제작부	2점
	편집	1점
제작참여자(15점)	사운드	1점
	미술	1점
	세트	1점
	분장	1점
	조명	1점
	특수효과	1점
	영화 스태프	4점
참여인력(6점)	기타 제작 참여인력	2점
촬영장소 (3점)	촬영장소	3점
사운드 후반작업(5점)	믹싱 등	5점
이미지 후반작업(7점)	VFX, DI, CG 등	7점
계		100점

01. 한류와 한국

K-콘텐츠 수출(?)

해외에서 발생한 국내 기업의 유튜브 수익은 수출인가? (예: 핑크퐁 아기상어)

- 수출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관세법, 대외무역법)
- 구글·앱스토어 입점 게임기업 매출액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로 인정(2010년)
-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협회 등 유튜브 매출 발생 기업에 수출실적확인서 발급(2022년)

대외무역법 시행령 :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대외무역관리규정 :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등을 말한다.

1.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를 포함한다)
2. 음향·음성물
3. 전자서적
4. 데이터베이스

02. 문화콘텐츠의 흐름과 한류

문화콘텐츠 흐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

- 문화산업의 양적, 질적 발전 정도의 차이에 따라 문화의 국제적 유통에서 불균형과 종속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론
- 선진국의 문화산업과 이들이 생산하는 문화콘텐츠는 제3세계 국가의 고유한 지역문화를 말살하고 전 지구적인 문화의 동질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았음

문화제국주의론에 대한 비판과 사례

- 위계적 구조 관점에서 탈중심적 구조로 전환
 - 남미(텔레노벨라), 인도(발리우드), 한국(한류) 등 문화 흐름의 '역유통' 사례 증가
- (사례) <전사들의 합창>

<https://youtu.be/eujobQOOvnY>



02. 문화콘텐츠의 흐름과 한류

문화콘텐츠 흐름에 대한 이론적 논의

혼성화(混成化, hybridization)

- 서구 글로벌 문화의 확산으로 지역 고유 문화가 대체되기보다는, 문화 간 충돌과 교류, 교섭 과정을 통해 상호 영향을 주어 문화적 융합 현상이 나타남

세방화(世方化, glocalization)

-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은 지역 문화에 친숙함을 느끼는 수용자의 취향과 지역 미디어와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역화/현지화 전략 채택 (넷플릭스?)

글로벌 문화의 복합적 이해(Appadurai, 1996; 이성민, 2022 재인용)

- 전지구적 문화 흐름은 5가지 정경(scape) 간 상호작용을 통해 복합적으로 형성
- 민족정경(ethnoscape), 기술정경(technoscape), 금융정경(finanscape), 이데올로기정경(ideoscape), 미디어정경(mediascape)

02. 문화콘텐츠의 흐름과 한류

한류의 정의와 지형

한류의 정의

- (코피츠/18년) 대중문화 콘텐츠가 해외 소비자에게 의해 소비되고 한국의 것으로 인식되는 문화열풍 또는 문화현상
- (문광연/20년)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 및 상품을 자발적으로 선호, 소비, 구매하는 소비행동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의 인기나 유행과 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
-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요소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
- (법적 정의)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요소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한류산업발전 진흥법 제정안)



03. 한류 개념의 확장

한(韓)이란 무엇인가: 한류의 속성

한국적인 것(Koreaness)을 찾기 위한 노력 = 국가상징 관점

100대 민족문화상징(문화부, 2006)

한-스타일(문화부, 2007)

-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

21 Icons of Korean Culture(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비무장지대(DMZ), 금강산, 서울, 경주, 제주도, 평양, 백두산
-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김치, 비빔밥, 태권도, 아리랑
- 팔만대장경, 한복, 한옥, 불고기, 고려인삼, 판소리, 굿, 효(孝)

국가상징 소재 의미 연구(문화부, 2015)

- 태극, 무궁화, 한글, 한복, 한식, 한옥, 태권도, 아리랑, 한지, 호랑이

[illegible]

03. 한류 개념의 확장

한(韓)이란 무엇인가 : 한류의 속성

(이슈1) 한류의 시간성

- 역사성의 문제 : 광화문 vs 강남, 아리랑 vs K-POP
- 고유성의 문제 : 비빔밥, 김치 vs 자장면, 떡볶이
- '우리 것'의 인정 기준 : 100%, 50%, 30%, 10% (feat. 한국영화의 인정 기준, 공예의 인정 기준)

(이슈2) 한류의 공간성

- 가시성의 문제 : 저작권자와 실연자, 원작과 제작자의 국적 (싸이 vs SB19)
- 의존성의 문제 : 성공의 판단 기준 (동남아, 동아시아 vs 유럽, 미국)

한국 없는 한류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한류의 내재적 의미에 대한 고찰

=>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Netflix CEO Reed Hastings
"아시아가 함께 만들고 세계가 함께 본다"

03. 한류 개념의 확장

류(流)란 무엇인가 : 한류의 방식

흐름과 물결

- 방향성 :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flow)
- 역동성 : 올라갔다 내려갔다(wave)

쌍방향 교류를 위한 노력

-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오랜 우려
- 민간 중심의 국제문화교류기구 설립(2003년)
- 문화부 '국제문화교류 중장기 정책 비전'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정 추진(2004년)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기술)의 적절한 활용 => 한류 성공에 기여

- 공급 관점 : 우수한 인력과 풍부한 자본 (양질의 콘텐츠 생산)
 - 수요 관점 : 경제 성장에 따른 새로운 문화 수요 확대 (다양한 콘텐츠 소비)
 - 매개 관점 : 글로벌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의 활성화
- * 방시혁 "기술의 가치는 콘텐츠로 증명된다" (인공위성과 유튜브)

03. 한류 개념의 확장

류(流)란 무엇인가: 한류의 방식

(이슈1) 한류의 방향성

- 주체성의 문제 : 한류 현상의 주체에 대한 고민 (창작자, 소비자)
- 자발성의 문제 : 팬덤의 형성과 유지, 파급효과

(이슈2) 한류의 지속성

- 확장성의 문제 : 한류 현상의 유지 기간과 지역
- 상호성의 문제 : 한류 대상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선호 (동남아 음악 듣기)

한류의 외재적 의미에 대한 고찰 : 자부심에서 이해와 포용, 배려로

04. 한류 개념의 포용적 진화

‘한류 대상국’에 대한 적극적 이해 필요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열린 시각

- 근대 국민국가,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
- 개념의 유연성과 상대성, 복합성을 인정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

배타적 한류에서 포용적 한류로

- ‘우리 것’의 소유권과 우수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 지양
- 한류를 국가적/수직적 현상이 아닌 지역적/수평적 현상으로 이해
- 특수성보다 보편성에 대한 이해와 접근으로 한류의 외연 확장

글로벌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제고 노력

-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종, 종교 등 타 국가의 문화적 요소와의 충돌로 인한 문제 제기 증가
- 서구권 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역사-사회적 맥락 이해 필수 : 한류 주요 소비국가(중국,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아는가

04. 한류 개념의 포용적 진화

‘한류 대상국’에 대한 적극적 이해 필요

경향신문

노라조 조빈, 대표곡 ‘카레’ 인종차별 논란 사과...발표 10년 만에 왜?

대영진 기자 yjnews@khan.com
2018.07.16 15:24 입력 · 2018.07.16 11:13 수정



그들 노라조의 대표곡 '카레'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노라조 조빈은 "10년 전에 발표한 '카레'는 인종차별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카레'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카레'는 '카레'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007161524001>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35616?cde=news_edit

문화다양성 훼손 논란 빚은 K콘텐츠

여름 '장사전제 백종원' (2023년 4월) 오로로 영도 표기에서 서사하라 지역 생략 ● 국가 정체성 훼손 논란 ● 다시보가서 지도 표기 삭제	드라마 '작은아씨들' (2022년 10월) '한국군 1명 베트남 100명 죽어' ● 국가보훈, 전쟁 역사 왜곡 논란 ● 베트남 네티즌들 '수출' 폭탄 베트남 방송 프로그램 수출 반도막 (2019년 440만 달러 → 2021년 243만 달러)
드라마 '수리남' (2022년 9월) '수리남 대통령이 미약 유동 목탄' ● 국가 도덕성 훼손 논란 ● 수리남 정부 '재무사상대 법적 대응 검토'	드라마 '라켓소년단' (2021년) '인도네시아가 베트남 국경 경비 위해 동맹을 맺는 것'을 묘사 ● 국가 비하 논란 ● SBS 사과 인도네시아 K팝 음반 수출액 3분의 1 증가 (2019년 959만 달러 → 2022년 368만 달러)
유비 블랙핑크 '하루 유 라이크 댓' (2020년) '원투 신 중 하나인 가내사 이미지 사용' ● 신성한 종교적 상징 잘못 쓰여 논란 ● 유튜브 삭제 인도 K팝 음반 수출액 반토막 (2021년 33만 달러 → 2022년 13만 달러)	

Q & A

제4부 주제 발표 (2)

- ▷ 한류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 ▷ K-pop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멀티리터러시 교육

한류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 신개발주의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류의 역사와 미래 전망 -

정 종은(상지대학교)

한류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신개발주의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류의 역사와 미래 전망-

정종은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Contents

- 1 들어가며: 문화, 문화정책 그리고 한류
- 2 김대중정부의 신개발주의 문화산업 정책과 한류
- 3 한류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
- 4 한류의 경쟁우위는 지속될 것인가?
- 5 나가며: 창조성의 시대, 새로운 한류 정책의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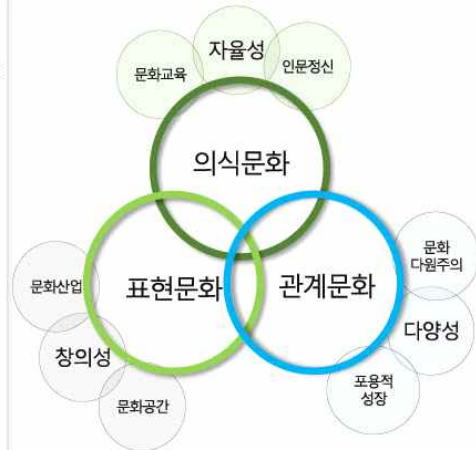
2

1 들어가며: 문화, 문화정책 그리고 한류

문화란 무엇인가?

“살되 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
인간 공동체가 만들어낸 비발생적인 행위의 총체”

-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 ✓ 인간과 문화에 관한 근원적인 성찰을 하는 학문
 - ✓ 문, 사, 철로 대표되는 학문의 분과
- 그렇다면 문화란 무엇인가?
 - ✓ 평가적(evaluative) 정의: 인간의 지적, 정신적, 미적 성취의 최고봉(sector)
 - ✓ 기술적(descriptive) 정의: 인간 공동체가 만들어온 삶의 양식(style)
 - ✓ 두 가지를 결합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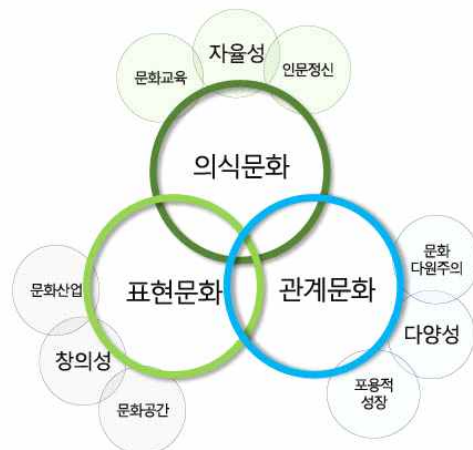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4

정책이란 무엇인가?

“공익추구와 공공문제해결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행복 증진을 이루기 위한, 권위있는 정부의 공식적 전략”

- 의식문화: 개인의 자율성 증진
- 관계문화: 사회의 다양성 증진
- 표현문화: 개인과 사회의 창의성 발현
- 의식문화 정책: 문화정책관
- 관계문화 정책: 지역문화정책관
- 표현문화 정책: 예술정책관, 콘텐츠정책관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5

문화도시 정책/창조도시 정책 부상의 배경

1. 문화사회

'시민기획위원' 프로그램

노동시간을 줄이고 직무 공유를 통해 실업을 줄이는 것이 핵심.

노동시간 ↓ 자유시간 ↑

사람들이 소비사회의 물질적 욕구에 포화되는 것이 아닌 각자의 내적 욕구를 실현하는 문화를 영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문화생활 확대, 문화산업 성장

사회를 정치경제문화의 삼분 모형으로 파악했을 때 정치와 경제는 문화를 위한 구조적 수단, 문화회는 역사 발전의 필연적 경향

자립적 생활예술경제 형성

정부나 기업의 자원에 기대지 않고 시민들이 스스로 생산·소비하여, 확대 재생산하는 경제 수립

1985년 시작 된 유럽문화도시 사업

매년 유럽의 도시들 중 한곳으로 '유럽문화도시' 지정, 전체 유럽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 1999년 '유럽문화수도'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유럽문화도시를 더욱 강화

문화도시의 기본원칙

유럽의 도시들은 자연과 역사를 지키고, 주민들을 존중하며, 예술적 수준으로 건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1980년대 초 뉴욕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여 큰 성과를 이룬

문재인 정부

한국의 지역 쇠퇴의 핵심에는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가 자리하고 있음
한국의 지방 중소 도시가 최고의 모범으로 삼고 배워야 할 곳은 작은 크기와 낙후 상태를 문화도시로 혁신한 유럽의 도시들임

2. 문화도시

3. 창조도시

1997 영국과 유럽 창조산업

문화라는 결과보다 그것을 만드는 과정인 창조를, 그리고 그것의 원천인 창조성을 강조하는 것임 창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주체인 사람들의 생각과 활동을 더욱 더 강조하게 됨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이런 변화는 더욱 강화될 것임

자치구별 생활예술 지도작성

창조도시는 1990년대 후반에 창조산업/창조경제가 널리 확산되며 도시의 혁신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떠오르게 되었음

유네스코의 창조도시에 대한 관심증가

유네스코는 창조도시에 대한 큰 관심을 적극 수용해서 2004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만들었음 현재 7개 영역에서 72개 국의 180개 도시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6

쿨 브리타니아 & The Creative Turn

- 1997년 신노동당 정권 (대체 주도의 신자유주의 시대가 18년 만에 막을 내림)
-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기 위한 표제어로서 Cool Britannia를 사용
- 국가유산부를 문화매체스포츠부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로 확대 개편
- 신설 문화부가 '쿨 브리타니아'란 흐름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육성 및 홍보한 새로운 기획이 바로 '창조산업 정책' (Creative Industries Policy)
- '창조성'과 '창조산업' 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담론이 문화정책의 각 분야에서 중심적인 의제로 등장.



7

창조성 담론의 부상

“영국에서 **창조성에 관한 담론**은 지난 십 년간 정부가 개발해 왔으며, 현재는 ‘창조경제’라는 개념화로 연결되고 있다. 관(官)적인 사유는 그것이 점증적으로 일관성을 향해 추동되고 있는 자기지속적인 조망이라는 의미에서 담론적이다. 그것은 주창자들에게 의해 끊임없는 옹호의 대상이 됨으로써 **하나의 독트린**이 되었다. 이제 그것은 정책입안자와 대화에 돌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의무적인 출발점이라고 하겠다.”

(Schlesinger, 2007: 378)

8

프랑스의 독트린에서 영국의 독트린으로

“[창조성, 창조산업, 창조도시, 창조경제 등의 논변들은] **타이완, 중국,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과 같은 나라들에서 부상하고 있는 문화정책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한다. 물론 이는 WTO 멤버십이라는 상품과 전지구적 경쟁력이라는 약속에 따라서 추동되고 있다. 국가의 창조산업이 전 지구적 창조경제 속으로 흡수되면서, 신자유주의적 가정이 과거의 이데올로기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프랑스의 ‘문화적 예외’(exception culturelle)**는 집결되고 있는 합의에 위협받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반항으로 간주되는 듯하다.”

(Bilton, 2007: 169)

9

그리고 이어진 한류의 부상

구분	내용
1) 주체	한국 대중문화(한국에 관련된 것들로 확장)
2) 본질	해외에서 인기 획득(아시아에서 시작하여 유럽과 북미로 확대)
3) 과정	대중적 기반으로서 팬덤을 형성하여 지속성을 발휘
4) 이유	정부 정책, 하이브리드 상품, 팬덤을 통한 초국적 유통, 세계인들의 기호에 소구 하는 등 다양한 요인

<작업가설적 정의>

- 한류(Korean Wave)란 21세기 들어/ 대중문화를 필두로 한 한국 문화가 / 아시아에서부터 북미와 서유럽에 이르기까지 유행을 하면서 /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여 지속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현상을 말한다.

(출처: 정종은, 2022)

10

2

김대중정부의 신개발주의 문화산업 정책과 한류

동아시아 개발국가 모델이란? 〈Developmental State〉

- 1960년대 초반 일인당 국민소득이 백 달러에 미치지 못하던 한국
- 2007년 국민소득 이만 달러를 돌파하는 데는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 모델'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
- 차머스 존슨(1982)이 전후 일본 경제의 성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본 국제무역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주조해낸 개념
- 한국과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등 홍콩을 제외한 동아시아 세 마리 용의 산업화 과정에 대한 설명에도 적용되어옴(e.g. Amsden, 1989; Wade, 1990; Woo, 1991; Evans, 1995; Woo-Cumings, 1999)
- '경제 발전'을 최상위 목표로 삼고 '계획-합리적 국가'(plan-rational state)를 구성
- 구소련의 스탈린주의 국가, '계획-이데올로기적 국가'(plan-ideological state)와
- 영미의 조절국가, '시장-합리적 국가'(market-rational state) 사이에 위치하는 **혼합 모델**
- 이 모델의 핵심은 공적인 시스템과 사적인 시스템 사이의 '시너지적 연결'을 생산해내는 '**통치 받는 시장(governed market)**'이라고 할 수 있음(로버트 웨이드, 1990)

12

개발국가 문화정책의 네 가지 특징

- (1) 문화 시설 및 관련 법/제도의 급속한 **개발**
 - 공연법 제정(1961), 영화법 제정(1962), 문화예술진흥법 제정(1972), 문화예술진흥 5개년 계획 발표(1973), 제2차 5개년 계획 발표(1978), 문화예술진흥원 설립(1973), 영화진흥공사 설립(1973) 등
- (2) 그러나 문화의 개발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식품(add-on)**
 - 즉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로서 보여주기식 성과였음. 오히려 중요한 것은 '문화 공보부'에 의해서, 체제의 정당화 및 통합을 위해서 권위주의적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축매제의 역할에 정위되어** 이루어진 것임(Kim, 1988: 27)
- (3) 전통문화와 유치 산업의 발전을 위한 **보호**
 - 공연법(1961)과 영화법(1962)은 해외 문화 상품의 수입에 대한 허가제를 골자로 담고 있었으며, 이는 명목상 한국의 문화정체성과 고유의 예술/문화산업의 기반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음
- (4) 그러나 이러한 보호는 통제와 **검열**을 위한 고립이었음
 - **엄격한 검열을 정당화하고, 해외와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제하여** 해외의 자유로운 콘텐츠의 수입이 저항 정신을 고취할 것을 우려한 데서 비롯된 성격이 강함(Park, 1988; Shin, 1988)

13

개발국가 문화정책의 종말: 1997년의 두 사건

<아시아 금융위기,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 신개발주의 연대의 출현>

- 1980년대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한국의 **개발주의 연대(developmental alliance)**가 공식적으로 종언을 고한 해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최초의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났던 1997년!
 - 개발연대와 대척점에 섰던 **분배연대**가 정권을 잡으면서, 신개발주의 연대 출현
- (1) DJ 자신과 그가 오랫동안 동고동락해온 정치적 심복들 (e.g. 박지원, 김성재 등)
 - (2) 문화부의 공무원들을 필두로 하여 사법부와 입법부에서 문화산업에 관한 전향적인 자세를 이끌어낸 공직자들 (e.g. 오지철, 임병수, 유진룡 등)
 - (3) 민간전문가들로서 DJ의 문화분야 공약에 참여한 후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을 주도한 영화계의 젊은 인사들이나 게임산업지원센터를 개설한 후에 이를 모델로 훗날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책임진 콘텐츠업계 전문가들 (e.g. 문성근, 이창동, 김혜준 & 서병문, 이정현 등)
 - (4) 영국 창조산업 정책을 수입하여 창의한국을 이끈 연구자들 (e.g. 김문환, 양현미 등)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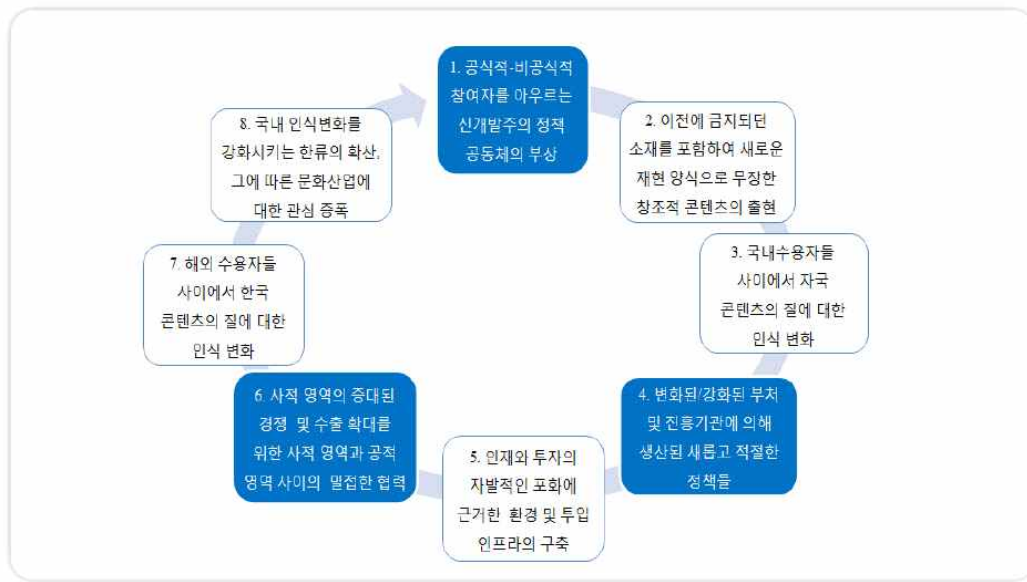
신개발주의 문화산업 정책의 프레임워크

‘팔길이 원칙’과 문화의 ‘국가 기간산업화’ 비전의 단계적 발전 논리

문화산업 관련 국가혁신시스템(NIS) 건설				
전략	협력적 거버넌스 전략	포괄적 인프라 전략		상징적 개입 전략
내용	문화산업정책 현장에 새로운 양식의 거버넌스 체계 도입	환경 인프라와 투입 인프라를 포괄하는 새로운 종류의 인프라 건설		문화산업 가치사슬에 새로운 양태의 개입 실행
활동	1. 민주적인 방식으로 문화산업정책 공동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연결망을 구성	2.1 환경 인프라 건설 (i.e. 법과 제금 체계, 카피라이트, 정책연구 등)	2.2 투입 인프라 육성 (i.e. 인적, 기술, 재정, 물적, 정보 인프라 등)	3. 각 산업장르의 생산-유통-국내시장-해외시장 단계에 전략적으로 개입
기초	제 3의 길: 병행발전론		제 3의 물결: 정보화혁명론	
논리	사회적 자본: 창조성의 부정적 강화		창조적 자본: 창조성의 긍정적 강화	
모토	팔길이 원칙		문화산업의 국가기간산업화	

15

한류 형성기의 선순환 구조



16

한국 문화산업의 비약적인 수출증가 (1998-2007)

(단위: 백만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Publishing	216.8	251.1	275.4	281.9	215	149.7	182.2	191.3	184.9	213.1
Comics	-	0.29	0.37	0.68	0.82	4.1	1.9	3.3	3.9	4.0
Music	8.6	8.2	7.9	7.4	4.2	13.3	34.2	22.3	16.7	13.9
Games	82.3	107.6	101.5	130.5	140.8	181.6	387.7	564.7	672	781
Film	10.1	14.3	16.5	21.2	25.5	31	58.3	76	24.5	24.4
Animation	85	81.7	85	121.4	89.2	75.7	61.8	78.4	66.8	72.8
Broadcasting	10	12.7	13.1	18.9	28.8	42.1	70.3	121.8	133.9	150.9
Advertising	-	-	-	-	-	-	20.8	9.3	76	87.2
Character	-	65.8	69.2	76.9	86	116.3	117.3	163.7	189.4	202.9
Edutainment	-	-	-	-	-	16.9	4.9	5.2	5	5.2
TOTAL	412.8	541.7	569	658.9	590.3	630.7	939.4	1,236	1,373.1	1,555.4

출처: Cug(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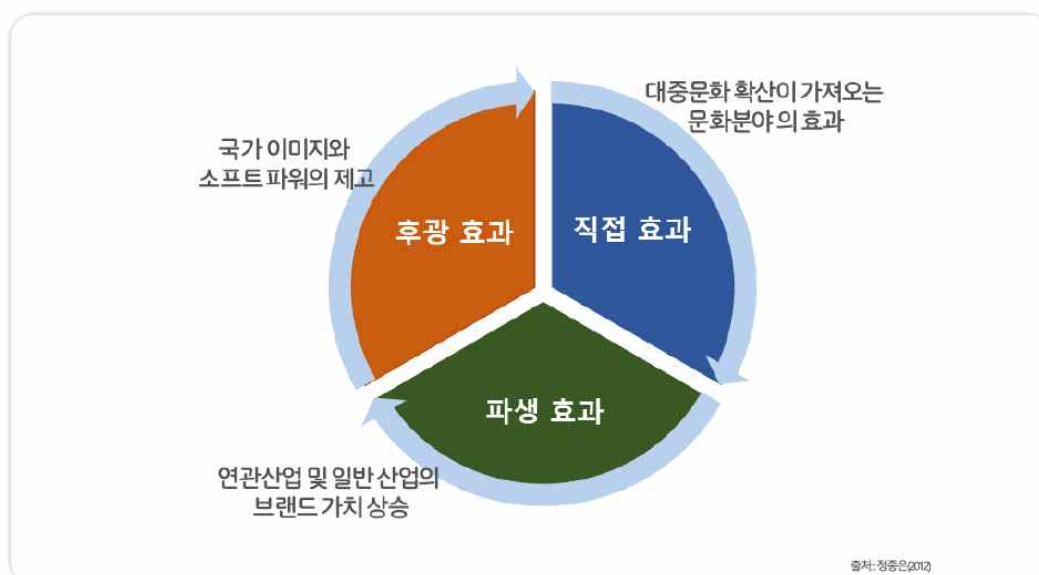
17

한류의 파급 효과

구분	연구 주제
황인석 외 (2008)	한국 대중음악 만족도가 한국 호감도 및 한국 문화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오준호 외 (2009)	영상과 게임 콘텐츠 수출이 기업 수익에 미치는 영향 (유의미한 영향을 검증 하지는 못했으나, 관련 영향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제시)
한충민 외 (2011)	한류가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중국 시장 분석, 한류를 통한 국가 이미지 형성의 영향력은 "개별기업의 브랜드 광고 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음"을 지적. "많은 비용을 들여 브랜드 광고를 하기 보다는 한류 스타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노력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더 효율적"이란 결론)
서병문(2012)	한류의 다양성과 글로벌 확산을 위한 방법론 고찰(전반적인 현상 및 효과 확인)
최문성(2012)	한류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효과(기본모형 및 수정모형 모두에서 한국의 수출에 있어 한류는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한류의 진행단계에 따라 수출 증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류의 진행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수출효과가 있음을 확인)
유경진 외 (2014)	중국인들의 K-POP 이용이 한국과 한류에 대한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긍정적)
이원준 외 (2016)	한류에 대한 만족도가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중국 대상 조사로 한류 만족도는 한국의 문화 이미지와 경제 이미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다시 방문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굴누르 외 (2016)	한국 국가이미지와 한류의 영향에 따른 한국 제품 구매의도 분석(국제마케팅측면에서 카자흐스탄에서 한류의 효과를 강조 하면서, 기존 한국의 경제적 이미지 보다는 한국의 문화, 무형의자산 등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이 카자흐스탄에서 더욱 구매 의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결론)
김도희, 박병진 (2016)	한류콘텐츠 경험이 국가 이미지, 한류콘텐츠 만족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유행 신한류 잠재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한류 콘텐츠 경험은 아직 그들의 국가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류콘텐츠경험과 국가 이미지는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또한 한류콘텐츠의 소비자 만족은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반티꺼민, 전범수 (2021)	한국 및 한류 스타 이미지가 베트남 여성들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베트남 여성들의 한국 이미지가 한국 영상 콘텐츠 이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고찰하여, 역으로 한국 이미지가 한국 콘텐츠 이용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임)

18

한류의 효과: 세 가지 층위



19

3

한류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

마.침.내.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 2021년 7월 역사상 최초로, UNCTAD에서 대한민국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선진국' 진입

대중문화 한류가 없었다면,

방탄소년단 '빌보드 200' 순위

2016년 12월	화양연화 pt.2	17위
2016년 5월	화양연화 영 포에버	107위
2016년 10월	윌스	26위
2017년 2월	유 네버 워크 얼본	61위
2017년 9월	러브 유어셀프 송 워	7위
2018년 5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1위
2018년 8월	러브 유어셀프 결 (연서)	1위
2019년 4월	멜로브 더 스타: 메르소니	1위
2020년 2월	멜로브 더 스타: 7	1위

출처: 빌보드



그리고 방역 한류가 없었다면,
UNCTAD의 만장일치 합의가 가능했을까?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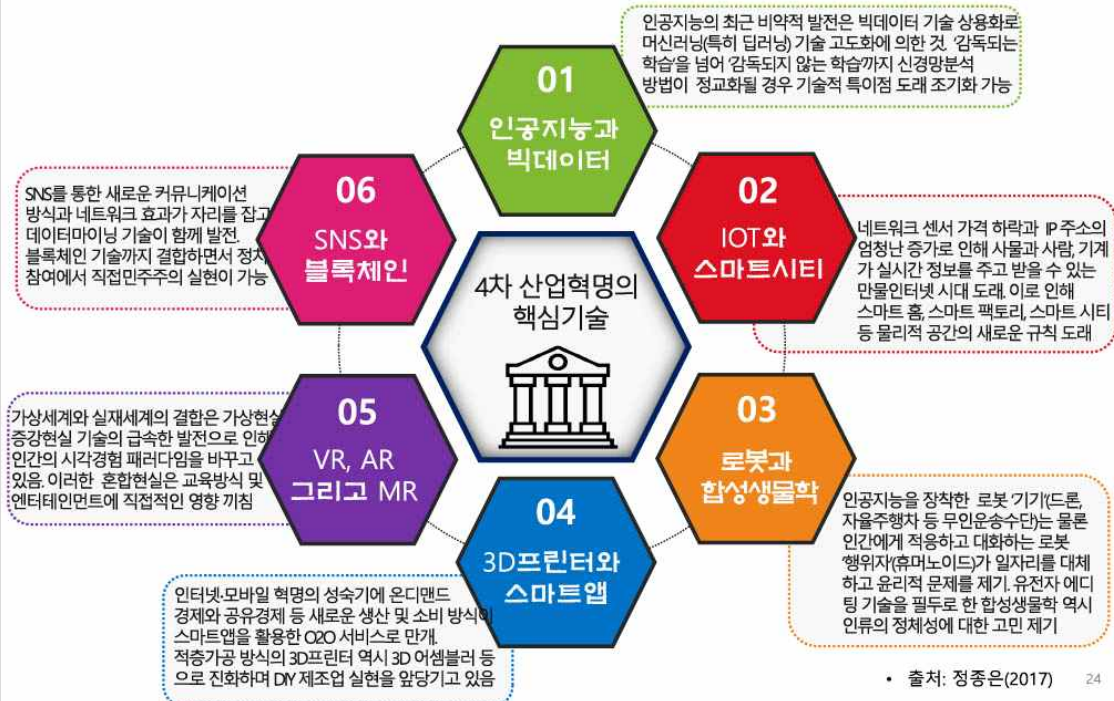
코로나, 엄청난 강도와 속도, 범위와 규모를 과시한 팬데믹



14세기 중엽 흑사병 - 유럽 인구 1/3 가량 사망 - 중세 봉건제 붕괴 및 르네상스 시대 개막 주요 계기	1929년 대공황 3-4년 사이에 GDP 25% 하락 - 기업, 은행 등의 연쇄 파산과 유례없는 실업률
1,2차 세계대전 - 국가간, 대륙간 전례 없는 장기적/파괴적 전쟁 - 기존의 세계 질서를 붕괴시키고 냉전 시대 초래	1997/2008년 금융위기 - 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한 개발국가 모델의 침식 - 미국발 금융위기로 G20 정상회의 탄생의 계기

23

코로나가 4차 산업혁명을 현저하게 앞당기는가?



24

핵심기술군의 변화가 추동하는 사회문화적 문법의 변화

- 4차 산업혁명의 범위, 규모, 강도, 속도 ->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규정하려는 노력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융합하는 속성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정책을 고민하고 탐색하려는 관심에 비추어 볼 때 다음의 국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출처: 정중은 (2018)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화정책 이슈와 과제, <지역과문화>

25

지난 20년 한류의 역사적 전개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개시 년도	1997	2003	2010	2017	?
팬덤 지역	중국, 동남아	일본, 중동, 남미 확산	북미와 유럽 진입	글로벌 팬덤 구축	글로벌 팬덤 심화
주도 분야	드라마 K-POP	드라마, 영화	K-POP	K-POP, 드라마, 영화	한국문화와 연관산업
대표 콘텐츠	사랑이 뭐길래	겨울연가	도깨비, 별그대	사랑의 불시착, 오징어게임	?
	HOT	보아, 동방신기	빅뱅, 2NE1	BTS, 블랙핑크	?
	엽기적인 그녀	올드보이	부산행	기생충	?
구분 기준	최초 한국 팬덤 형성	최초의 선진국 진출	K-POP 팬덤 프로슈머화	선진국 시장 1위	Beyond-K 시대 진입

(출처: 정종은, 2022)

* 대표콘텐츠의 ?-?-? : 1억 5천만 한류 팬과 730만 재외동포들이 한국문화의 진정한 '주체'로 작용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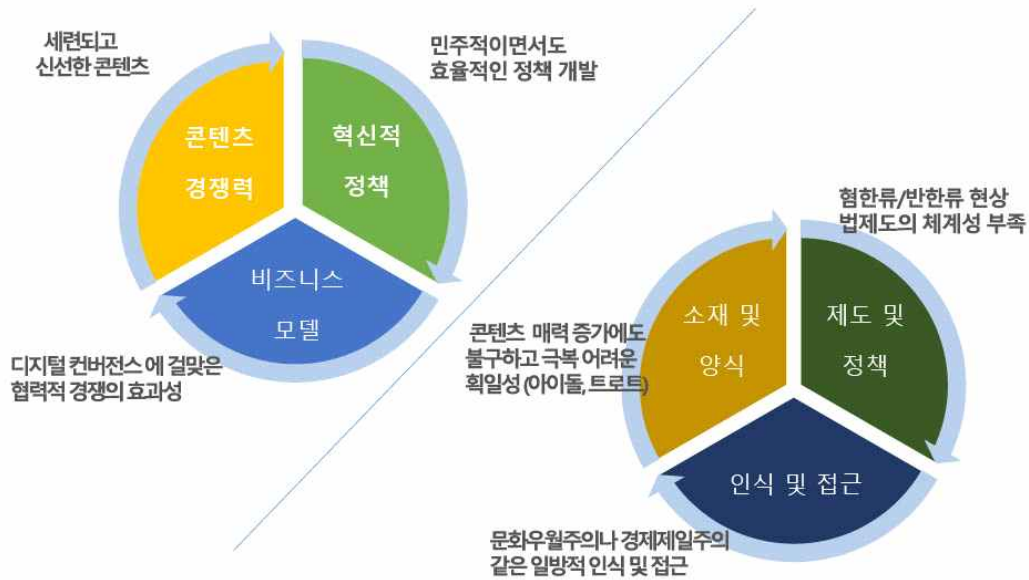
한류의 성공 요인은?

구분	연구 관심	핵심요인
제혜금 (2018)	전반적 요인	1) 국제적 마인드와 전문성 갖춘 프로듀서 및 아이돌, 2) 동서양 고유의 특징을 고루 갖춘 콘텐츠, 3) 한국정부의 정책적인 한류 육성, 4) 대외 수요의 급증, 5) 디지털시대의 조응
김정수 (2014)	전반적 발생 및 성공 요인	1) 내적 요인: 한국 대중문화의 경쟁력(콘텐츠의 매력, push), 2) 외적 요인: 동아시아 국제환경의 변화(문화적 진공상태, pull), 3) 개인적 요인: 소수의 열정적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기업가, 4) 정책적 요인: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 5) 기술적 요인: 디지털 소셜 미디어의 확산
조병철외 (2013)	급속한 확산 요인	(3단계 요인) 스마트 환경의 변화와 소셜 미디어의 확산
임성준 (2013)	경영학적 특수성 요인	1) 애초 글로벌 시장 겨냥 기획, 2) 조기발굴 통한 체계적 인재 육성, 3) 글로벌 검증 인재를 동원한 프로듀싱, 4) 음악산업의 디지털화 적극 활용, 5) SNS를 통한 팬덤 조성, 관리 능력, 5) 360도 매니지먼트와 스타 시스템 등 경영 역량, 6) Freeeconomic 등 새로운 BM 적극 활용
김종호, 김필수 (2015)	문화접변 경쟁력 요인	1) 콘텐츠생산의 규격화, 2) 스타경쟁력, 3) 전달매체와 전파수단의 경쟁력 향상, 4) 한국의경제력 강화와 아시아 국가들의 글로벌화, 5) 한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과 문화수용의 적합성, 6) 아시아 지역 대중문화시장의 빠른 성장
황순학 외 (2016)	콘텐츠 자체 경쟁력 요인	1) 주인공과 스토리의 현실성 및 접근성, 2) 서구의 형식과 동양의 전통을 조합한 세련된 인간미 제시, 3) 화면, 음악, 주제면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예술성
정종은 (2013, 2016)	문화정책의 역할	1) 신개발주의 정책을 통한 검열 폐지 및 진흥 정책, 2) 창조적인 인재 집결 및 활동을 통한 국내 시장 성장, 3) 인식 전환 콘텐츠 출현 및 경쟁력 있는 후속 콘텐츠 제공, 4) 정책과 산업의 선순환 구조

(출처: 정종은, 2022)

27

K-콘텐츠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 분석



4

한류의 경쟁우위는 지속될 것인가? - 세 가지 근거에 입각한 전망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쳐 도달한 문화화의 결과물 (아시아 대표선수로서의 경쟁우위)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산업화 시대 (군부 중심 개발주의)	민주화 시대 (국가 중심 민주주의)	000 시대 - 현재 (국민 중심 민주주의)
생존 : 경제 중심	참여 : 정치 중심	국민의 성격	전근대적 국민 (생존 담론)	근대적 국민 (참여 담론)	주권자 국민 (주인 담론)
활위한 권력	위임된 권력	국민주권의 특성	유린되는 국민주권	대표되는 국민주권	개개인의 국민주권
국가주도 경제	기업주도 경제	민주주의 형태	위압적 권위주의	제도 민주주의	일상 민주주의
제조업 기반	지식 기반 제조업 기반	권력의 성격	활취한 권력	위임된 권력	생성적 권력
		주권 실현 방식	군부제안, 국민통제	참정권, 투표권	국민제안, 국민숙의
		기간	1960 - 1980년대	1990 - 2010년대	2017 - 현재

30

중국과 일본이 한류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국내 콘텐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꺼지지 않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창조산업의 성공'(Kean, 2004: 276)과 아시아 문화시장에서 한국의 '지배적인 힘'(Bilton, 2007: 169)은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현상으로 인정받게 됨

따라서 중국과 대만은 물론 아세안 10개국에서도 **한국 문화산업정책을 배우자는 움직임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옴

이러한 국가들은 **신개발주의 문화산업 정책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한 동시적인 충족**, 보다 정확히는 단계적인 발전 논리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필요

Democratic Governance	
NO	YES
Pre-developmental (?)	Post-developmental (Japan)
Developmental (China, Thailand)	Neo-developmental (South Korea, Taiwan)

출처: 2017.08.30 <한-아세안 관계조망 국제회의> 토론자료

31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컨버전스에 조용하는 압도적 인프라와 수용자 리터러시



32

신한류의 주역인 전 세계 Z세대 팬덤, 향후 20년은 견재할 것

“한류가 중화권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4단계 한류(2017-2021)’ 시기 청소년기를 보낸 코호트 세대는 Z세대라고 할 수 있다. ‘Z세대’(Zoomers)는 1997~2012년에 출생한 연령층으로, 2017년 5~20살이었으며, 2023년 현재 11~26살(십대와 이십대 초반)이다. 이들은 ‘X세대’(1965~80)의 자녀로, 고도의 기술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따라서 인터넷, 핸드폰, SNS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문화에 일체화된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정종은, 홍성태, 최보연, 박승환 외, 2021).

Z세대는 또한 정치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세대로 파악된다. 새 천년의 도래와 함께 태어난 Z세대는 어려서부터 인권과 정치에 대해 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세대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가 가장 극심했던 세대가 Z세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 Z세대는 인종-민족 차별에 강하게 반대하고, 소수자 평등을 강력히 지지하는 성향을 보인다.”

33

5

창조성의 시대,
새로운 한류 정책을 위하여

창조성(creativity)의 시대?

- Newness: 새롭다는 것은 '문맥의존적' 개념
- 1) 문맥의 융합
(e.g. 영웅배투만선생상)
- 2) 새로운 문맥의 탄생
(e.g. 정신분석학)
- 3) 기존 문맥에서 진보
(e.g. 수학의 난제)



- Usefulness: 유용하다는 것은 '문제의존적' 개념
- 부모-선생-교수-대가
- 배워 묻기와 스스로 묻기
- P-Creativity vs H-Creativity

- ✓ 1997년 영국 정부는 창조산업과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 문화부를 신설
- ✓ 1998년 김대중정부는 한국형 창조산업으로서 팔길이 원칙 위에 콘텐츠산업 육성

하드파워 + 소프트파워 = 스마트 파워

- 소프트 파워의 세 가지 자원: 매력적인 문화(attractive), 정치적 가치, 합법적이고 도덕적 권위를 갖는 외교정책(Joseph Nye, 2004)
-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 가시적인 위력이나 강제력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다른 국가와 국민이 자국 방향에 동의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무형의 매력 (가장 평화적이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소통 방식)
- 스마트 파워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스마트한 결합'
(미국안보평화연구소 수잔 노셀 선임연구원, 2004)
- 테오도르 루즈벨트(1901) "조용히 말하고 큰 막대기를 들고 다녀라."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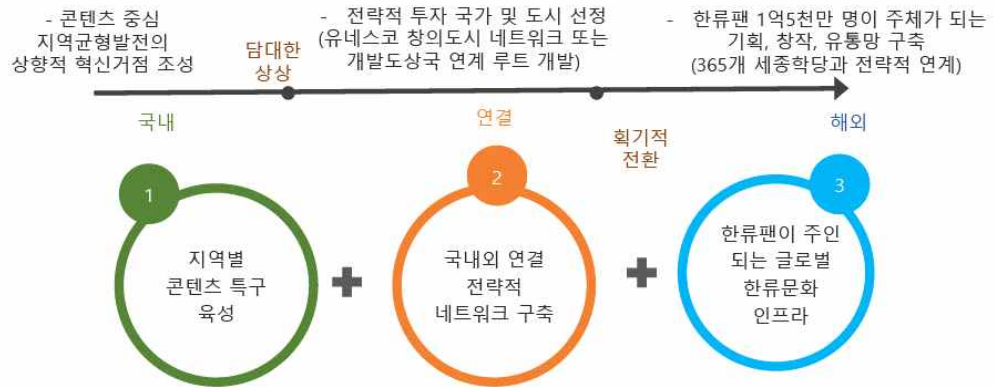
국가 비전의 새로운 정향: C2 국가를 향하여

	G2 국가	C2 국가
대상국가	미국 vs 중국	미국 & 한국
숫자 의미	하드 파워 순위(rank)	소프트파워 순위 + 대안적 방향
타국과 관계	자국 중심적 관점 (정치/경제/군사적 우위)	글로벌 협력 관점 (공급자와 수용자 시너지)
지향점	대결과 갈등을 진압하는 강력한 배타적 힘(Group)	협력과 상생을 빚어내는 문화적 어우러짐(Constellation)

- C2국가 비전을 감안한다면, 인류의 성장과 확산 역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 필요
- 전라북도도 인류의 영혼(soul)과도 같은 한스타일의 거점으로서 국가적, 국제적으로 새로운 브랜딩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K-문화지원센터는 이러한 새로운 담론의 증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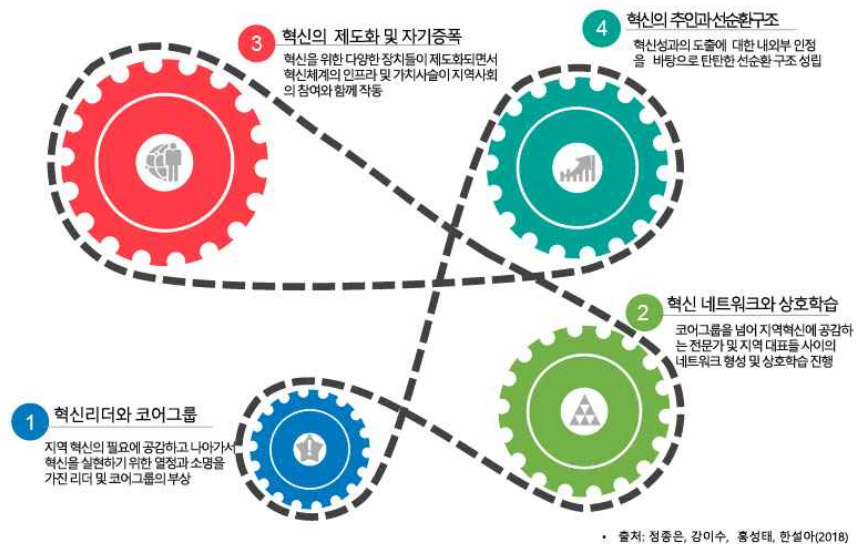
37

과제 1) 건물 중심이 아니라 투자 중심, 한류 프로젝트 운용



38

과제 2) 콘텐츠 주도 지역혁신체계 구축



39

과제 3) 365개의 Korea Centre 확충 및 1억 8천만 한류 팬덤과의 시너지 창출

YouTube

파리에 K-팝 카페 자리 대박난 프랑스 소녀. A French girl who opened a K-pop cafe because she likes the Korean Wave. 최근 파리 2구에 K-팝 매니아들을 위한 공간이 문을 열었다. K-팝 카페를 전세계에 진출시키겠다는 야심찬 도전장을 던진 사반나.



40

Thank you!!

정종은 (Kultur18@sangji.ac.kr)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K-pop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멀티리터러시 교육

김경채(게이오대학교), 김모란(와세다대학교), 김성우(서울대학교),
김진규(가천대학교), 정기인(서울과학기술대학교)

1. 연구의 목적

1.1. 연구 배경: K-pop 부상과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뮤직비디오

K-pop은 그 발생부터 경계를 넘나들며 성장해 왔다. K-pop은 ‘한국 대중가요’라는 개념과 오롯이 겹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의 수출지향적인 문화경제를 배경으로 하여 타자에 의해 호명된 용어이자 현상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K-pop은 국내 아티스트의 현지화나 현지 음악산업과의 합작 전략을 통해 범아시아적 문화 권역화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한다. 이후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존재감과 팬덤을 획득하면서, K-pop의 ‘K’는 단순히 ‘코리아’의 축약을 의미하는 선명하고 안정적인 국가적 상징에서 멀어졌다. (신현준, 2013)

스스로 경계를 파괴하고 확장하며 성장해 온 K-pop의 또 다른 특징은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한 ‘보는 음악’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점이다. 뮤직비디오는 더 이상 ‘프로모션용 매체’가 아니라 K-pop의 핵심 미디어이다. 뮤직비디오 장르적 특성에 더해,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환경은 K-pop의 현재를 정의하는 또 하나의 축이다. 언어와 소리와 빛이 인터넷상에서 활주하는 이 시대에 음악의 존재양식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현재 K-pop의 ‘서식지’라 할 수 있는 유튜브 상에서 음악은 언제나 세계와 나를, 타자와 나를 연결시키는 매개로서 존재한다 (野間, 2023). 이러한 의미에서 K-pop의 뮤직비디오는 모바일과 소셜 네트워크, 멀티미디어로 매개되는 현시대의 대표적인 예술 작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1.2. 연구의 필요성: K-pop 뮤직비디오의 문화적, 교육적 가능성 확장에 대한 학술적 대응

영화와 음악 산업을 필두로 한류의 영향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Duolingo, 2022). 이 상황에서 K-pop 뮤직비디오는 압축된 형식과 다양한 내용을 통해 생생한 한국어는 물론 문화와 관습까지도 학습할 수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김경숙&라혜민, 2011).

뮤직비디오는 1980년대의 등장 시점에서부터 전통적 내러티브를 파괴하는 새로운 매체로 주목받았으며 (Vernallis, 2004), 교육에서도 일찌감치 주요 매체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1989). 뮤직비디오는 사운드, 가사, 영상 이미지의 내러티브, 아티스트의 신체 등으로 구성되며 (Osborn, 2021), 이들의 상호작용은 단일한 문법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특정한 음악적 구성이 반드시 특정한 포맷의 영상으로 구현되지 않으며, 영상이 가사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지도 않는다. 뮤직비디오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은 서로 협력하기도 하지만 서로를 위반하기도 한다. 시간의 축을 따라가며 가사, 음악, 영상 등이 맞물리고 어긋나면서 다양한 해석적 ‘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매체로서의 특징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K-pop 뮤직비디오가 가진 문화 텍스트로서의 다층성이다. K-pop은 그 용어 자체에서부터 문화적 혼종성(cultural hybridity)을 드러낸다. “Korea”를 뜻하는 “K”와 영미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음악 장르인 “pop music”이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K-pop”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었다. “K-pop”은 다양한 세계가 서로에 침투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언어적, 문화적, 음악적 세계가 계속해서 열리는 장르이자 사회경제적 장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K-pop 뮤직비디오는 사회문화적, 기술적, 정치적 요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하며 체화한다. 무엇보다 뮤직비디오는 인터넷에서의 시각문화를 이끄는 매체로서 젊은층이 일상적으로 향유하는 대표적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면에서 교육에 대해 갖는 함의가 크다 (Taylor, 2007).

2000년대 중반 이후 K-pop 뮤직비디오를 이용한 교육 사례는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뮤직비디오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은 기존의 제1외국어(영어)를 중심으로 편성된 외국어 교육 전반에 반성적 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뚜렷하다.

K-pop 뮤직비디오 활용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뮤직비디오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글쓰기를 교육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비판적, 논리적 사고 표현 신장에 집중하고 (안숙현, 2006), K-pop 뮤직비디오를 통해 한국 전통 미학에 대한 생생하고 보람 있는 교수-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Chae, 2021). 외국 유학생의 효과적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뮤직비디오의 조건을 논의하고, 세부적인 수업 모형을 제시하며 (김경숙&라혜민, 2011), 뮤직비디오를 활용해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도 한다.

이들 시도는 전통적으로 별도의 미디어로 이해되었던 언어와 뮤직비디오를 통합하여 리터러시 교육을 이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가사 중심의 활동이나 해석에 머무르는 점, 적극적인 사회 비판적 인식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 대상 뮤직비디오에 대한 주제론적 접근을 교수자가 다소 일방적으로 제시하거나 한국 문화를 담고 있는 소재를 일방향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외국어와 외국문화로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은 기존의 문자중심주의에서 탈피해가고 있지만, 뮤직비디오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 방식은 여전히 기능적이며 도구적인 인식에 기반해 있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합법적 주변 참여’의 이론적 관점(Lave & Wenger 1991)을 녹여내 “인볼빙”이라는 접근으로 학습자의 뮤직비디오 창작을 독려하고 내재화(internalization)가 아닌 참여(participation)로서의 학습을 장려하거나 (青山&木村, 2017), 실제 고교생 동아리 수업에 (1) K-pop 미디어 텍스트 디코딩 (2)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의미 인코딩 및 미디어 생산 (3) 미디어 프로젝트 결과 공유라는 체계적 교수모형을 적용한 실천적 K-pop 뮤직비디오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Kim, 2017). 이러한 시도를 심화, 발전시켜 뮤

직비디오를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의 보조 교재에서 창의적·비판적인 다중양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텍스트로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K-pop 뮤직비디오에 대한 분석적 이해와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를 고려한 학습 이론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어와 문화, 기술과 산업, 예술과 테크놀로지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뮤직비디오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탐구함으로써 기존의 언어 중심 외국어 교수를 넘어서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의 지평을 확장하고, 시각문화와 예술교육의 영역에서 뮤직비디오를 ‘비판적으로 맥락화’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Taylor, 2007).

1.3. 연구의 목적: 멀티리터러시의 관점에서 K-pop 뮤직비디오의 잠재력을 확장하고 실행하기

국제 리터러시 협회(ILA; International Literacy Association)는 현재 리터러시를 "다양한 분야와 맥락에서 시각, 청각 및 디지털 자료를 사용하여 찾아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만 들어내고, 계산하며, 소통하는 역량"으로 정의한다 (International Literacy Association, 2022). 문자매체를 포함한 다중양식 텍스트(multimodal text)를 읽고 쓰는 역량의 배양을 강조하는 정의다.

이같은 매체중심적 정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리터러시를 정의할 수도 있다. 특정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능적 리터러시(functional literacy)와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독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의미하는 고차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 academic literacy 등)로 나누는 것이다 (楠見&道田, 2015). 이 관점에서 본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텍스트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관점에서 텍스트를 탐구하고 해석하며 재맥락화하는 활동이 강조된다. 이 같은 활동을 관통하는 것은 비판성(criticality)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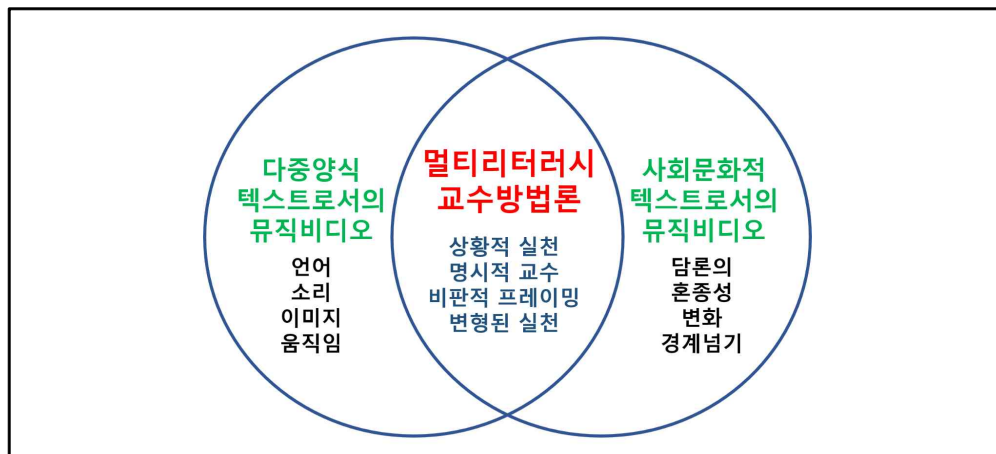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두 차원의 리터러시는 멀티리터러시(multiliteracies) 개념을 통해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 멀티리터러시는 뉴 런던 그룹이 1996년 리터러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논문 <A Pedagogy of Multiliteracies: Designing Social Futures>에서 제안한 이후로 학계 및 교육계에 널리 주목을 받았다 (New London Group, 1996). 논문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저자들은 리터러시 교육이 사회적 미래를 위한 디자인 과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새로운 시대가 필수로 요구하는 리터러시 교육을 논의한다. 멀티리터러시 역량은 다양한 텍스트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상황의 맥락에 적용하는 활동까지를 포괄한다.

멀티리터러시 교수 방법론은 (1) 상황적 실천(situated practice), (2) 명시적 교수(explicit instruction), (3) 비판적 프레임링(critical framing), (4) 변형된 실천(transformed practice)과 같이 네 단계로 구분된다 (New London Group, 1996). 각 단계의 개념과 교수 학습 주안점은 아래와 같다.

〈표〉 멀티리터러시 교수 단계와 개념, 그리고 교수학습 설계의 주안점

단계	개념적 특성	교수설계 시 핵심 질문의 예
상황적 실천	학생들의 일상적 경험, 사회문화적 필요와 정체성에 맞는 교육적 실천을 강조함.	“뮤직비디오는 나 그리고 우리의 삶과 어떻게 얽여 있는가?”
명시적 교수	체계적, 분석적, 의식적인 이해를 위해 교사는 명확한 메타언어 (metalanguage)를 사용하여 해당 텍스트의 형식, 내용, 기능을 설명함	“이 장면은 어떠한 문화적 혼종성 (hybridity)을 담고 있는가?”
비판적 프레이밍	텍스트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standing back) 해석	“미국의 아시아계 여성들이라면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변형된 실천	다른 맥락과 문화, 창작 의도를 고려한 새로운 의미 생산	“해당 장면의 재현방식을 각자의 입장에서 재해석/재창작한다면 어떤 요소를 넣어 재배치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상술한 뉴런던그룹의 멀티리터러시 프레임워크를 차용하고 창의적으로 변용하여 K-pop 뮤직비디오가 멀티리터러시 기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의 주요한 텍스트이자 교수 학습 변화의 디딤돌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 멀티리터러시: 다중양식, 사회문화 텍스트로서의 뮤직비디오 교수방법론

이 작업은 K-pop 뮤직비디오의 두 가지 특성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 미디어로서 뮤직비디오가 갖는 다중양식 텍스트로서의 본질적 특성이다. 뮤직비디오는 소리, 가사, 이미지, 영상 등이 유기적으로 엮이는 다중매체로서 적절한 감상을 위해서는 이 모든 요소들에 대한 감각적, 개념적, 문화적인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K-pop 뮤직비디오 텍스트가 가지는 사회문화적, 산업적, 기술적, 담론적 혼종성이다. 이에 따라 뮤직비디오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사이의 차이와 어긋남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뮤직비디오가 상징하는 상품, 판매전략, 문화 정체성, 젠더 규범 등)을 파악하고 이를 K-pop 자체에 내포된 혼종성, 월경성, 연결성 등과 관계지으며 이해하는 수업 활동이 가능하다. 나아가, 이를 통해 습득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을 학습자의 관점과 흥미, 가치관을 바탕으로 재맥락화하여, 변형된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뮤직비디오 해석을 교육의 주요한 방법론으로 설정함으로써 (Osborn, 2021) 다중양식 리터러시(multimodal literacy) 교수학습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Lim & Tan-Chia, 2023), 다중양식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교육을 활성화하며 (Djonov & Zhao, 2014; Machin & Mayr, 2012), 특정 문화에 대한 텍스트가 소셜미디어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담론장에서 어떤 상호작용과 효과를 만들어 내는지를 논의하는 (清水, 2018) 비판적, 창의적, 담론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지평을 열어젖힐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2.1. 연구방법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K-pop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의 세부적인 연구목표를 다음 세 가지로 설정한다.

(1) 멀티리터러시 교육의 관점에서 K-pop 뮤직비디오의 특성과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밝힌다. (2) K-pop 뮤직비디오의 특성과 가능성을 국내외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커리큘럼 속에서 검증한다. (3) K-pop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멀티 리터러시 수업 모델을 제시한다.

위의 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도입한다. 연구방법은 크게 (1) 문헌연구, (2) 실험연구 (3) 전문가 대담 및 워크숍 (4) 연구성과 종합을 통한 뮤직비디오 교수학습 모델 제안으로 구성된다.

첫째, 문헌연구는 멀티 리터러시 프레임워크, K-pop을 중심으로 한 뮤직비디오 활용 교육, 뮤직비디오 분석 방법론 등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저서와 논문을 분석, 종합하고 여러 뮤직비디오 관련 수업의 강의계획서를 아카이빙하는 작업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다짐과 동시에, 실험연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내외 연구자 및 교사들에게 뮤직비디오 활용 언어문화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진다.

둘째, 실험연구는 연구방법론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상술할 네 개의 강의를 디자인하고 실행하는 가운데 수행된다. 구체적으로는 강의계획서, 학생 서베이 및 인터뷰, 강사의 필드노트와 성찰일지, 수업시 활용한 자료 아카이빙, 강사 라운드 테이블을 통한 수업 사례 발표 및 공유 세션 등을 유기적으로 종합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세 번째는 전문가와의 대담 및 협업이다. 국내외 뮤직비디오 교육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에 뿌리박은 전문지식을 전수받고 이를 연구진들의 이론적 관점과 교수학습 경험을 통해 해석한다. 이를 통해 전문성의 지평을 넓히고 연구진의 실험연구 결과를 다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획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멀티리터러시 프레임워크와 연구성과 종합을 통한 ‘K-pop 뮤직비디오 교수 학습 모델’ 제안이다. 이는 문헌연구, 실험연구,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축적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작업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네 유형의 강의에서 도출된 실험연구의 결과를 비교, 대조하여 대상과 수준, 사용 언어와 평가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는 특정 교수학습의 맥락 하에서 K-pop 뮤직비디오의 활용이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지니는지를 분석한다. 아울러 사례 발표 및 토론을 통해 각각의 수업에서 검증된 장점을 극대화하고 미진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한다.

2.2. 연구내용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K-pop 뮤직비디오를 교육에 도입하는 것의 효과를 실제적인 교육의 장에서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검증하고, 다양한 커리큘럼에서 응용가능한 교수 학습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실험연구를 진행할 커리큘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커리큘럼 유형	대상	사용언어	한국어수준	중심내용
A.일본대학의 외국어선택과목	외국인	한국어 / 일본어	초중급	어학 / 문화
B.일본대학의 교양선택과목	외국인	한국어 / 일본어	중상급 / 상급	문화 / 어학
C.한국대학의 교양선택과목	외국인	영어	다양함	문화
D.한국대학의 전공선택과목	한국인	한국어	모어	문화

상기 네 유형의 커리큘럼을 크게 한국어 커리큘럼과 한국문화 커리큘럼으로 나눈 뒤, 각 커리큘럼을 구성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고려될 사항과, 커리큘럼의 개별적 특성에 맞춰 응용될 수 있는 세부 내용(수업 구성, 평가 방법, 평가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2.2.1. 실험연구를 위한 커리큘럼 설계의 주안점

실험연구 수행 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커리큘럼에서 공통적으로 고려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멀티 리터러시 교육 모델을 도입한다. 각 커리큘럼은 멀티 리터러시 교육 모델이 제시하는 4단계의 교수 과정(상황적 실천, 명시적 교수, 비판적 프레이밍, 변형된 실천)을 기본으로 하여 설계된다.

(2) 뮤직비디오의 다중 매체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즉, 각 커리큘럼을 통해 학습될 내용은 뮤직비디오의 다중 매체적 성격으로부터 도출된다. 뮤직비디오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서로 맞물리고 어긋나면서 만들어내는 해석적 ‘틈’으로부터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획득될 수 있도록 한다.

(3) 멀티 리터러시의 획득을 학습자를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각 커리큘럼에서 학습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특정한 지식을 학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차이들을 인식하고 그것에 비판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멀티 리터러시의 획득으로

설정된다. 이와 같은 공통의 기반 위에서 교수자는 한국어, 혹은 한국문화라는 서로 다른 커리큘럼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각 회차의 수업을 응용 설계한다.

뮤직비디오를 통한 멀티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 커리큘럼이 각각 중점을 두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어 커리큘럼의 경우

구체적인 어학 능력의 목표를 설정하고, 뮤직비디오의 다중성을 어학 능력의 신장을 위한 매개로 적극 활용한다. 예컨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커리큘럼(강의계획서A)의 경우,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과정 3급 이상의 언어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3급과 그 이전 단계를 나누는 기준의 핵심은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는 능력이다(김정숙 외, 2018).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서로 맞물리고 어긋나면서 해석적 ‘틈’을 만들어내는 뮤직비디오는 일상언어로서의 한국어와 추상언어로서의 한국어를 매개하기에 적합한 교재이다. 학습자는 뮤직비디오를 매개로, 뮤직비디오와 관련된 기존의 경험 및 뮤직비디오 속의 요소들을 일상적인 한국어로 표현해 보고, 교수자가 제공하는 개념적 장치들을 동원해 보다 추상적인 언어로 바꿔 말해 보는 과정을 통해 한국어의 표현 범위를 확장시키게 된다. 이 때 교수자는 개념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등)의 성격을 뮤직비디오와의 관련 속에서 의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한국어에 대한 메타 언어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커리큘럼 전체는 멀티 리터러시 교육 모델을 기초로 하나, 각 회차의 강의에서는 아직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학습자를 고려하여 상황적 실천, 명시적 교수, 비판적 프레이밍까지의 3단계까지만을 진행한다. 변형된 실천 단계는 각각 6회차의 강의가 끝난 후, 중간 평가(7회차), 기말 평가(14회차)에서 수행 과제(performance task)의 형태로 도입한다. 멀티 리터러시 교육 모델을 도입한 한국어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상황적 실천	MV를 시청한 뒤, MV에서 발견한 다양한 요소들 및 그와 관련된 학습자의 경험을 단문의 한국어로 이야기하기
명시적 교수	학습 대상 MV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 및 한국어 문법/표현에 대한 교수자의 강의를 듣고 학습자의 생각을 추상적인 한국어로 표현하기
비판적 프레이밍	그룹 토론 후, 토론 내용을 한국어로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학습자와의 해석상의 차이를 인지하고 자신의 생각 및 표현을 검토하기
변형된 실천	MV를 다양한 형식(드라마 대본, 편지, 일기 등)으로 바꿔 보거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기획해 보기

(2) 한국문화 커리큘럼의 경우

한국문화의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커리큘럼에서는 우선 각 수업의 내용과 목표에 부합하는 형태로 K-pop 뮤직비디오를 이용하되, 뮤직비디오의 다중적 성격을 학습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힘쓴다. 예를 들면, 한국 뮤직비디오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뮤직비디오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거나(강의계획서B), 현대시와 장르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강의계획서D), 뮤직비디오가 다양한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의미가 산출되는 다중양식 매체임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학습자 각자가 속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기반하여 뮤직비디오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뮤직비디오가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구성되는 텍스트임을 실천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특히,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수업(강의계획서C)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한국문화 커리큘럼의 목적은, 학습자가 단순히 한국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적극적인 실천으로서 한국문화의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자, 이문화, 세계 등의 관계를 반성적으로 사유하며 해석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와 자기정체성을 재구성할 계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각 커리큘럼에서는 짧게는 수업 2회분, 길게는 한 학기 수업 전체를 단위로 해서 멀티리터러시 교육모델에 기반한 수업구성을 실천하며, 이 때 특히 비판적프레이밍과 변형된 실천의 단계가 충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커리큘럼(강의계획서C)는 젠더를 중심으로 다루는 학기 전반을 통해 다음의 4단계를 밟도록 구성된다.

상황적 실천	가사를 읽고 내가 감독이라면 어떤 MV를 만들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토론하기. MV를 시청한 뒤, 자신의 상상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왜 그러한지, 자신의 개인적/문화적 배경과 MV의 배경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숙고하고 이를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 논의하기
명시적 교수	특히 구체적 여성상이 잘 드러난 MV를 이해하기 위해 성적 대상화, 카메라의 시선, 한국 페미니즘 담론 등의 개념을 교수자가 강의
비판적 프레이밍	해당 개념어를 활용해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교수자가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 사이의 토론 및 교수자와의 논의
변형된 실천	다른 맥락(자신에게 친숙한 문화/성별 등을 바꾸거나 새로운 시대적 배경을 설정) 속에 배치하여 새로운 MV를 기획하고, 해당 기획을 발표하며 이유 설명하기

2.2.2. 제1차년도 수업 강의계획서

이 절에서는 K-pop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커리큘럼을, 본 연구과제의 공동연구원이 실제로 국내외 대학에서 연구 과제 1차년도의 단계에 실시하게 될 4가지 유형의 강의계획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K-pop 뮤직비디오를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커리큘럼 내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강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강의 내용 및 그 구성, 평가 방법 및 기준이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어학 및 문화 교육을 멀티 리터러시 교육으로 확장시키는 데에 뮤직비디오가 유효한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논하려 한다.

A. 일본대학의 외국어선택과목: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강의 목표	·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과정의 3급 상당의 어학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 뮤직비디오의 다양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그 요소들 사이의 차이들을 자신의 생각과 연결지어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뮤직비디오를 통해 획득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뮤직비디오 외의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강의 구성	· 수업 내 활동 1. 뮤직비디오 시청 (10분) 2. 해당 뮤직비디오와 관련된 경험과 뮤직비디오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15분)【상황적 실천】 3. 뮤직비디오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 및 한국어 지식에 대한 교수자의 강의 듣기 (20분)【명시적 교수】 4. 강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뮤직비디오를 이해한 방식을 언어화하기 (15분)【명시적 교수】 5. 언어화한 내용을 학습자가 서로 공유하고 생각의 차이들을 인식하기 (30분) 【비판적 프레이밍】 · 수업 외 활동 1. 가사의 내용 파악해 보기 2. 수업 시간에 시청한 뮤직비디오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조사
평가 방법	1. 7주차, 14주차 수업에서 실시하는 수행과제 (뮤직비디오를 다른 장르로 바꿔 써 보기)【변형된 실천】 2. 수행 과제 시의 피어리뷰(peer review) 3. 15주차에 실시하는 자기평가(self-review)
평가 기준	1. 뮤직비디오의 구성 요소 및 그와 관련된 일상 경험을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 해석하고 그것을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다. 2. 뮤직비디오에 대한 해석 상의 차이들을 인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3. 뮤직비디오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4. 뮤직비디오를 통해 배운 개념과 인식 방법을 다른 장르 속에서 응용할 수 있다.

B. 일본대학의 교양선택과목: 외국인 대상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강의 목표	· K-pop의 역사 및 노래 가사와 뮤직비디오를 통해 현대 한국의 사회문화를 주제적,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관련어휘 및 표현을 숙지하고, 이를 적절히 구사하며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을 습득한다.
강의 구성	· K-pop과 관련된 여섯 개의 테마 (①가요, 대중가요, 민중가요 등의 개념과 역사, ②80-90년대 한국가요, ③한국가요로부터의 탈각과 K-pop의 탄생, ④한일의 음악공간에서 유튜브를 통한 글로벌화로의 이행, ⑤K-pop과 젠더, ⑥K-pop의 글로벌화와 'K'의 정체성)으로 구성된다. · 각 테마는 강의 중심의 제1회(【상황적 실천】, 【명시적 교수】)와 토론과 발표 중심의 제2회(【비판적 프레이밍】, 【변형된 실천】)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제2회 수업에서 노래 가사와 뮤직비디오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 수업의 학습으로 강의내용을 한국어로 이해하기 위한 단어와 표현, 독해 자료의 연습과, 강의내용과 관련해서 노래 가사와 뮤직비디오를 감상하고, 그에 대한 의견과 의문점을 정리해 오는 작업이 요구된다. (약90분)
평가 방법	각 테마의 마무리 단계에서 소발표 등의 수행 과제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며, 이 평가에는 루브릭을 활용한 발표자의 자기평가나 수강생간의 피어리뷰를 도입
평가 기준	1. 뮤직비디오의 다중매체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현대 한국의 사회 문화에 대한 지식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2. 가사와 뮤직비디오에 대한 감상과 의견을 적절한 한국어로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다. 3. 수업에서 얻은 새로운 발견에 기반하여, 자신의 기존의 인식이나 타수강생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C. 한국대학의 교양선택과목: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 교육

강의 목표	· 케이팝 가사와 뮤직비디오를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사회 문화적 맥락과 비교한다. · 케이팝 가사와 뮤직비디오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케이팝 가사와 뮤직비디오를 자신의 관점에서 재창작한다.
강의 구성	1. 케이팝 가사와 뮤직비디오를 접하고, 조별로 나누어서 어떤 점이 흥미로운지, 어떤 점이 재미가 없거나 불편한지를 논의한다. (50분) 【상황적 실천】 2. 이러한 논의를 조별로 발표 후에 교수자가 해당 가사와 뮤직비디오를 분석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어나 맥락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여 조원들끼리 토론한다. (50분) 【명시적 교수】 3. 이러한 토론을 정리하여 조별로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해당 노래 가사와 뮤직비디오에 대한 심화된 분석을 교수자와 함께 진행한다. (50분) 【비판적 프레이밍】

평가 방법	1. 매 회차 수업에서의 참여도를 관찰 평가 2. 7~8주차, 14~15주차 수업에서 실시하는 수행과제 【변형된 실천】 3. 수행 과제 시의 피어리뷰와 자기평가
평가 기준	1. 케이팝 가사와 뮤직비디오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 논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 2. 케이팝 가사와 뮤직비디오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가사와 뮤직비디오를 제안할 수 있다.

D. 한국대학의 전공선택과목: 한국인 대상 한국문화 교육

강의 목표	· 자문화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문학 텍스트와 뮤직비디오를 이해하고 감상함으로써, 멀티리터러시 시대에 올바른 문화감상태도를 모색한다.
강의 구성	1. 강사가 강의 관련 주안점을 소개한 후, 대상 텍스트에 대한 분석 과제(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한다. (60분, 수업 외 활동) 2. 학생들의 과제 발표 및 토론 (30분) 【상황적 실천】 3. 뮤직비디오 시청과 토론: 한국어 가사와 영어 자막 사이의 차이, 유튜브 코멘트를 중심으로 한국어 시청자와 외국어 시청자 사이의 감상 차이 등에 대해 조별 토론 진행. (45분) 【비판적 프레이밍】 4. 조별 토론 결과 발표 후, 강사가 주요 개념과 이론적 배경 제시 후 토론 결과의 정리. (75분) 【명시적 교수】【비판적 프레이밍】 5. 뮤직비디오 재창작 과제【변형적 실천】
평가 방법	1. 매 회차 수업에서의 참여도를 관찰 평가 2. 7~8주차, 14~15주차 수업에서 실시하는 수행과제 3. 수행 과제 시의 피어리뷰와 자기평가
평가 기준	1. 현대시와 뮤직비디오의 구성 요소 및 장르적 특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다. 2. 분석내용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토론할 수 있다. 3. 문학작품과 뮤직비디오 등을 자문화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감상하고, 해석의 다양성을 낳는 문학적, 문화적 조건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4. 현대시와 뮤직비디오에 대한 자신의 주체적 이해에 맞게 뮤직비디오를 재창작할 수 있다.

3. 수업의 실제

3.1.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여기서는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일본의 K 사립대학교의 수업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한국어 교육 내에서의 멀티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뮤직비디오의 활용 방법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수업의 전체 커리큘럼은 멀티 리터러시 교육 모델(상황적 실천-명시적 교수-비판적 프레이밍-변형된 실천)을 기초로 하지만 각 회차의 강의에서는 아직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학습자를 고려하여 상황적 실천, 명시적 교수, 비판적 프레이밍까지의 3단계까지만을 진행한다. 변형된 실천 단계는 기말 평가에서 수행 과제(performance task)의 형태로 도입한

다. 본 발표에서는 1~3회차의 수업을 사례로 소개한다.

3.1.1. 연구 수업의 개요

(1) 수업의 성격

본 연구는 일본의 모사립대학에서 선택교양과목으로 개설된 한국어 수업(〈조선어표현기법(朝鮮語表現技法)〉)에서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거나, 일본 대학의 학부 과정에 소속되어 있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선어표현기법〉은 대학 내의 한국어 학습 기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필수 외국어 과목의 한계¹⁾를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여타의 외국어 과목들(〈중국어표현기법〉, 〈프랑스어표현기법〉, 〈독일어표현기법〉 등)에 더해 2022년도부터 신설된 과목으로써, 학과(문이과 불문)와 학년(대학원 포함)의 제한 없이 다양한 배경의 한국어 학습자가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이다.

〈조선어표현기법〉은 입문에서 초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선어표현기법Ⅰ〉과 초중급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선어표현기법Ⅱ〉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조선어표현기법Ⅱ〉의 커리큘럼의 일부로 수행되었다. 주 1회, 90분 간의 수업이 학기당 14회에 걸쳐 진행되고, 2023년도에는 총 9명의 수강자가 수업에 참여하여 본 연구의 토대가 되는 표본을 제공해 주고 있다. 수업은 전 회차가 CALL(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교실²⁾에서 이루어졌다.

(2) 수업 참가자 구성

〈조선어표현기법Ⅱ〉의 1회차 수업에서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수강자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학습 기간, 학습 방법, 능력에 대한 상세 내용은 수강자가 일본어로 직접 작성한 것을 번역한 것이다. 학습자는 편의상 A~I의 알파벳으로 구분한다.

	학습 기간	학습 방법	한국어 능력
A	1~2년	독학	평소에 한국 드라마나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읽기는 할 수 있지만 문장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B	3~6개월	독학	5년 정도 전에 독학으로 조금 공부했지만, 기본적인 단어와 문법만 알 수 있다. 한자어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C	3~6개월	독학	3월은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보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있고, 간단한 문장이라면 만들 수 있다.
D	2년 이상	정규교육과정	고등학교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웠다. 지금은 취미로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K-POP을 듣는다. 어느 정도의 문장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E	학습경험없음	재일한국인가정에서	모국어가 한국어이고, 사용하기 편하다고 느끼는 것도 한국어다. 광주사투리를 쓰다 보니 억양이 표준어가 아닌

- 1) 제한된 학습교재를 통해 이루어지는 획일화된 외국어 교육이 보다 다양해지는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학습지도요령(한국의 교육과정에 해당)이 주체적인 학습과 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함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초등학교는 2020년도, 중학교는 2021년도, 고등학교는 2022년도부터 전면 시행)에 따라 신학습지도요령 하에서 교육 받은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맞춰 대학 내의 외국어 교육 역시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2) 전 좌석에 PC가 구비되어 어학 학습에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실.

	학습 기간	학습 방법	한국어 능력
		자연스럽게 습득	경우가 많다. 유치원 때부터 모두 일본의 정규교육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격식을 갖춘 한국어를 사용할 일이 많지 않고, 띄어쓰기나 맞춤법 등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F	3~6개월	정규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어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다. 발음과 기본적인 문장 구성에 대해 배웠다. 수업 내용은 TOPIK3~4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본인은 어휘와 문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 한국어로 된 문장을 읽으면 내용은 조금 알 수 있지만, 듣기와 말하기 능력은 어린 아이보다 능숙하지 않다.
G	6개월~1년	독학, 대학교 수업	평소에 한국 드라마나 아이돌 콘텐츠 등을 즐겨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책을 사서 문법을 배운 적은 없고, 듣고 익힌 느낌입니다. 수업은 대학교2학년 봄학기부터 수강하기 시작했고, 그때 처음 한국어로 말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친해지기도 했고, 수강하는 수업이 늘어났어요. 한국 드라마라면 자막 없이도 70% 정도, 아이돌 콘텐츠라면 거의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읽는 것은 의미를 몰라도 소리로 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로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소리 내어 읽기 전까지는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말하기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단어를 선택하면서 말할 수는 있습니다.
H	3~6개월	독학	평소에 케이팝 아이돌 영상과 약간의 한국 드라마를 봐왔기 때문에 한국어 콘텐츠를 5년 이상 접해왔어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표현은 자연스럽게 익혔어요. 한국어 문법은 방학 때 틈틈이 교과서를 펼쳐서 공부한 정도이지, 제대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제 2외국어로 배우는 것은 중국어입니다). 어휘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급 수준의 수업을 들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고, 콘텐츠 시청으로는 배울 수 없는 독해와 작문에 대해서는 전혀 자신감이 없습니다.
I	2년 이상	독학	평소 네이버 웹툰으로 한국의 만화를 보거나 뉴스 기사를 읽고, 유튜브의 KBS, MBC, SBS 등의 공식 채널에서 드라마 요약 영상을 시청한다. 일상적인 대화는 거의 이해할 수 있고, 법정 드라마나 사극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정치나 경제에 관한 내용은 접해본 적이 별로 없다.

해당 수업에는 한국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줄곧 일본의 정규 교육 과정을 밟은, 한국어 모국어 화자에 가까운 학습자부터, 아직 단문의 문장을 만드는 것에도 익숙치 않은 학습자까지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가 참가했다. 종합적인 한국어 능력에는 격차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한국어의 듣기/읽기 능력이 말하기/쓰기 능력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 학습자 역시 듣기/읽기, 특히나 듣기 기능에 대해서 비교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이는 학습자의 대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K-POP, 한국 드라마, 웹툰 등의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를 일상적으로 접해 온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은 학생보다 독학으로 습득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며, 때문에 기존의 한국어 교육에서 빈번하게 언급되

는 문법 용어들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3) 학습의 세부목표 설정

학습자의 기존의 한국어 경험을 바탕으로, ‘듣기’ 능력(이해 능력)을 추상적 사고에 기반한 말하기, 쓰기 능력(표현 능력)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수업의 일차적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과정 3급 이상의 종합적 언어 능력의 획득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3급과 그 이전 단계를 나누는 기준의 핵심은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는 능력이다³⁾.

또한 기존의 문자 중심의 한국어 수업에서 탈피하여,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다양한 미디어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 언어와 미디어가 놓인 문화적 배경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이론적 개념어의 학습 역시 주요한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한국어 학습의 성과를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신장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언어 표현 능력의 신장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3.1.2. 수업 과정과 결과

(1) 사전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분석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본격적인 연구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전 설문조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학습자가 현재의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스스로 인지함으로써 학습의 목표를 주체적으로 설정하고 커리큘럼 완료 후의 학습 결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교재로써 도입하게 될 뮤직비디오 장르에 대한 학습자의 사전지식을 확인하고 향후 한국어 능력 신장 및 멀티 리터러시 함양에 활용할 수 있는 뮤직비디오의 요소를 선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사전 설문조사는 크게 네 부분(①한국어 학습 경험과 현재의 한국어 실력, ②한국어 학습의 동기와 배경, ③K-POP 뮤직비디오에 대한 배경지식, ④한국어 학습의 목표)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설문조사의 상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어 학습 경험과 현재의 한국어 실력

- 지금까지 한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기간을 선택해 주세요.
- 지금까지 한국어를 접한 경험과 자신의 한국어 실력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 한국어를 어떠한 방법으로 익혔습니까?
- 한국어 ‘말하기’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까?
- 한국어 ‘듣기’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까?
- 한국어 ‘읽기’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까?
- 한국어 ‘쓰기’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까?
- 한국어를 배우면서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② 한국어 학습의 동기와 배경

-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평소 어떤 매체나 방법으로 한국어를 접하고 있습니까?
- 일주일에 한국어를 접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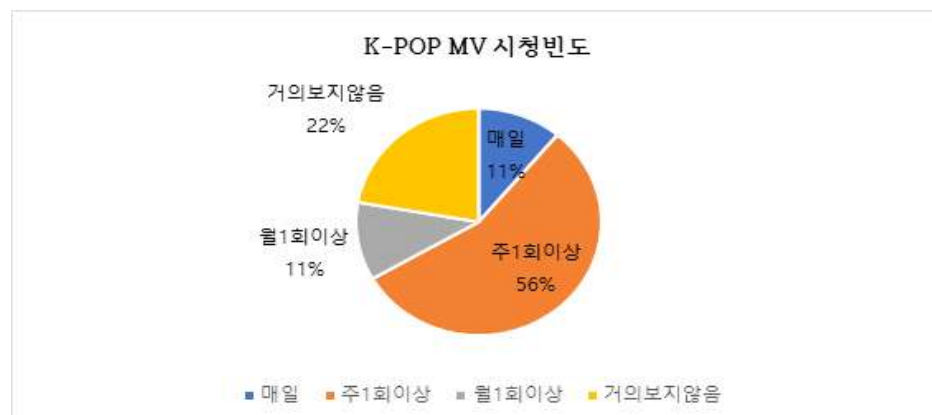
③ K-POP 뮤직비디오에 대한 배경지식

- 뮤직 비디오가 무엇인지 자유롭게 정의해 보세요.
- K-POP의 뮤직비디오를 본 적이 있습니까?
- K-POP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는 빈도를 선택해 주세요.
- 좋아하는 K-POP 뮤직비디오가 있다면, 곡명과 좋아하는 이유를 적어주세요.
- K-POP 뮤직비디오시청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K-POP 뮤직비디오를 통해 본 '한국'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④ 한국어 학습의 목표

- 한국어 학습 목표 중 자신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선택해 주세요.
- 한국어 학습의 단기적인 목표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한국어 학습의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사전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 중 교재로 도입할 뮤직비디오와 관련된 내용만을 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뮤직비디오에 대한 정의

A	음악과 댄스를 표현한 것
B	아티스트가 자신의 음악을 시각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만든 것
C	음악의 매력을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컨셉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수단
D	음악을 전달하기 위해 청각 뿐만 아니라 시각에도 어필하기 위한 수단
E	단순히 신곡의 컨셉에 부합하도록 만든 영상이 아니라 아티스트가 데뷔한 시점부터 구축된 세계관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
F	음악과 함께 발표하는, 음악이 표현하는 이야기를 보여 주기 위한 영상
G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사 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H	K-POP의 음악에 시각적 표현을 더해 스토리성과 세계관, 아이돌의 매력을 전달하는 미디어
I	음악의 세계관을 표현한 것, 아티스트의 컨셉을 표현한 것, 해석의 여지를남김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다른 음악이나 콘텐츠를 시청하도록 유도하는 것

K-POP 뮤직비디오를 통해 본 한국의 이미지

A	노래와 댄스의 능력치가 높다
B	성숙한 이미지
C	같은 업계 내에서 끊임없이 신인이 데뷔하기 때문에 늘 다른 컨셉으로 좋은 성적을 내야 하는 경쟁사회로서의 한국
D	CG와 같은 영상 기술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술의 최첨단이라는 이미지
E	아이디어의 깊이, 치밀함, 세련된 이미지
F	다양한 국적과 민족 순정적이고, 밝은 이미지도 있는 반면 어두운 이미지도 있다
G	일본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한국의 뮤직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를 해외로 적극적으로 발신하려는 자세가 엿보인다
H	무응답
I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전력을 쏟고 있으며 한국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려 하는 이미지

K-POP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의 의미

A	무응답
B	기분이 업된다
C	무응답
D	신곡이 나오면 시청하는 정도이지만 뮤직비디오가 그 자체로 음악의 이미지로 각인된다
E	몇 년이나 봐 왔지만 전혀 싫증이 나지 않고 언제나 즐거운 기분으로 만들어 준다
F	엔터테인먼트, 마음의 안정
G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고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 시청한다
H	여러 감정을 느끼게 해 준다
I	삶의 낙, 아티스트가 새로운 음악을 발표할 때마다 아티스트의 새로운 일면을 볼 수 있는 것, 시각적으로도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해 주는 것

먼저 시청 빈도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해당 수업에 참가한 학습자 전원이 K-POP 뮤직비디오를 시청한 경험이 있으며 시청 빈도가 적더라도 K-POP 뮤직비디오라는 장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뮤직비디오가 음악, 시각적 이미지, 아티

스트의 정체성 및 세계관 등이 결합된 다중적 미디어라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멀티 리터러시의 측면에서 뮤직비디오의 활용도를 가늠하려는 본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더불어 뮤직비디오의 테크놀로지적 측면이나 당대 한국사회와의 연관(유행, 경쟁사회, 글로벌 문화 전략 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뮤직비디오를 통해 한국어 교육을 넓은 의미의 한국문화 교육으로 확장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학습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뮤직비디오의 이 같은 장르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다양한 개념 어들을 통해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과 연관짓기 위해서는 교수자 역시 미디어 전반과 뮤직비디오 장르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커리큘럼 구성 및 뮤직비디오의 선정기준

각 회차의 수업은 ①뮤직비디오 시청, ②토론, ③강의, ④작문과 발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멀티 리터러시 교육 모델에 비춰 보면 뮤직비디오를 시청하고 토론하는 ①②의 과정이 상황적 실천 단계에, 토론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추상적 개념들을 학습하는 ③강의가 명시적 교수 단계에,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감상을 새롭게 학습한 개념들을 활용하여 문장으로 만들어 보고 그것을 발표하는 과정(④작문과 발표)이 비판적 프레이밍의 단계에 해당한다.

연구 수업에서 교재로 도입한 뮤직비디오는 당대 한국사회의 연관성을 고려해 주로 201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뮤직비디오 중에서 아티스트의 젠더적 다양성, 음악의 장르적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하고 배치하고자 했다. 2010년대의 뮤직비디오를 주된 대상으로 삼은 것은 2010년대부터 뮤직비디오 장르가 K-POP 산업의 글로벌화 전략과 맞물려 적극적인 소비 대상으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학습 내용을 당대의 한국 사회/문화론으로 확장시키기에 적절한 제재가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뮤직비디오의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에게 뮤직비디오의 장르적 특성과 그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뮤직비디오를 1회차와 2회차에 배치하고, 3회차부터는 크게 ①젠더와 이미지, ②로컬과 글로벌, ③미디어로 테마를 나누어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도록 하여 학습자가 큰 테마 안에서 시청한 뮤직비디오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본 발표는 1~3회차 관련 내용)

①젠더와 이미지 파트에서는 뮤직비디오가 여성/남성, 혹은 퀴어함을 재현하고 그것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게 되며, ②로컬과 글로벌 파트에서는 지역성, 국적성이 뮤직비디오에 드러나는 양상과 그것이 K-POP 산업의 글로벌 시장 전략과 관계 맺는 방식을 살펴게 된다. ③미디어 파트에서는 대중 미디어가 메타비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뮤직비디오를 다룸으로써 학습자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중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한다.

회차	뮤직비디오	테마
1	EXO 「LOVE ME RIGHT」(2015)	뮤직비디오 장르 이해하기
2	BIGBANG「LA-LA-LA」(2006) 소녀시대「다시 만난 세계」(2007) 2PM「10점 만점에 10점」(2009)	K-POP 뮤직비디오의 흐름
3	IU「스물 셋」(2015)	젠더와 이미지 (1)
4	MONSTA X「걸어(ALL IN)」(2016)	젠더와 이미지 (2)

	MONSTA X「Fighter」(2016)	
5	Wonder Girls 「Why So Lonely」(2016)	젠더와 이미지 (3)
6	Brown Eyed Girls「Wonder Woman」(2019)	젠더와 이미지 (4)
7	수행 과제	
8	CL (2NE1)「멘붕(MTBD)」(2014)	로컬과 글로벌 (1)
9	NCT 127「영웅 (英雄; Kick It)」	로컬과 글로벌 (2)
10	BIGBANG「Bad boy」(2012) BIGBANG「에라 모르겠다(FXXK IT)」	로컬과 글로벌 (3)
11	DEAN「Instagram」(2018)	미디어 (1)
12	SHINee「데리러 가(Good Evening)」(2018)	미디어 (2)
13	aespa「Black Mamba」(2020)	미디어 (3)
14	수행 과제	

(3) 1~3회차 수업의 실제

1회차: 뮤직비디오 장르 이해하기

1회차 수업에서는 EXO의 「LOVE ME RIGHT」(2015) 뮤직비디오를 대상으로 하여, 뮤직비디오 장르의 다중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차용된 이미지, 촬영 방식, 세트 등의 복합성이 여타 뮤직비디오와 비교했을 때 매우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뮤직비디오의 장르적 특성을 이해하기에 적합한 교재이다. 먼저 뮤직비디오와 관련된 기존의 경험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해 본 뒤, 뮤직비디오를 구성하는 요소들(사운드, 가사, 이미지, 세트, 아티스트, 소도구 등)에 대한 짧은 강의를 평이한 한국어로 진행했다. 강의 후에는 「LOVE ME RIGHT」의 뮤직비디오를 함께 시청한 다음, 학생들에게 ‘이 뮤직비디오를 첫 시간에 시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일본어/한국어 작문으로 제출하게 했다. 일본어 작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 것은 학습자가 추상적으로 사고한 내용을 비교적 익숙한 언어로 먼저 표현하게 함으로써 언어 표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한국어 학습을 모국어어를 포함한 종합적인 언어 능력의 신장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한국어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직 익숙치 않은 학습자에게는 AI 번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뒤, 번역된 문장에 등장하는 표현, 문법 요소들에 대해 간단히 해설하거나 관련 내용을 수업 외 시간에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학생들이 제출한 작문 내용을 살펴 보면, 사전 강의에서 언급한 뮤직비디오의 구성 요소를 뮤직비디오의 의미와 연관지어 적극적으로 해석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뮤직비디오의 구성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결과적으로는 단일한 내러티브로 환원되지 않는 뮤직비디오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표현상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포함해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은 다음과 같았다.

「LOVE ME RIGHT」 뮤직비디오를 시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사와 MV 내용의 공통점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중에 숲에서 신경을 잃고 있는 멤버가 있어, 이것은 집단이나 사회로부터의 분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편, 미식축구라는 집단성 있는 스포츠도 특징적이었습니다. ‘고독’과 ‘집단’의 이면성을 나타내는 MV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MV에서는 세 가지 배경 사이를 전환하고 있다. 이들 배경에서 어떤 관련이 있냐고 생각하고 있

따. 또한 첫 번째의 수업이니까 가사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화면만 주목하고 예술적과 문화적으로 MV가 표현하고 싶은 걸 생각하고 싶다. 노래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화면과 멜로디만으로 알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싶다. 쓸데없는 말인데, 실은 저는 감수성이 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가사를 보지만 반드시 MV가 말하고 있는 걸 알 수 없다.

사용하고 있는 세트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세트 수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CG나 조명 등을 사용한 세트도 있어 노력과 돈을 들여 만들어진 MV 대표 중 하나로 다뤄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의 역사를 견인해 온 SM엔터의 MV 작품이니까. 스토리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스토리는 몰랐지만, 선로의 장면이나 숲의 장면 등을 보았을 때,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느꼈다. SM의 MV 작품은 고찰 요소가 많다는 인상도 있으므로 MV의 메시지를 많이 고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루어졌을까 생각했다.

영상의 대비: 푸른 조명이랑 붉은 조명을 사용해서 선과 악, 이상과 현실같은 정반대인 사물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멤버들이 춤출 때 입고 있는 시원한 청바지의상, 숲이나 물같은 선량해보이는 요소들이 나오는 반면 낙서나 네온사인, 어두운 탈의실, 흐트러진 옷과 헤어스타일, 상처가 나거나 진흙을 문힌 얼굴, 조금 찌한 메이크업등 조금 불량해보이는 요소도 많이 등장했다.

몽환적인 분위기: 안개나 약품의 연기, 멤버들이 자고있는 장면

영상의 전환점: 멤버들의 눈, 작은 공(행성을 닮았다고 느꼈다, 엑소가 갖는 우주 세계관?), 버퍼링 효과등...이들을 활용해서 장면이 바뀐다는 걸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듯?

엑소의 다른 노래와의 관련성: 개인적으로는 시계열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 하얀 식탁이나 가구가 나오는 점이 몬스터랑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엑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진지한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뮤비가 많지만 재미라잇은 엑소 노래치고는 꽤 밝고 경쾌한 노래이기 때문에 가사와 영상의 차이가 많이 나서 특히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만큼 조명이나 멤버들의 표정 연기같은 대비를 강조해서 엑소의 세계관과 설정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건 아닐까 싶다.

첫 번째 수업에서 이 MV를 본 이유는 MV가 이 노래의 첫인상을 만드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한국어 노래는 그냥 노래를 들을 뿐이라면 가사나 그 뜻이도 모르니까 그 분위기나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오늘 실제로 MV를 감상해 보면서 좀 파티 같은 흥겨운 인상을 받았다. 이것이 MV의 의도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노래 대한 이미지가 생긴 건 사실이다. MV에서는 그런 노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주는 역할이 있는 것을 학생들한테 전하는 위해 첫 번째 수업에서 이 MV를 본 것 같다.

뮤직비디오 감상으로는 곡은 이미 알고있었는데 뮤직비디오를 보는 건 처음이라 미식축구 유니폼 같은 게 나와서 이런 느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 과제곡으로 쓰이고 마지막 고음 파트에서 편곡을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는 연습생들의 볼거리로 안성맞춤인 곡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근데 곡명으로도 웬지 모르게 상상은 했지만 청춘계의 화려한 뮤직비디오는 아니었어요. 이걸 첫 수업에서 본 이유는 이번 학기 K-POP에 대해서 배우고, 이번 학기 마지막에 한 번 더 보고 얼마나 이 뮤직비디오를 보는 눈이 달라졌는지 비교하기 위해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비교를 하는데 엑소의 LOVE ME RIGHT가 뭔가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문 제출 후에는 작문의 내용을 종합하여, 뮤직비디오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의 축을 따라가며 가사, 음악, 영상 등이 맞물리고 어긋나면서 다양한 해석적 ‘틈’을 만들어내는 것이 뮤직비디오의 장르적 특성의 하나라는 이론적 설명을 부연했다.

2회차: K-POP 뮤직비디오의 흐름

2회차 수업에서는 2000년대에 발표된 뮤직비디오 세 편(BIGBANG「LA-LA-LA」(2006), 소

녀시대「다시 만난 세계」(2007), 2PM「10점 만점에 10점」(2009))을 교재로 하여 수업을 진행했다. 세 뮤직비디오를 통해 커리큘럼 전반에 걸쳐 시청하게 될 2010년대 이후의 뮤직비디오의 전사(前史)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어 학습이 수업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인 만큼, 세 편의 뮤직비디오를 비교, 대조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의 학습에도 중점을 두었다. 수업은 ①뮤직비디오 시청, ②토론, ③강의, ④작문과 발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뮤직비디오를 시청한 뒤, 그룹별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했으며, 토론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일본어/한국어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교수자는 학생들의 메모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이후 강의에서 언급해야 할 개념 및 표현들을 학생들의 토론 내용으로부터 추출했다. 토론 과정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메모(일부 일본어는 교수자가 한국어로 번역)는 다음과 같다.

그룹1	웃이와 머리스타일은 지금이랑 다르다/ 안무가 별로 없다 / 신체 노출이 많다 / 스토리성이 없다 / 힙합의 느낌이 있고 랩이 많다 / 여성을 평가 하는 가사 사회에 반발하는 느낌이 있다 / 꿈이랑 관련이 있다 / 랩이 많다 / 소행이 나빠 보이다 / 멜로디보다 리듬이 강하다 / 투피엠은 지금 이 곡을 발표하면 욕먹을 것 같다 / 소녀시대 노래는 요즘 노래와 비슷한 거 있는 거 같다 / CG가 별로 없다/ 어디에서 찍은지 모른다 / 색이 산뜻하다/ 배경의 변화가 많이 있다 / 얼굴만 찍는 시나리오가 많다 /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하다 / 2pm의 경우 스토리성이 있었지만, 나머지 2편은 반발감이 강했다 / 제작에 힘과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룹2	BIGBANG: 세트 수가 적다(2개) / 목걸이가 초기 BTS를 닮았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싫증이 났다 / TV가 낡았다 / 빅뱅은 세트 수가 두 개로 교실과 춤추는 장소만 있어서 적다고 생각했다. 교실은 공부하는 장소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춤추는 영상이 흘러나오는 설정으로 공부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다. 춤추는 장면의 복장이 초창기 방탄소년단과 비슷해서 당시 유행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시대: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 / into the new world의 묘사 / 헬리콥터, 오토바이, 운동화, 에스컬레이터 / 남자아이들이 할 것 같은 것을 여자아이들이 하고 있다 / 포기할 수 없는, 하고 싶은 일을 한다 / 열은 화장, 건강한 이미지 / 스니커즈(운동화, 여성스럽지 않은)를 신고 힙합 댄스 / 남자는 나오지 않는다 / 가사와 영상이 연결되지 않음 2PM: 여성을 지나치게 과격하게 묘사하고 있다 / 현대에는 방영할 수 없을 것 같음 / BIGBANG에 비해 근육질 / 가사가 파렴치하다 / 데뷔곡답지 않다

토론 후에는 비교, 대조와 관련된 한국어 표현(…반면에, …에 비해서 등),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한 표현(… 것 같다, …지도 모르다 등)을 강의를 통해 학습하고, 이에 더해 학생들이 토론 과정에서 한국어로 표현하지 못한 용어들(스토리텔링, 내러티브, 클로즈업, 바스트샷, 반향심, 괴리 등)에 대한 설명을 부연했다. 강의 후에는 토론의 내용과 강의의 내용을 종합해서 그룹별로 작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그룹1	일단 모든 뮤직비디오가 지금과 다르다는 것이 첫인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각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시각적 측면의 차이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사용된 색상의 선명도가 낮고, 배경의 전환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얼굴의 클로즈업 컷이 지금에 비해 많았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 그룹의 뮤직비디오에서 꿈과 열망, 그리고 규칙에 대한 반항심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여성을 평가하는 가사나 신체적 표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절대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이지만 신선했어요.
그룹2	빅뱅의 뮤직비디오는 교실과 춤추는 장소만 나와서 세트가 적다고 생각했어요. 교실은 대표적인 공부 장소니까 그곳에서 춤추는 영상이 나오는 설정은 공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녀시대의 뮤직비디오는 '인 투더 뉴 월드'라는 제목처럼 새로운 세계로 뛰어드는 소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헬리콥터와 오토바이, 에스컬레이터는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고, 젠더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여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영상에 남성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느꼈어요. 투피엠의 뮤직비디오는 다른 두 뮤직비디오에 비해 여성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묘사가 많아 지금은 방송되지 못 할 것 같아요. 데뷔 당시 2PM은 대다수의 멤버가 성인이어서 데뷔곡부터 성적인 소재의 곡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룹의 대표자가 작문을 발표한 뒤, 작문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했다. 피드백 과정에서는 한국어 표현에 대한 첨삭 뿐만 아니라, 작문에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여성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묘사'가 많은 뮤직비디오가 왜 이 때는 문제되지 않았을까?, 지금 인기있는 뮤직비디오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등)를 제기하여 수업 후에도 학습자가 관련 내용을 알아 보고 다음 회차의 수업에서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또한 발표 과정에서 한국어 발음에 부족함을 느낀 학생들이 있어 작성한 작문을 활용해 발음 연습을 한 뒤 음성 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과제로 내 주었다.

3회차: 젠더와 이미지 (1)

3회차 수업에서는 앞서 진행한 두 번의 수업을 통해 학습한 뮤직비디오의 장르적 특성과 변천 과정을 고려하면서 본격적으로 테마별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했다. 소녀/여성의 대비적인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IU「스물 셋」(2015)을 통해 젠더 묘사와 그 의도를 포착해 내도록 하는 것이 주안점이었다. 한국어 학습의 측면에서는 전 회차에 학습한 비교, 대조 표현에 더해, 뮤직비디오가 그려내는 시각적 이미지와 그 변화 양상을 묘사하기 위한 한국어 표현(…아/어 보이다, …스럽다, …고 있다, …게 되다, …아/어 지다, …것 같다 등)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뮤직비디오 시청 후 토론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메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룹1	· 나이표상 국민 여동생 이미지→자신은 성숙하고 싶다 / 23(성인, 사회인)살이라는 나이의 의미(사회가 주는 이미지와 자신의 이상형과의 괴리감) / 토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세계=어린이 / 작아지기도 하고 거인이 되기도 한다=어느 쪽도 아닌 나이 / 케이크를
-----	---

	먹는다=어른이 된다 · 욕망 음식을 대충 먹는다 / 마이크(→꽃병)를 쓰러뜨리다:일(→성공하고 있다)을 내팽개치고 있다 / 방이 지저분하다 / 인형, 우유=엄마, 아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 담배, 파티 / 케이크:욕망 (식사 제한?) / 스모 인형, 사과=먹어서 살찐 어른의 체형(외모지상주의?)
그룹2	어른이 되고싶은 아이같은 모습이 보였다 / 현실을 (자신이 어른이 아니라는 걸 자각하는 장면) 깨닫는 장면이 있었다 /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의욕이 없어보이는 모습이 보였다 / 그전까지의 아이유 작품 스타일과 상반되게 갑자기 어른스러운 곡 컨셉으로 바뀌어서 대중의 반응 또한 당황스러워 했던 것 아니었을까 / 담배를 피는 실루엣이 보였는데 심의상 괜찮은 거였을까 / 젖병을 물고있는 씬에서 이질감을 느꼈다 어른스러움과 아이같음이 이상하게 공존해서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컨셉 / 아이유의 데뷔가 너무 빨라서 어렸을 적부터 어른과 같이 일해온 폐해이지 않았나 / 이 곡을 계기로 어른스러운 곡을 많이 만들었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번 일이 계기였을지도 모르겠다

토론 후에는 전술한 한국어 표현들에 더해 토론 과정에서 학생들이 표현에 어려움을 느낀 개념들(성장 서사, 정체성, 주체성, 상징/상징적 이미지, 상반된/고정된 이미지, 차용, 입체적/평면적, 은유 등)에 대한 간단한 강의를 진행했다. 한국어 표현과 관련해서는 문법에 대한 설명을 하기 보다, 해당 뮤직비디오를 설명할 수 있는 강의 후 학생들이 작성한 작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 회차에서 그룹1의 학생들은 시간 부족으로 인해 토론의 내용을 하나의 작문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각자가 생각을 정리해서 작문으로 제출했다. 작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들도 다수 있었으며, 그 경우에는 수업이 끝난 후 완성된 작문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AI 번역을 활용한 경우에는 번역된 문장의 오류를 수정하고 번역 과정에서 새롭게 배운 표현들을 따로 정리한 노트를 제출하게 했다. 완성된 작문을 통해 새롭게 학습한 개념어와 문법의 활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피드백을 진행했다.

그룹1	① 이번 뮤직비디오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은 고정된 이미지를 강요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국민 여동생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이제 23살이니만큼 성숙해지고 싶다는, 사회가 주는 인상과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의 차이를 표현한 것 같아요. 이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의식한 콘셉트나 마이크를 쓰러뜨리는 등 반항심을 드러내는 장면에서 읽을 수 있어요. ②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 아이유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아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인상과 어른이 되고 싶은 자신과의 갈등이라고 생각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작품에서 케이크는 자신의 몸을 크게 만드는 음식인데, 뮤직비디오의 무대는 케이크를 먹음으로써 일시적으로 어른이 된 세계(정신세계)라고 생각했다. 그 세계에서 아이유는 담배를 피우거나 사과를 자신의 가슴으로 흉내 내는 등 어른이 된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담배는 진짜가 아니고, 사과를 가슴으로 흉내 낸 모습에 대해 손가락으로 욕을 하다. 이는 자신은 어른이 되고 싶지만, '국민 여동생'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세상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③ 이 뮤직비디오는 23살 아이유의 모순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23살은 자립해서 사회로 나가야 할 나이인데, 스물 세살 아이유는 주변에서 '국민 여동생'이라는 평가에 얽매어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나답게 살고 싶고, 그것을 드
-----	---

	러내고 싶지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 많은 장면들을 비교하면서 그런 모순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집에서 지저분하게 화장하는 장면과 깔끔한 의상을 입고 인터뷰에 응하는 장면 등이 있어요. ④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사회의 이미지대로가 아닌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갈등을 표현하고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나이에 데뷔한 아이유에 대해 사회는 '국민 여동생'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유는 이제 23살이니만큼 여동생 같은 모습이 아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싶을 것 같아요. 또 아이유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일을 던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를 쓰러뜨리고 그것이 꽃병으로 바뀌는 장면이 이 감정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유는 아이돌이기 때문에 몸매를 관리해야 하지만, 많이 먹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케이크를 한 입만 먹고 후회하는 장면, 케이크를 많이 먹고 커지는 장면이 이 갈등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룹2	아이유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스물 셋의 애매한 나이에서의 갈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담배를 물고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장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장면, 토끼를 쫓는 장면, 사과를 옷 속으로 넣은 장면 등, 뮤직비디오에서는 다양한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 진한 화장을 한 채 젓병을 물고있는 부분이 가장 특징인데, 이부분이 어른스러움과 아이같은 모습이 겹쳐져 보이는 가장 위화감이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은 이 장면을 성적묘사로 평가했지만, 그저 아이유의 “아가씨 태, 다 큰 척, 알미운 스물셋, 아직 한참 멀었다, 덜 자란 척”이라는 가사에서 보이는 나이와 정체성을 둔 자신만의 갈등의 표현이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아이유는 데뷔를 너무 빨리 한 탓에, 주변 환경에 맞춰 일찍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했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었을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스물셋을 계기로 어른스러운 분위기의 곡을 많이 만들 걸 보면, 자신을 표현할 줄 몰랐던 아이유가 스물셋 이후로 어른스러움을 어른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했다고 느껴집니다.

3회차 수업에서는 뮤직비디오를 대상으로 한 토론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학생들이 1, 2회차보다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만, 토론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수록 90분의 수업 시간 내에 토론 내용에 기반한 강의와 작문, 발표를 소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겼다. 또한, 공개 당시부터 주목을 받았던 「스물 셋」 뮤직비디오에 대한 해석을 인터넷으로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뮤직비디오 해석이 학생들의 독해에 일종의 선입견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개선점 및 향후 전망

3회차까지 진행한 연구 수업을 통해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의 강점과 한계점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고 또 장르 문법에 익숙한 뮤직비디오를 교재로 활용함으로써 수업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뮤직비디오 속의 여러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을 표현하려는 과정 속에서 일본어/한국어로의 표현의 한계에 부딪히고 그 경험이 새로운 언어 획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교재로써의 뮤직비디오의 가능성을 실감케 해 주었다. 하지만 3회차 수업에서 분명해졌듯, 90분이라는 제한된 학습 시간 내에 뮤직비디오 시청, 토론, 새로운 개념과 표현의 학습, 작문과 발표라는 활동을 완전히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뮤직비디오에 대한 해석이 정형화되는 양상도 보여 개선할 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업에서는 각 회차에서 학습할 내용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토론 및 작문의 내용이 지나치게 확장되지 않도록 교수자가 적절히 개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 시간을 운용하려 한다. 학습 내용의 제한은 교수자가 학기 전체의 학습 성과를 객관적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학습자가 학습 성과를 실감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뮤직비디오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 역시 비판적 해석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수업 시간 내에 마련하려 한다.

3.2.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 교육

3.2.1. 연구 수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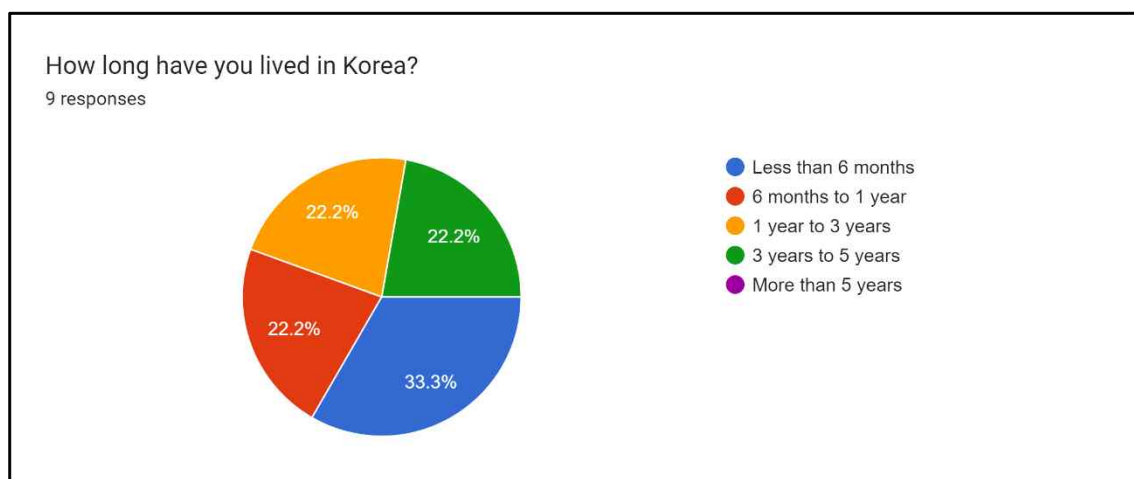
(1) 수업의 성격

이 연구는 한국의 한 대학에서 외국인 전용 선택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영어 수업(〈대중문화와 사회〉)에서 한국대학에 정식 유학을 오거나 단기로 교환학생을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수업은 1주일에 3시간으로 총 15주가 진행된다. 이 과목은 케이팝 가사와 뮤직비디오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하고 케이팝 가사와 뮤직 비디오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은 전 회차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고, 강사의 강의와 학생들의 토론과 질의응답, 그리고 중간발표 1회, 기말발표 1회로 이루어졌다.

(2) 수업 참가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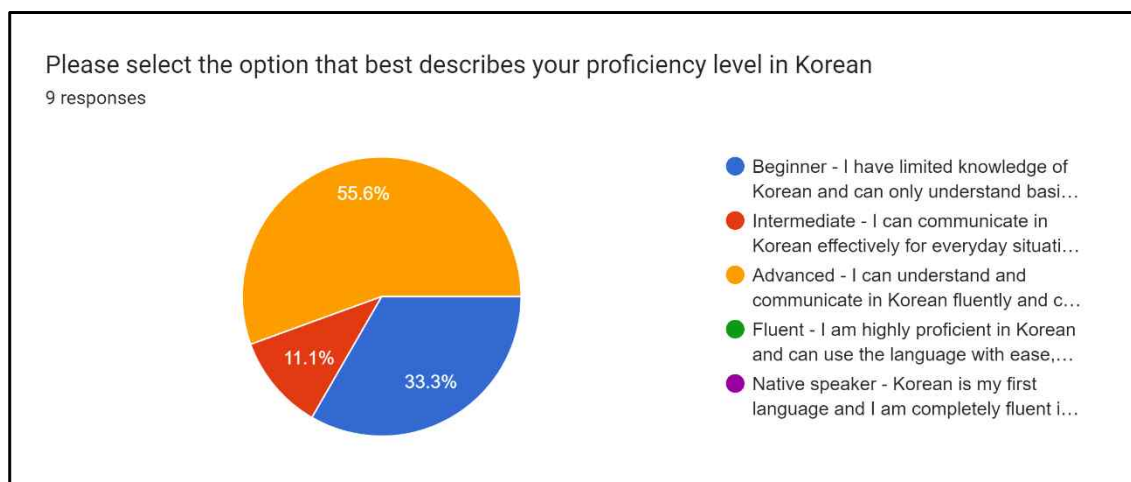
수업은 총 12명의 학생들이 수강하는데, 9명의 학생들이 수강 전 설문에 참여했다. 이들의 국적은 미얀마 2명, 볼리비아 1명, 핀란드 1명, 인도네시아 1명, 이란 1명, 대만 1명, 튀르키예 1명, 미국 1명이며 모두 여성이다.

한국에 산 기간도 매우 다양해서, 한국에 온지 6개월 미만인 학생이 3명,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2명, 1년에서 3년 미만이 2명, 3년에서 5년 미만이 2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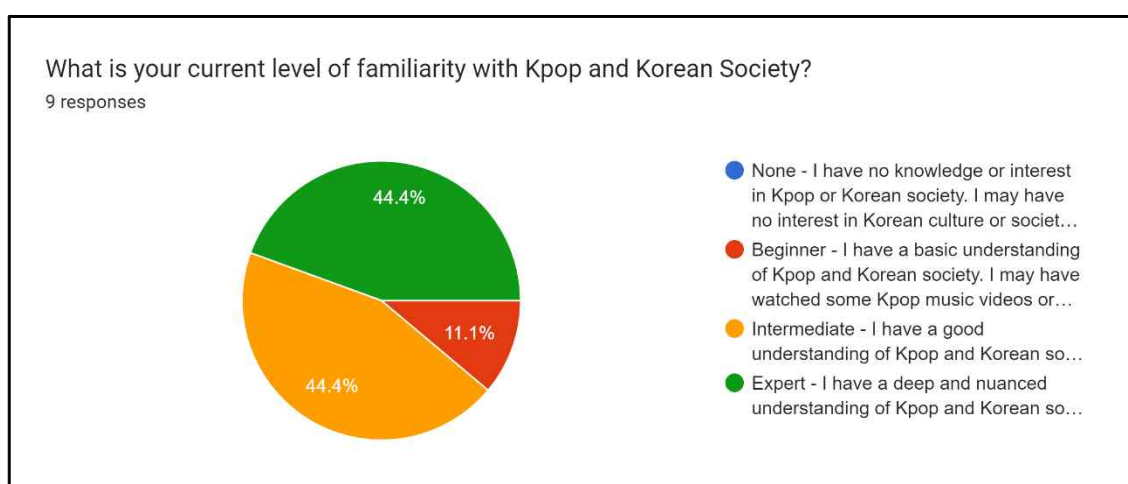
이에 따라 한국어 수준도 다양했다 3명은 한국어를 거의 못한다고 답했으며 1명은 일상생활

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정도이지만 문법이나 단어는 제한적이라고 답했으며, 5명은 한국어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숙하게 큰 문제없이 소통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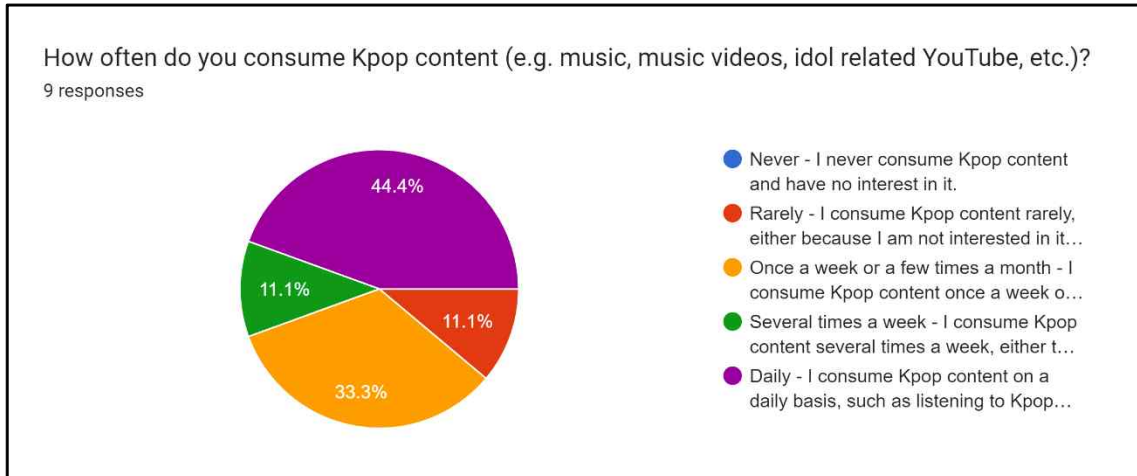
영어 실력에 대한 답변도 다양했다. 영어로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것에 불편함은 없지만 고급 문법이나 어휘는 제한적이라는 답이 3명이었고, 영어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숙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답변이 3명,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 1명, 영어가 모어라는 답변이 2명이었다.

케이팝과 한국사회에 대한 친숙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명은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4명은 케이팝과 한국사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고, 4명은 케이팝과 한국사회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한국어에 비해서 케이팝과 한국사회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높은 것은 특히 이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이 케이팝 콘텐츠에 친숙하며 많은 시간을 들여 이를 소비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케이팝 콘텐츠(음악, 뮤직비디오, 아이돌 관련 영상 등)를 얼마나 자주 소비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통해 확인되었다. 매우 간혹이라는 답변은 1명, 1주일에 1번 꼴이라는 답변이 3명, 1주일에 여러 번이 1명, 매일이라는 답변이 4명이었다. 특히 앞서 케이팝

과 한국사회에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학생 4명 중 3명이 케이팝을 매일 소비하는 학생이라고 답했으며, 나머지 1명 또한 케이팝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것을 통해, 케이팝을 자주 사용하는 것과 케이팝과 한국사회 이해도에 대한 자기 평가는 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을 듣는 목적과 이 수업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라는 주관식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들이 있었다.

1. 한국 사회 가치와 문화적 기준이 케이팝 뮤직비디오와 연관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케이팝 뮤직비디오는 대부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2. 케이팝 뮤직비디오의 언어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케이팝 음악을 통해서 한국문화를 더 배우고 싶다.
3. 한국 문화와 역사를 케이팝을 통해 배우고 싶다.
4. 이 수업 끝날 때 쯤에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고, 보다 깊은 수준에서 이를 분석하고 싶다.
5. 패션 디자인 전공으로서 나는 스타일링과 비디오에 매우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더 배워서 한국 팝 문화의 깊이를 배우고 싶다.
6. 케이팝 뮤직비디오에서 음악에 대한 내 시야를 넓히고 싶다. 왜냐하면 뮤직비디오를 볼 때 나는 아이돌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지금부터는 뮤직비디오의 의미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싶다.
7. 한국 사회를 케이팝 음악을 통해 이해하고 싶다.

이러한 답변들로 미루어, 학생들은 대부분 케이팝 뮤직비디오를 매개로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초점을 두었다. 물론 이것이 강의계획서에서 제시한 핵심적인 목표중 하나였지만, 다른 핵심적인 목표가 케이팝 뮤직비디오와 한국사회에 대한 지식을 매개로 내가 속한 문화와 비교해보고 나를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는 것은 이 두번째 목표는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3.2.2. 수업 과정과 결과

(1) 커리큘럼 구성 및 뮤직비디오의 선정기준

한 학기 수업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서 진행된다. 첫번째 단계는 수업에 대해서 소개하며, 뮤직비디오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를 익히는 단계이다. 두번째 단계는 주제를 가지고 케이팝 뮤직비디오를 탐구하는데, 이 단계는 두 주제로 나뉜다. 첫번째 주제는 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국 여성 가수의 히트곡과 그 뮤직비디오에 나타난 여성상의 변화이며 두번째 주제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면모와 케이팝이다. 지금 발표하는 시점에는 첫번째 주제가 끝나고 두번째 주제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첫번째 주제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첫번째 주제는 각 10년대 단위를 1주에 수업한다. 각 시대별로 시대를 대표하며 해당 시대의 여성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가수와 노래를 각 2곡씩 선정했다.

80년대: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선희의 “J에게”

90년대: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김현정의 “멍”

2000년대: 이효리의 “10 Minutes”, BoA의 “No.1”

2010년대: 아이유의 “좋은 날”, 선미의 “가시나”

수업은 해당 곡을 들려주며 한국어 가사와 영어로 번역한 가사를 읽고 이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지 왜 그런지를 묻는다. 이후 뮤직비디오나 뮤직비디오가 없다면 공연 영상을 보여주며, 교수자가 준비한 질문을 제시한다. 해당 질문을 조원들과 토론한 이후에 이를 함께 논의한 후, 교수자가 준비한 개념들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질문들에 대해서 다시금 토론해본다. 4주 후에 학생들은 자기들이 분석하고 싶은 곡과 뮤직비디오를 선정해서 이를 발표하며 자신의 문화와 비교해서 느낀 점 등을 논의한다.

(2) 실제 수업 예시

두번째 주차에 박재범(Jay Park)의 좋아(Joah)의 가사를 읽히게 하고 감상을 묻고 자신이 감독이라면 어떻게 뮤직비디오를 만들겠냐고 물었다. 12명의 학생들은 3명씩 4조로 나누었고 가능한 다양한 국적이 섞이도록 했다. 앞서 설문을 통해 확인했듯이, 학생들은 대부분 케이팝에 친숙한 학생들이라 즐겁게 논의를 했다. 뮤직비디오에 대한 아이디어도 매우 다양하게 제시했다. 이후 뮤직비디오를 보여주고 감상을 물었을 때에 대부분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답했고, 패션 전공자 입장에서 박재범의 패션을 분석하기도 했으며, 뮤직비디오가 매우 ‘미국적’이라고 답했다.

학생들의 토론을 들은 이후 교수자는 성적 대상화나 여성 육체의 파편화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뮤직비디오의 장면들을 캡처한 ppt를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했다.



〈사진 1 박재범 뮤직비디오 중 클라라의 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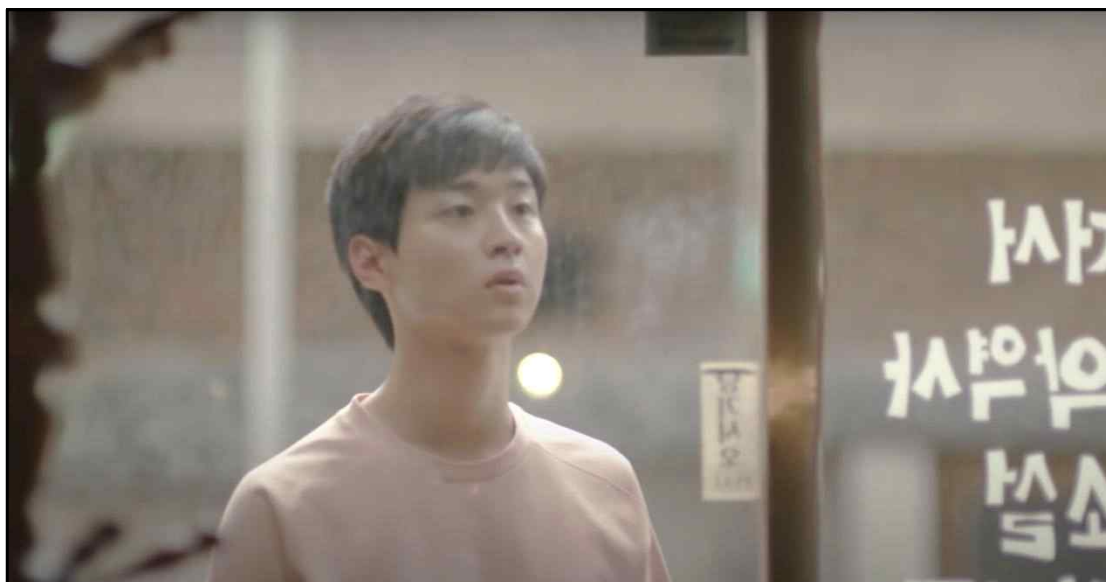


〈사진 2 박재범 뮤직비디오 중 클라라의 썸 2〉

이러한 구도는 개별 여성의 인격을 나타내는 장소인 얼굴을 지우고 육체성에 집중하게 하며 성적 대상화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박재범의 뮤직비디오에서 만약 자신이 저 여성이었다면 어땠을 지,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가 촬영된 장소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면, 또는 자기의 모국이면 어땠을 것 같은 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학생들은 한국이라면 뮤직비디오가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남자가 여자를 길거리에서 따라다니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문화라고 했다. 미국에서 온 학생은 텍사스 출신이었는데 저런 경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렇게 남성이 여성을 길거리에서 따라다니는 것은 과거에 일부 지역에서는 있었고 이는 이제는 폭력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답했다. 이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의 문화와 비교하면서 한국의 치안에 대해서 논의하며 만약 자기 모국이었다면 뮤직비디오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었을 것인지를 논의했다.

이어 그렇다면 여성이 남성을 좋아할 때는 어떻게 뮤직비디오에서 표현되는지 살펴보고 제안하며 볼 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의 가사를 먼저 제시했다. 학생들에게 가사의 차이가 있냐고 물었고, 학생들은 박재범의 가사는 계속 너가 좋다고 일방적으로 고백한다면, 볼 빨간 사춘기는 좋아하니까 무언가를 준다고 한다면서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각 학생들은 이것이 배경이 자기 모국이라도 비슷할 것 같다고 하면서 이는 보편적인 남/녀 차이일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왜 남성은 좋아할 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여성은 무언가를 주려고 하냐고 묻자, 학생들은 생물학적인 원인에서부터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 등까지 다양한 원인을 제시했다. 이후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3 “우주를 줄게”의 장동윤 등장썸〉

이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로 서점이 상대 배우의 첫 등장썸인데, “좋아”에서는 카메라가 밖에서 안을 비추고 클라라의 뒷모습을 비춘다면,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남자의 정면을 비춘다.



〈사진 4 “좋아”의 클라라 등장썸〉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어떤 건물의 안/밖, 카메라 시선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학생들은 이 개념을 토대로 “우주를 줄게” 뮤직비디오 안에서는 남자 상대역이 훨씬 더 카메라를 훨씬 많이 응시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 여기서 남자는 훨씬 더 활동적이라면 “좋아”에서 클라라는 수동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분석했다.

이후 해당 뮤직비디오와 연관되어 여성-안, 남성-밖이라는 이분법이 언제 어디에서는 적용되고 언제부터 어디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냐고 물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예를 들어 ITZY의 “달라달라” 같은 뮤직비디오나 백예린의 “Bye bye my blue”와 같은 뮤직비디오의 예를 들었다.

(3) 학생들의 반응

10주차 현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2명 중 11명이 응답했다. 문제는 객관식 5개 주관식 1개였다.

1. 교수는 강의계획서에 따라 수업을 충실하게 준비(보조교재 및 과제 포함)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매우 그렇다 8명, 그렇다 1명, 보통이다 2명
2. 교수는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강의하였다. 매우 그렇다 8명, 그렇다 2명, 보통이다 1명
3. 교수는 학생들의 질문, 의견 등에 적절하게 피드백(feedback)하였다. 매우 그렇다 8명, 그렇다 2명, 보통이다 1명
4. 나는 본 강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겠다. 매우 그렇다 7명, 그렇다 2명, 보통이다 2명
5. 교수는 성, 인종, 국가, 종교 등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였다. 매우 그렇다 8명, 그렇다 2명, 보통이다 1명
6. 본 강의의 장점과 개선점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Great lecturer, very knowledgeable about the topic that was taught, 전제적으로 만족합니다, 교수님 너무 착하고 수업도 재미있지만 중간고사 너무 어려웠어요., Good class, 없습니다, 영어강의를 들었니까 영어실력도 늘었단것 같아요, The course's main focus is on Kpop so if you are interested in that this is the right class for you. Personally, the classes were a bit repetitive and not what I expected., Professor gives a great explanation related to the material which helps me to understand this course., The professor is very kind and engaging the student a lot. The materials are very well delivered.⁴⁾

전반적으로는 수업에 대해서 만족했지만 발표가 어려웠다거나, 반복이 많았다는 언급이 있었다.

4) 학생들의 답변 그대로를 제시하여 오타자 등이 있다.

(4) 개선점 및 향후 전망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심지어 자신의 케이팝을 좋아하는 친구가 한국에 여행왔는데 수업을 들어도 되겠냐고 해서 2차례 서로 다른 그룹이 수업을 청강했다. 청강생들은 케이팝을 좋아해서 한국여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케이팝을 대학에서 배운다는 것 자체가 매우 흥분되는 일이라고 답했다. 또한, 12명 정도의 소규모 수업이기 때문에, 몇 명이 발표를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은 있지만 거의 모든 학생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었다. 이는 개인차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서구권 학생들이 발표에 보다 적극적이었고 아시아권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데 조금 덜 적극적인 경향은 있었다. 이는 영어에 얼마나 친숙하느냐의 요소와 동시에 문화적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간 발표에는 조별로 하나의 뮤직비디오를 골라서 해당 뮤직비디오에 나타난 여성상을 분석하고 이를 자신의 출신 국가와 비교하는 작업을 하며 새로운 뮤직비디오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각각 레드 벨벳의 “베드 보이”, 뉴진스의 “Hype Boy”, 현아의 “베베”, BTS의 “Boys in Love”를 선택했다. 모두 해당 뮤직비디오와 가사는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지만, 이를 자국의 음악과 비교하거나 새로운 뮤직비디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어려워했다. 수업 중에는 기존 뮤직비디오와 가사 분석에 치중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는 익숙하게 수행했지만, 자국의 문화와 비교나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것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말발표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서, 새로운 뮤직비디오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구성원 중 한 명의 문화에서 이 뮤직비디오를 창작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문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수업을 듣고 난 이후 학생들이 수업에서 느끼는 점을 설문하여 학생들의 수업 경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4. 맺는 말

5. 참고문헌

- 김경숙 & 라혜민. (2011). 한국(韓國)의 문화(文化): 뮤직비디오를 이용한 한국어,문화 교육 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59.
- 김정숙 외. (2018).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 *새국어생활*, 28(2). 국립국어원.
- 성은주 & 엄나영. (2012).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창의적 글쓰기 학습이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어문학*, 82.
- 신현준. (2013). 가요, 케이팝 그리고 그 너머. 돌베개.
- 안숙현. (2006).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토의 중심의 글쓰기 교육. *새국어교육*, 73.
- 임수진. (2018). 대중가요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시 쓰기 활동의 교육적 효과. *국어교육연구*, 42.
- 장정운. (2020). 다양한 예술 매체의 통합으로 완성한 ‘기억하기’: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봄날〉의 이미지 연구. *스토리&이미지텔링*, 19.

- 青山太郎 & 木村亮介. (2017). 創造的学習としての映像制作プロジェクトをめぐる試論 : ミュージックビデオ「恋のQ&A」における実践プロセスの検討. *名古屋文理大学紀要*, 18.
- 金成玫. (2018). *K-POP新感覚のメディア*. 岩波新書.
- 楠見孝 & 道田泰司 (Eds.). (2015). *批判的思考—21世紀を生きぬくリテラシーの基盤*. 新曜社.
- 清水暁子. (2018). K-POPファンとそのTwitter利用に関する一考察 : D.マルチとE.ゴフマンの理論を中心に. *早稲田大学大学院教育研究科紀要別冊*, 26(1).
- 鈴木孝典. (2022). 国語科指導におけるポピュラー音楽の教材化: 多面的な思考を促進するために. *国語探究*, 1.
- 野間秀樹. (2023). *K-POP原論*. Haza.
- 山本浄邦 (Ed.). (2014). *韓流・日流—東アジア文化交流の時代*. 勉誠出版.
- Blanco, C. (2022, Dec. 6). 2022 Duolingo language report. Duolingo Blog. <https://blog.duolingo.com/2022-duolingo-language-report/>
- Chae, Y. (2021, July). Teaching K-Culture: The Traditional in the Modern in K-Pop Music Videos. In *Conference Proceedings. The Future of Education 2021*.
- Djonov, E., & Zhao, S. (eds.). (2014). *Critical multimodal studies of popular discourse*. Routledge.
- Keith, S. (2018). Popular music and Korean learning: K-pop in Australia. In *Multilingual Sydney* (pp. 79-90). Routledge.
- Kim, A. (2017). *Korean Popular Music (K-Pop), Youth Fan Culture, And Art Education Curriculum*.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Retrieved from <https://scholarcommons.sc.edu/etd/4368>
- Kim, S. Y. (2018). *K-pop Live: Fans, Idols, and Multimedia Performance*.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ve, J., & Wenger, E. (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E. M. (2018). A study on the effect of creative Chinese characters learning on the ability to learn Chinese old sayings and idioms using K-Pop music video. *Cultural and Religious Studies*, 6(3), 192-203.
- Lee, I. (2018). Effects of Contact with Korean popular culture on KFL learners' motivation. *The Korean Language in America*, 22(1), 25-45.
- Lim, F. V., & Tan-Chia, L. (2022). *Designing learning for multimodal literacy: Teaching viewing and representing*. Taylor & Francis.
- Machin, A., & Mayr, D. (2012). *How to do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 multimodal introduction*. Sage Publications.
- Ministry of Education. (1989). *Media Literacy: Resource Guide*.
- New London Group. (1996). A pedagogy of multiliteracies: Designing social futur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66(1), 60-92.
-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1989). *Media literacy: Resource guide. Intermediate and senior divisions*. Ministry of Education, Ontario.
- Osborn, B. (2021). *Interpreting Music Video: Popular Music in the Post-MTV Era*. Routledge.

Rychen, D. & Salganik, L. (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Hogrefe & Huber.

Taylor, P. G. (2007). Press pause: Critically contextualizing music video in visual culture and art education. *Studies in Art Education*, 48(3), 230-246.

Vernallis, C. (2004). *Experiencing Music Video: Aesthetics and Cultural Context*. Columbia University Press.